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

해
양
경
찰
청
수
기
집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착한박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수호’, ‘해양수색 · 구조 ·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해양관련 범죄 예방 · 진압 · 수사’
‘해양오염 예방 · 방제’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수기집

들어가며

故이청호 경사의 자녀 이지원 양이 보낸 편지로, 5002함(이청호함) 승조원분들과 故이청호 경사님께 올립니다

아빠!

벌써 7년이나 됐네. 잘 지내고 있어? 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휴학하고 해외인턴 가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는데 그래도 후회 안 해.

이왕 마음먹은 거 열심히 인턴 생활하고 돌아올게.

하늘에서 보면 나 어때? 잘 하고 있는 거 같아?

가끔 꿈에 찾아와서 놀아주는 거 보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빠랑 갑작스럽게 이별했을 때 나도 모르게 엄마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엄마한테 더 잘 해주려고 많이 노력해. 그러니 엄마 걱정은 조금만 해도 될 거 같아.

어른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빠는 이 세월 어떻게 보냈어?

아빠 얘기도 듣고 싶은데 곁에 없으니까 너무 슬프다.

아빠가 떠나고 해경은 물론이고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분들을 존경하게 됐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 아빠처럼 말이야.

그렇지만 한편으론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은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했어.

아빠처럼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니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니까 말이야.

그러다 몇 년 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아빠 이름을 딴 배를 보게 됐어.

아주 크고 멋진 배더라.

아빠 동기분을 만나서 아빠 옛이야기도 듣고, 배 소개도 받았어.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영웅분들과 함정을 보면서 나도 해경이 되고 싶어졌어.

그저 동경만으로 꿈꾸는 직업이 아니라, 아빠처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그래서 내 나라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말이야.
한국에 돌아오면 천천히 해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
멋지게 합격해서 제복 입고 대전현충원에 찾아갈게.
응원해줄 거지?
그럼 안녕, 사랑해!

5002함(이청호함) 승조원분들께

인사가 너무 늦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에 놀러 갔던 날,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날이에요.
박은진 경장님! 경장님을 보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보트 타고 사복을 입었던 경장님이 배에 올라타 다시 제복으로 갈아입고 오셨을 때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이지원 올림

목차

정의 규율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기획 인터뷰] “전 스물세 살이고요, 이지원입니다.”	08
반드시 잡아야 한다	14
폭풍 속 사투 24시간	30
출항 15분 전! 오늘도 출동이다	36
숨 가쁜 작전현장, 당신이 보고 말한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40
왜 나를 뽑았나요	48
하늘에서 지키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	55
눈꽃 향로 126해리	61
야간 칠흑바다, 실종선원 찾아 헬기에서 몸던져	69

공감 진실된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가 엄마 수업 듣고 해양경찰로 꿈을 바꿨대요!”	76
대시보드 수납장 속 지폐 한 장	84
그 섬에 석양이 질 무렵	89
바다 위에 그린 희망의 선율	93
내 딸, 엄마 보물 1호 해원이에게	98
나는 오늘도 독도로 간다	102
해양경찰의 시선	106
후쿠시마에서 가져오지 못한 도시락통	110
[기획 체험 글] 덕분에 바다는 잘 있습니다	115

소통 국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상황실 24시간, 고요 속의 외침	134
연평도 도발, 그 날을 기억하며	138
바다 위에서 얻은 새 생명	142
해녀의 안전을 생각하며	146
해양경찰 형사 휴대폰은 항상 ON AIR	149
부장님 힘내세요	154
여러분의 친구, 그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158
트럭 위의 해양경찰	166
[기획 인터뷰] 준비된 판단력과 빛나는 용기,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 고은 경장	170

존중 남을 나와 같이 여기며 항상 배려합니다.

시지프스는 행복했을까?	178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	181
바다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어라, 아들이!	185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나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189
바닷 속은 항상 차갑고 어둡다	193
지금 나를 있게 한 함장님 감사합니다	198
[기획 인터뷰] 염포부두 사고 선박 위 일등공신, 울산해양경찰서 해경구조대 경장 박철수	205



정의,

규율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마음속으로 ‘해 뜰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고 눈을 질끈 감았을 때, 서치라이트가 내 몸을 비췄다. 돌아온 헬기는 머리 바로 위에서 날고 있었고, 빠른 속도로 호이스트가 내려왔다. 이윽고 헬기의 하강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상승했던 그 순간은, 내 생애 가장 짜릿하고 기분 좋은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야간 칠흑 바다, 실종선원 찾아 헬기에서 몸 던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 경사 한승현



[기획 인터뷰] “전 스물세 살이고요, 이지원입니다.”	08
반드시 잡아야 한다	14
폭풍 속 사투 24시간	30
출항 15분 전! 오늘도 출동이다	36
숨 가쁜 작전현장, 당신이 보고 말한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40
왜 나를 뽑았나요	48
하늘에서 지키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	55
눈꽃 항로 126해리	61
야간 칠흑바다, 실종선원 찾아 헬기에서 몸던져	69

“전 스물세 살이고요, 이지원입니다.”

*故이청호 경사는 2011년 12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중 순직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인터뷰_ 조덕현

인터뷰이_ 故 이청호 경사의 딸 이지원

편집_ 김지현

카페에서 만난 지원 양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더니 우산을 가져왔느냐 물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느라 비가 오는 줄도 몰랐다. 우산은 당연히 없었다. 지하철 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겠다 말했더니, “비 많이 오는데. 제가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드릴게요.”란다. 마흔 살 먹은 기자 아저씨 걱정을 해주는 마음 따뜻한 지원 양. 이런 자리가 낯설어 수줍어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한다.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인터뷰인데, 대화의 말미까지 질문하는 이의 마음을 오히려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가 고맙다.

오늘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에 이청호 경사님의 자녀분 인터뷰라고 해서 ‘이청호 경사님이라면 그분인가...?’하고 놀랐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남동생이 있으시다고요. 남동생 두 분.

네.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요? 음.. 최근에 해외에 있는 호텔에 인턴으로 합격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출국할 예정이에요.

아~ 전공이 그쪽이세요?

아니요~ 아닌데, 운 좋게 합격이 되어서 지금 출국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는 하시던 일 계속하고 계시고, 동생 한 명은 해병대 지원해서 갔어요.

해병대요? 세계 나오네요(웃음).

네(웃음). 다른 동생 한 명은 어제 수능을 봐가지고.

수능이 어제였구나~ (카페 음식) 드시면서

하시죠. 안 그래도 출국하신다 들어서 여행 가는 줄 알았더니, 일하러 가시는 거였구나.

네. 1년 정도 다녀와요.

1년 정도. 그럼, 공식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기소개요? 어떻게 해야하나...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본인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아니면 소개팅을 나간다 생각하시면요~

소개팅이다 생각하면요? 전 스물세 살이고요,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소개팅 많이 안 해보셨죠?

네, 저 소개팅 안 해봤어요(웃음).

소개팅을 그렇게 하는 게 어땠어요~ 너무 담백해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

지원 양은 곧 출국하고, 동생은 해병대 갔고, 막넛동생은 수능 쳤고. 다들 바쁘네요.

네. 막내는 예전부터 아빠가 하시던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번에 그쪽으로

수시 접수했어요. 행정학과 졸업해서 경찰 준비한다고...

어머님은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평소에 반대를 잘 안 하세요.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항상 응원해주세요.

해병대 가있는 동생은 보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있을 거니까(웃음). 개는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나중에 여행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다니는 직업 재밌겠네요.

네. 본인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취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별별 사람들이랑 대화도 많이 해요. 저는 이런 게 잘 맞아요. 지원 양은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나요?

인터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 양 인터뷰는 따로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감사인사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당시에 아빠와의 이별이 예정된 이별이 아니었어서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었거든요. 아빠 관련된 기사가 나면 여 기저기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댓글을 달 아주셨어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캡처 했었거든요. 그걸 휴대폰에 담아두고 지금 도 힘들 때마다 보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그때,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그분들께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 아요.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려고요. 아직 가 끔 힘들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매번 용기 를 얻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지원 양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웃음).

인터넷엔 안 좋은 댓글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안 좋은 댓글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셨고. 이후에 아버 님 이름을 땀 배, ‘이청호 함’이 나왔어요. 네, 기념식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배가 굉장히 커서요.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ljwgs****
 아빠의 이름을 땀 이 배가 부디 대한민국 영해를 든든히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전

48
 0

ckg3****
 고인이 되셨지만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2시간 전 | 신고

sinc****
 마음이 편하네요. 고인에 화생 잊지 않기를 바라며.
 1시간 전 | 신고

han2****
 훌륭한 아버님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1시간 전 | 신고

moon****
 감사합니다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40분 전 | 신고

cand****
 댓글보고 가슴이 먹먹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어 훌륭한 승조원들이 최고의 경비함이 되도록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시 자제분이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항상 훌륭한 아버지님을 기억하시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 대한 민국의 건장한 청년이 되시길 기원하며 마음 속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시간 전 | 신고

ljwg****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청호 경사의 장녀입니다. 뉴스에 중국어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 칸이 먹먹해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이렇게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8분 전 | 신고

navy****
 먹먹하네요..자제분 그간 얼마나 힘들셨겠어요..아버지는..이청호 경사는..정말 멋있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일상에 지쳐 있고 지낼 때도 있지만 멋진 아버지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예요~~ 따님..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3분 전 | 신고

<이청호 함 진수식 당시 지원 양이 캡처해둔 선한 댓글>

해양경비함정본부 보유 함정 중 가장 큰 크
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찜질방도 있고 샤워실, 헬
스장도 있고.. 되게 신기했어요. 기름 급여
한번 없이 이어도에서 미국 LA까지 바로
간대요.

정말 멋진 함정이네요. 앞으로 계속.. 기억
에 남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기념
식을 하기 싫었어요. (‘이청호함’ 진수식은
2015년 3월에 개최되었다) 부끄럼을 타서
어디에 막 나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념식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어
요. 해양경찰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아빠,
아빠와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심 끝에 결심한 걸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안 갔었더라면, 정말 크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거든요.

터닝포인트요?

이전까지 저는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아빠가 했던 일(해양경찰)을 하지 않길 바
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법조업 관련 기사

가 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
러니까... 예정된 이별이 아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남아 있는 사
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그랬어요. 누가
다쳤다고 하면 엄청 걱정되고요. 더이상 그
누구도 이런 힘든 일 안 하길 바랐어요. 그
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막상 제주도에
가서 아빠 함(이청호 함)을 봤는데 너무 멋
있는 거예요(웃음). ‘대양의 해상안전에 이
바지한다’는 사명을 품은 함정이라는 설명
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
을 것 같은 배였어요. 누군가가 ‘아빠처럼
해양경찰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절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런 마
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 배를 보고 온 건,
정말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었어요. 게다가
사실 이번에 인턴 활동 마치고 한국으로 오
면 해양경찰 시험준비를 해볼 생각이네요.

좋은 계기가 됐다니 듣는 저도 기뻐요.

네,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날 기
념식에 함께해주셨던 대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요. 함정 안에 계셨던 분들께 너
무,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떤 분들이셨죠?

함정 안에서 저희 아빠 동기분들을 만났었어요. 옛날얘기, 아빠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가 많이 슬펐거든요. 아빠를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추억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보다 더 어렸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저한테 ‘많이 컸다, 잘 컸다고’ 하신 게 떠오르네요.

네. 지원 양은 당시에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아셨나요?

아빠 직업, 딱 그 정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시는.. 그런 상세한 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게, 아빠가 예전에 ‘단속할 때 필요한 거’라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아빠가 공부하시는 걸 구경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이후에는 해양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셨나요?

네.

해양경찰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까요?

음... 숨겨진 조력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찰이랑 해양경찰은 엄연히 다른 조직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경찰은 아는데 해양경찰은 잘 모르잖아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요.

‘숨겨진 조력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음.. 그거 어때요?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작년에 동해에서 구조활동 하시다가 순직하신 특공대원 두 분이 계셨는데, 기사로 보니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빠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고,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늘 아빠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고.

전해지면 좋겠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아바

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시겠어요?

아빠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웃음). 아빠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단 게 미안해요. 또, 다른 아빠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빠는 살아계셨을 때 주말에 꼭 저희랑 시간을 같이 보내셨거든요. 놀러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산 타는 걸 좋아하셔서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유명한 산은 무조건 가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웃음). “진짜 가기 싫다”고 하면 “우리 가족은 하나”라고 무조건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올라가고. 덕분에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아빠랑 함께한 추억들이 많다는 거. 사실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은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사진은 없을지라도, 저희에게는 아빠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런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예요(웃음). 감사합니다.

I 반드시 잡아야 한다

글_남해지방해양경찰청 창원해양경찰서 경감 이두창

*이 글은 지난 2008년 부산해양경찰서 3001함이 경비 임무 수행 중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린랜드 호 와 용의자 강왕도 등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의 이름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본명임을 먼저 알립니다.



“야호! 내일이면 입항이다. 설레는구만! 애들이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까만 밤바다 위 경비함정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인계인수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는 이미 집에 도착한 듯 들떠있습니다.

인계하는 당직 조는 이제 침실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잠자리에 들겠지만, 이 밤만 지나면 전용부두로 입항해 집에서의 달콤한 생활을 꿈꿀 것이고, 인수 조는 출동 마지막 밤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함정 기관실에서 아직은 입항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을 잠시 접어두고,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엔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조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일본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방지와 단속 검거, 국내 어선의 불법행위 감시,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2의 눈인 레이더를 응시하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해양경찰의 일상은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해상이라는 특수 여건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고,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긴급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생존의 끈이기에 해양경찰관의 1분 1초는 내 가족 같은 국민의 생과 사가 걸려 있다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흘러갑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하는 해경의 일상은 편안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하노라면 그 끊임없는 흔들림에 정신과 육체는 지쳐가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명약인 ‘입항’은, 즉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해양경찰관들만의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우현 30도 방향, 거리 500야드, 상선 한 척 본 함 선수에서 좌현에서 우현으로 이동 중!”
 썩썩한 의경의 견시(見視) 보고 소리가 조타실에 울려 퍼지면, 빈틈없는 경비임무를 위해 근무자들은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그렇게 어둠이라는 옷을 벗고 영롱한 태양을 받아들이는 아침이란 모습이 바다에도, 해양경찰의 함정에도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5월의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태양과 함께 온 바다를 비추고 입항의 설렘을 달래며 입항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조금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며 통신실을 지키고 있던 김준진 경장이 다급하게 전문 한 장을 들고 조타실로 뛰어옵니다.

“부함장님, 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전문입니다. 살인용의자가 부산항 3부두에서 아침 8시경 출항한 그린랜드 호 상선에 잠입하여 중국으로 밀출국하고 있다는 전문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셔야...”

김준진 경장의 전문을 받아든 부함장 김진규 경감의 얼굴에서 갑작스러운 임무 지시에 대

정의

한 당혹감이 묻어 나왔습니다.

“이게 또 뭘 일이야! 함장님께 보고할 테니 일단 그린랜드 호 위치를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전속 항해 하세요.”

김진규 부함장은 항해장인 박형규 경위에게 지시하고 함장에게 전화 보고를 한 뒤 다시 육상의 상황실로 무전하여 상세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침로 200도, 목표물 거리 10마일, 속력 최대 상승.”

항해장 박형규 경위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함장도 다급하게 조타실로 올라와서 부함장에게 말했습니다.

“찾아내서 잡을 수 있겠나?”

부함장 김진규 경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현재 파악된 그린랜드 호는 8,000톤급이라 선박 전체를 수색하여 용의자를 찾아서 검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목숨 걸고 몸을 숨겼을 텐데 우리 측도 상당한 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우~~~”

함장도 수색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듯 무거운 탄식을 뿔어냈습니다. 8,000톤급 상선은 대형 상선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크기가 상당하여 사람이 숨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다면 무제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은 해양종사자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항자 발생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40대의 강왕도라는 사람이 평소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후배 한태만과 같은 업종의 게임장을 각자 운영하게 되면서 서로 고소, 고발로 친분에 금이 가게 되자 강왕도가 한태만을 불러내어 이권 문제로 다

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칼로 수십 차례 한테만을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뒤, 체포를 피해서 부산항 3부두에서 그린랜드 호에 몰래 승선하여 중국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함정 내 모든 스피커를 통해 다급한 부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지금 현 시각 부산에서 상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항을 기도하는 살인 용의자를 색출 검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인 1조로 총 10개 조를 편성해서 수색할 예정이니 검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용의자의 돌발 행동에도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성공적인 검거 작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살인용의자 강왕도를 실은 그린랜드 호에 도착하기 전, 부함장을 비롯한 수색요원 21명은 수색장비를 지참하고 그린랜드 호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두창 경사, 나는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번 임무는 우리 해양경찰에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첩보를 입수해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가 최종 수색 임무를 맡게 되었다. 만약 검거에 실패한다면 우리 해양경찰에게 돌아오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용의자가 중국 땅을 밟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억울한 죽음은 누가 보상하겠나? 무조건 잡아야 하는데...” 부함장은 쉽지 않은 임무를 눈앞에 둔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임무수행을 지휘해야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의 명예도 걸려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 배에 살인용의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함장님, 꼭 범인이 이 배에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잘못된 첩보면 얼마나 좋겠나... 찾을 때 까지 마냥 배를 잡아두고 수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출 상품을 실은 배를 범의인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첩보만으로 무한정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첩보가 허위로 밝혀져 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경찰 쪽에 있게 될 수도

정의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 들어보니 용의자는 무려 수십 군데를 찢어 사람을 죽였단다. 절대 밀항은 성공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잡아야 한다.”

경비함정 3001함이 눈앞에 두고 있던 입항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였을까요? 그린랜드 호가 손을 내밀면 닿을 듯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린랜드, 그린랜드,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감도 있습니까?”

통신실 김준진 경장의 무전 응답 요구에 그린랜드 호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린랜드, 그린랜드,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감도 있습니까?”

계속되는 무전 요구에 마침내 그린랜드에서 응답을 해 왔습니다.

“그린랜드 호입니다. 해양경찰, 무슨 일입니까?”

“그린랜드,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잠시 채널을 변경하겠습니다. 채널 17번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검문검색에 응해 달라고 요청 한 후, 부함장을 포함한 검색대



원 21명은 함정에 탑재된 단정(보트)에 나누어 타고 그린랜드호에 승선을 시도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아침까지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항이 연기되는 것은 고사하고 부담스러운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수색대원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바다는 요동치고 있었고 선체를 스쳐 가는 바람도 매서웠습니다.



상선에서 내려준 줄사다리와 대원들을 태운 단정은 물려드는 파도로 인해 상선에 연신 부딪히며 종잇장처럼 흔들렸기에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5m는 족히 넘어 보이는 상선 갑판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평소 인명 구조를 위한 승선 훈련 덕에 모두 무사히 상선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조타실 장악입니다. 모든 행동이 선장이 지휘하는 조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함장과 저는 상선 측 일등 항해사의 안내를 받고 가장 먼저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조타실 안에 있던 상선 선장에게 검문검색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하자 그는 흔쾌히 협조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정의

저는 일등 항해사에게 전 선원을 식당에 모이도록 했고, 잠시 뒤 식당에 모인 선원들은 총 23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하는 선원도 있고, 금방 잠들었는데 깨운다고 불평하는 선원도 있었으며, 몇 명의 외국인 선원은 주위 분위기를 살피며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이렇게 모이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부산해양경찰서 3001함 소속 김진규 경감입니다. 여러분이 승선 중인 그린랜드 호에 살인 용의자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몰래 잠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우리 대원들이 검문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원 여러분들께서는 밀항자 검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살인용의자를 몰래 승선시켜 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자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신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 승선에 공모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자수 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에 살인범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선원이 식당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선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재직 시 외사계 근무로 국제성 범죄인 밀출국 및 알선책 검거에 경험이 있는 저는 수사계 근무 경험이 있는 최광명 경장과 한 조가 되어 선장실을 비롯한 선실 전체 수색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색대원들은 반드시 검거에 성공하겠다는 결의와 비장함이 느껴지는 얼굴로 나섰고 스펀지에 흡수되는 수분처럼 용의자가 은신할 만한 곳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최광명 경장.”

“예, 행님.”

“너는 수사계에도 근무해봐서 잘할 수 있지?”

“형님만 보고 잘 따라다니며 잘하겠습니다, 하하.”

“절대 다치지 말고 무리해서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 알았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쏠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선실을 수색하던 최광명 경장과 저는 5월의 따사로운 햇살로 뜨거워진 선내의 열기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고, 다른 대원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기관실을 수색하느라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상당히 힘들어했으며, 타오르는 목을 축이기 위해 식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다는 사실 잘 압니다. 전 대원들은 다소 힘이 들어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곳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수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경장은 대원들을 독려하며 수색을 지휘하였습니다.

선내 선실은 수십 개나 됩니다. 예전엔 해양에서 종사하는 일의 보수가 육상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2~3배는 많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바다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큰 상선에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빈방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실을 수색하던 나와 최광명 경장 조(組)는 수색 중에 다른 방과는 다르게 방안에 또 다른 출입문이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선내 안내 역할을 하던 그린랜드 호 이등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은 누구 방입니까?”

“아~ 예, 여긴 조리장 방입니다.”

“그럼 여기 문은 어디로 통합니까?”

“거기도 침실인데 선원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컹철컹 손잡이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방도 수색해야 하니까 문을 좀 열어주시죠.”

“거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조리장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위키토기로 부함장 김진규 경감을 불렀습니다.

“부함장님, 감도 있습니까?”

“이 경사, 무슨 일인가?”

“조리장을 자기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잠시 후 조리장 강대용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조리장님, 이 방이 조리장님 방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쪽 잠긴 문은 어디로 통하는 겁니까?”

“아 예, 그쪽도 방인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배에 올 때부터 잠겨져 있었습
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열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방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쓰지도 않는 방
이니 보실 필요도 없을 텐데요.”

“왜 사람이 없는 방 열쇠를 조리장이 갖고 있나요?”

“처음 이 배를 타러 오니까 여기가 내 방이라고 배정하면서 열쇠를 주는데 내 방 열쇠와 이
쪽 방 열쇠를 같이 줘서 받았는데요?”

“필요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니 먼저 문을 열어 보세요.”

조리장은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하며 미적미적하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용 군번 줄
에 매달려 있던 열쇠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조리장 강대용이 건넌 열쇠를 끼워보니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철컹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조리장을 다시 식당으로 돌려보내고 안내를 하던 이등 항해사를 문 앞에 있게 하고 최광명 경장과 함께 방에 들어섰습니다. 언뜻 보기엔 여느 방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세면장에도 사람이 사용한 별다른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곳곳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사용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온갖 잡동사니와 매캐한 냄새, 자욱한 먼지만이 주인을 대신하여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을 수색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살펴야 합니다. 선령이 오래된 상선들은 침대 밑에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과거 울산해양경찰서 재직 시 외사계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윤성기 경정과 외사계장으로 같이 근무하던 시절, 울산항 3부두의 2,000톤급 상선에서 밀항자를 침대 밑에 숨겨준 선원과 밀항자를 함께 검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전문적인 업무를 보고 배운 터라 노하우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한쪽 끝 합판을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목직한 것이 혼자 전체를 들어 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최경장에게 살짝 들어 올려진 합판 모서리를 잡게 하고 머리를 넣어 합판 밑 공간을 플래시로 비추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옷가지가 한데 뭉쳐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합판을 다시 닫으려는 순간 스며든 빛 사이로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합판을 내려놓으며 침대 밑을 가리키고는 사람이 있다는 손짓 신호를 최경장에게 보내자 최경장은 잘 알았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추격도 끝이 나고 이제 검거의 순간이 눈앞으로 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밀항자가 아니고서는 침대 밑 그런 공간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강왕도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구석 쪽에 밀착하여 옷가지와 헝겊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가지와 헝겊 뭉치로 착각하게끔 하고는 은밀히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 막히는 추격전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나와 최광명 경장은 침대

합판 양쪽을 잡고 서로 용의자의 돌발행동에 잘 대응하자는 응원의 눈빛을 교환하고 나서 동시에 합판을 들었습니다.

“강왕도! 나와!”

강력범 대응에 있어 기선제압은 필수입니다. 범죄용의자들은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때도 있지만 완강한 저항으로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강왕도가 최광명 경장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체포를 피하고자 하는 마지막 발악인 셈이지요. 다행히 빗겨 맞은 최경장은 강왕도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강왕도를 덮쳐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왕도! 현 시간부로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인 강왕도는 더 이상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반항할 것으로 예상했던 강왕도는 그렇게 체포되었습니다. 뒤로 수갑이 채워진 강왕도는 고개를 꼭 숙였습니다. 그런데 강왕도는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부터 왼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왕도에게 주먹을 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자해를 하기 위한 물건이거나 경찰관을 공격하기 위한 흉기를 쥐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래경찰서 측의 제보에 의하면 강왕도는 검거되기보다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기에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먹을 펴 보세요, 빨리!”

펼쳐진 주먹 속에는 예상과는 달리 구겨진 컬러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세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고 모두가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요?”

“제 가족입니다.”

용의자는 그 칙흑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취가며 사진 속의 가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반장님, 제가 그 사진 한 장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눈시울이 붉어진 강왕도의 부탁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참 동안 못 볼지도 모를 가족들이니까...”

저는 그 사진을 그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부함장님 감도 있습니까?”

“아, 이두창 경사. 무슨 일이라도 있나?”

“강왕도 검거했습니다.”

“야아~ 진짜가? 확실하나? 맞나? 고생했다! 위치가 어디냐? 지원 조 보낼 테니까.”

“조리장 침실입니다.”

부함장은 몇 번이고 체포 사실을 물어 확인했고, 무전을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엔 안도감이 가득한 듯했습니다.

체포한 강왕도를 선원 식당 옆 휴게실로 인치하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한 뒤 부함장과 최 경장, 그리고 저는 위해물을 따로 몸속에 숨겨 두었을지도 모를 것에 대비하여 강왕도의 몸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강왕도 몸에서는 자살 기도용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화 약 500만 원에 상당하는 중국 돈 위안화와 가족사진 20여 장이 나왔습니다. 강왕도는 체포의 두려움 때문인지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앞으로 다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 한잔을 건네니 그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강왕도 씨, 몇 가지 질문할 테니 솔직히 대답하세요.”

“예.”

“누구랑 공모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절대로 혼자서는 이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몰래 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강왕도는 자신이 혼자 계획하고 몰래 배에 숨어들었다고 하지만 밀항하면서 혼자 상선에 들어와 은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임을 저는 그동안 수사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탔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접해 본 경험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모한 사람을 빨리 말하고 같이 선처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빨리 공모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세요 강왕도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갈등하던 강왕도가 공모자를 실토했습니다.

“반장님, 조리장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내가 돈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조리장은 정말 잘못 없습니다. 밀항하는 동안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중국까지만 갈 수 있도록 태워만 달라고 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강왕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범죄를 공모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인간의 최소한의 의리를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대기 중인 공수호 순경을 불러 최광명 경장과 같이 강왕도를 감시하게 하고 저는 부합장에게 강왕도와 조리장의 공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부합장에게 보고를 마치고 다시 강왕도가 인치된 식당 옆 휴게실로 돌아온 저는 강왕도가 소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세 여자아이와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강왕도 씨, 아이들과 아내입니까?”

“예, 맞습니다.”

“딸아이들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큰애가 열 살, 둘째가 일곱 살, 막내가 네 살입니다.”

“강왕도 씨.. 당신 혼자 이렇게 떠나면 남은 가족은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중국에 가서 공소시효만 지나면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참 어리

석었습니다. 찢값을 달게 받아야 했는데...”

강왕도는 중국으로 밀항한 하면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도 잊고 다 잘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시간 따위가 문제 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한 처벌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장님, 제가 진짜 미쳤던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줄 꿈에서도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이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애기들 예쁘지요? 그런데 애비란 놈이 이제 이 꼴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미치게 보고 싶네요. 우리 큰애는 학교에서 친구도 잘 사귀고 공부도 잘하고, 둘째는 어린지만 동생 보살피며 고사리손으로 엄마 일도 잘 돕고,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정말 예쁩니다.”

강왕도는 자신이 살인범이란 사실을 잠시 잊은 듯, 여느 아버지들처럼 자신의 딸 자랑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람을 수십 군데나 찢러 죽인 살인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본인의 가정에서는 한 여자의 든직한 남편이자 세 아이의 따뜻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세 딸아이의 재롱 속에 파묻혀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는 살인의 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후회가 역력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이마에 갖다 대고는 죽은 듯이 앉아 있던 그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후배에게도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뺨뺨해진 강왕도의 입술을 보고 다시 시원한 물 한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한편, 밀항을 공모한 조리장 역시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다른 방에 인치되었습니다. 그는

정의

넋 나간 사람처럼 어딘지를 알 수 없는 한 곳만을 응시한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미동이 없었습니다.

“강왕도 씨가 미안하다고 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그런 거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전해 주이소.”

강왕도와 조리장 박규만은 최소한 서로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최광명 경장이 강왕도를 검거할 때 그의 주먹에 빗겨 맞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최경장, 얼굴 좀 보자. 괜찮아?”

최경장의 눈 주변이 벌겍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까짓 거, 빨간약 좀 발라 놓으면 끄떡없습니다. 근데 아까 쏘매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계시니까 실력이 절로 나오데요. 해해.”

최광명 경장은 완벽히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을 내보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작전을 종료하고 함정으로 복귀할 테니 단정 탑승 위치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밀항을 시도한 살인범과 공모자를 검거하여 함정으로 압송하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으로 보낸 뒤, 그렇게 기다리던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입항하였습니다.

전용부두에는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 형사들과 부산 동래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살인범과 밀항공모자를 형사들에게 인계했습니다.

김진규 부함장과 저는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임무는 잘 해결되었지만, 저 사람의 가족들은 딱하기도... 예구 산다는 것이 뭔지...”

부함장은 그렇게 중얼거리고서 배로 들어갔지만 저는 쉽게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걸어가던 강왕도가 갑자기 뒤로 몸을 돌려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더니 이내 허리를 깊게 숙여 나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내게 주는 마지막 답례였을까요?

당시의 출동은 나에게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진 임무였습니다. 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보람도 있었지만 검거된 강왕도가 보여준 두 개의 모습,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의 모습과 아내와 딸아이의 사진을 보며 보고픔에 눈물을 흘리며 사진에 얼굴을 파묻던 아버지의 모습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그의 본모습인지 풀어보라는 힘든 숙제를 받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모순덩어리이고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법 또는 관습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후회만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완전 범죄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최후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저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죄값을 마땅히 치르고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죄는 미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만한 가치가 넘치는 곳이니깐요.

그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직접 검거했던 저는 그 후 경감 계급으로 진급하여 지금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정장으로서 해양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 폭풍 속 사투 24시간

글_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특수구난 1호정 경위 황성준

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특수구난 1호정 정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위 황성준이다. 1992년 12월 26일 해양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최일선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솔한 희로애락을 느껴왔다. 그중 지난 2004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2004년 10월, 나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250톤(253함)에서 안전 부팀장 및 검문검색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에는 서해5도 및 NLL 선을 넘어 한국 영해 내측까지 중국어선들이 침범하여 어획물을 싹쓸이하는 불법조업이 만연할 때였다. 불법 중국어선들과의 사투를 벌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 한국 함정이 외해에서 우리 영토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면 연안으로 압송하게 되는데, 나눠진 경비구역에 따라 호송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04년 10월 2일 오전 9시경 인천해경 전용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1시경 경비구역 도착, 해상경비 활동 중 상황실로부터 3000톤급 함정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을 백아도 항계 내까지 호송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시를 받고 약 두 시간을 이동하여 중국어선 1척을 인수받고 호송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호송 시에는 호송 요원 3명이 중국어선에 승선하여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당시 어선의 속력은 약 8노트로 백아도까지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호송 요원은 장시간 한국에서 호송임무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기상이 좋을 때는 다른 요원과 임무를 교대하여 호송하기도 한다. 기상이 나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7시경 별 탈 없이 인계 해점에 도착한 우리는 100톤급 함정에 중국어선 1척을 인계하고 복

귀차 경비구역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 아침엔 이른 시간부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함정 승조원들은 그만큼 긴장하게 된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상황실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1000톤급 경비함정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는데 기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호송임무 수행을 하라는 지시였다. 함장은 임무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당시 내 생각은 달랐다. 해양과 관련된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선박을 승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의 특성에 관해 많이 알고 있었던 나는 기상이 급격히 나빠지면 승조원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장 지시에 따라 대청도 남단 3마일 해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소요시간은 약 6시간이 걸렸다.

오후 4시경 대청도 하단 3마일 해상에 도착할 즈음 1002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옆에는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이 계류되어 있었다. 1002함에 ‘중국어선 인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무



전을 보냈으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조사가 지연되어 한참을 대기해야 했고 기상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호송이 시작될 즈음에는 기다렸던 듯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만 같은 험악한 날씨였다. 점차 어둠이 다가와 어느덧 저녁 7시가 되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호송 임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만 같았다. 그때 1002함으로부터 약 10분 후 조사가 끝날 것 같다는 무전을 받았다. 즉시 호송 준비에 들어간 우리 함은 호송조를 3명씩 2개 조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나는 1조를 책임지게 되었다. 잠시 후 1002함 단정이 우리 함 우측으로 계류했고, 우리 함 호송조 6명이 1002함 단정에 몸을 실었다. 단정은 1002함에 계류된 중국어선 쪽으로 이동했고 중국어선에 계류 후 증거물품 및 조사 서류 등을 인수 후 훗줄을 걸었다. 선미도까지 호송 임무가 수행되었으며 그때 시간은 이미 오후 8시경이었다. 중국어선은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천천히 항해를 시작했고 선미도 도착 예정시간은 다음날 새벽 4시였다. 우리 함은 중국어선 앞에서 무전기와 가용장비를 이용하여 호송조와 소통하면서 안전 항해를 유도했다.



아니다를까, 기상이 점차 악화되더니 우리가 대청도 하단인 C 구역을 항해할 때쯤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었다. 바짝 긴장한 나는 호송조 1조 조장으로서는, 같이 승선한 직원 및 의경 대원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이 악화되면서 중국어선은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밖을 내다보니 우리가 탄 중국어선은 산 같은 너울(4-5m) 위를 넘으면서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었다.

약 2시간 후 신임 순경과 의경대원의 상태를 확인하니 한창 멀미와 전쟁 중이었으며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다. 호송대원들에게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했었지만 이미 두 명의 대원은 지독한 멀미에 괴로워했다. 나도 외항 상선을 타면서 태풍을 두 번 정도 만나봤지만, 인천해양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이번처럼 기상이 좋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특히, 소형어선을 타고 4-5m 파고를 넘어 항해를 한다니...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 할 것이다. 높은 파도는 어선 선수를 세차게 때리며 밀려오고 바닷바람은 그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호송조 2명은 멀미로 정신없었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잘 도착해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항해에 집중하였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악천후의 영향으로 중국어선 계선기에 묶여 있던 줄이 풀려 조타실 우측 창문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조타실 창문이 파손될 것 같아 줄을 다시 잡아매기 위해 울렁거리는 갑판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의경대원에게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도록 교육 후 조타실 문을 열고 선수 방향에서 계선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천천히 전진하여 계선기 고정 줄을 단단히 묶고 돌아왔다. 날씨는 더욱 악화되고 체력은 점차 고갈되어갔다.

새벽 4시가 되었다. 선미도를 약 5마일 남겨 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중국어선 스크류에 어망 감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낭장망 어구(멸치를 잡기 위한 그물 같은 형태의 어구)

가 많은 해역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다 전반에 깔려 있는 그것들을 모조리 피해서 항해하는 건 무리였다. 중국어선 엔진은 자동으로 정지되었고 예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급히 사고내용을 본 함에 알렸고 예인 요청을 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예인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본 함에서 넘겨주는 예인줄을 어떻게 받을까, 넘실거리는 파도에 의경요원들이 혹여나 실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새 이미 본 함이 예인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히빙라인을 예인줄에 묶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선 선미 부분에서 예인줄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본 함은 파도가 너무 높아 중국어선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보였다. 높은 파도로 인해 본 함의 선수와 선미가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했다.

드디어 중국어선과의 거리는 약 10m 정도로 가까워졌다. 본 함으로부터 히빙라인이 날아왔고 정확히 중국어선 선미에 떨어졌다. 재빨리 줄을 끌어당겨 신속하게 중국어선 선수 쪽으로 가져가 즉시 예인색을 끌어올린 뒤 선수 비트에 고리를 걸었다. 본 함은 예인 준비 완료 신호와 함께 천천히 속력을 올렸고, 그렇게 예인이 시작되었다.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우리는 어선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며 선미도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서서히 날이 밝아 오전 7시가 되었다. 드디어 100톤급 경비함정에 호송 임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미도 근해에서 중국어선 인수차 기다리고 있던 100톤급 경비함정이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아 덕적으로 피항했다는 소식을 상황실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인천항까지 계속해서 호송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중국어선을 인수받고 11시간째 호송임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항해를 이어가야만 했다.

이왕 시작한 임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대원들을 격려하며 재차 항해를 계속 나갔다. 기상이 너무 나빠 다른 호송조와 교대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아침 8시부터 인천 항계 내 시정주의보가 발효되어(짙은 안개)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얀 해무밖에 없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 속력으로 항해를 이어나가던 중 오전 8시 30분경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선수에 걸려 있던 예인줄이 악천후에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건만, 예인하고 있던 253함은 해무 때문인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를 하는 것이다. 중국어선을 저대로 두면 세찬 비바람과 거센 조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급한 마음에 무전을 이용하여 이 긴급한 상황을 전파했다. 우리의 무전을 들은 본 함에서는 레이더로 중국어선을 확인했으나 짙은 해무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나는 중국어선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크게 신호음을 내보내 우리 위치를 알리고 본 함을 유도하였다. 이윽고 본 함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고 재차 예인줄이 넘어왔다. 재빨리 선수부에 예인줄을 걸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예인이 시작되었다.

오전 11시. 드디어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무사히 도착했다.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외 사계로 넘겨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나는 가장 먼저, 안전사고 없이 일을 잘 마무리한 우리 호송요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해양경찰의 자부심 하나로 폭풍 속에서 24시간을 함께했던 당시 동료들을 회상하며 본 이야기를 마칠까 한다. 후임 경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해양경찰관으로 임명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명예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전국의 해양경찰관들... 화이팅!

| 출항 15분 전! 오늘도 출동이다

글_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501함 경장 김홍석

출항 15분 전!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경비
해역으로 출항하기 위해 일상불란하게 출
항준비를 한다. 그렇다, 오늘도 출동이다.

늘 항해하는 경비구역이지만 오늘은 유
난히도 바다가 거칠다. 거친 바다로 인해
우리 경비함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4박 5
일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나와야 했던 나의 마음을 바다가 대
신 표현해 주는 것일까? 우리는 한 달에
보름 정도 가족들과 잠시 이별을 겪는다.
적응하자! 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501
함 승조원이다. 그렇다. 우리의 임무는 북



한과 인접한 서해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 섬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영해 경비 및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것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각종 사건을 다루는 우리의 작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항상 긴장 속에서 시작된다.

그때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남하하여 조업하는 것이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함 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및 퇴거 예정, 해상특수기동대 출동준

비.” 조타실과 상황실 직원들은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속단정으로 맹렬한 추격이 시작되었다. 불법 외국어선은 우리의 행동사항을 알아차렸는지 최대속도로 NLL을 향해 복상하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의 작전반경은 NLL 이남까지로, 도주하는 불법 어선을 추적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다. 한순간의 실수와 선택으로 인해 다시 돌아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며 사랑하는 아내도 다신 볼 수 없기에 작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선원들은 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치고 빠지기식(게릴라식)’으로 불법조업을 진행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작전은 마치 ‘통과 제리’처럼 쫓고 쫓기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지구 끝까지 미친 듯이 쫓아가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야속할 뿐이다.

18년 10월 11일, 어획물 운반선이 항해 중 블레이드(추진기 날개)에 어망이 감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구조요청을 해왔다. 잠수를 하여 블레이드에 걸린 어망을 제거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해양경찰에 입사하기 전, 해군 해난구조대에서 5년간 군 복무하며 구조작전 경험이 많았던 나는 이런 임무에 익숙했다. 군 시절 이러한 임무들을 위해 훈련을 받았었고, 전복선박 인양, 실종자 수색, 유실물 탐색, 선저검사 등 실제로 유사 사건 구조에 참여했었기에 자신 있었다.



그렇게 어획물 운반선 블레이드 어망제거 임무가 시작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작업 중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업 도중 나의 몸은 어느새 조류로 인해 슈퍼맨이 되어가고 있었고 한 손에 쥐고 있는 칼조차 놓칠 것만 같았다. 변수로 인해 어망제거 작업이 힘들었지만 군 생활에서 경험했었던 다사다난한 일들이 내게 도움이 된 걸까? 마침내 어획물 운반선에 걸린 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어망이 제거된 어획물 운반선이 다시 힘차게 목적지를 향하여 기동하는 동시에 VHF로 선장님의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짜릿하고 감사했던지 물속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순간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도움을 받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고.



19년 8월 2일 오후 5시경,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사이렌과 동시에 출동지령서가 내려왔다. 응급환자 후송업무였다. 연평도에서 뇌출혈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서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육지와 다르게 닥터헬기 또는 경비함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한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 및 응급처치가 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나는 우리 경비함에서 위생사 업무를 도맡고 있는데 뇌출혈 의심 환자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

치를 해야 하나 당혹스러웠다. 걱정하던 중, 어느새 경비함은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환자를 인계받아 후송하며 상태를 살폈다. 혈압 및 맥박, 의식장애나 언어장애, 두통을 동반하는지 등을 체크했다. 다행히도 의식이 명료하였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후송업무를 완수하였다.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육지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다는 잔잔하며 그 모습이 일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거친 모습을 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해상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구조임무 중이나 단속임무 중이던 우리 직원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방영될 때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친구들은 늘 나를 걱정한다. 그들은 출동 중인 나의 안부를 확인하고, 나는 늘 답하곤 한다. “걱정 하지 마, 괜찮아. 별일 없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나 또한 바다에 나가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이 걱정되기 일쑤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의 숙명인 것을.’ 하고 말이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한다. 그런 우리의 이름은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자 미래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도 출항 15분 전이다. 오늘도 나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출동한다.

숨 가쁜 작전현장, 당신이 보고 말한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 순경 서승환

<어둠, 쇠창살, 펜스,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희미한 불빛 사이로 날카로우면서도 또렷한 음성이 울려 퍼진다. “현 시각 새벽 4시 25분! 선명 미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추정 선박 검문검색차 No.2 단정 고속기동 중!” 고속단정은 맹렬한 기세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표적을 찾아 어둠 속을 질주한다. 잠시 후,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리는 서치라이트 불빛을 따라



삼지창 형태의 날카롭고 뾰족한 쇠창살이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No.1 단정, 정선명령 지속 불응코 도주 중인 중국어선 우현에 계류하여 등선 시도 중, 높은 철제펜스와 현 측에 설치된 쇠창살로 인해 등선 어려운 상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 웬지 오늘 새벽엔 한바탕 사투를 벌일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눈앞에 맞닥뜨린 상대는 작심한 듯 선박에 각종 등선장애물과 흥기를 설치한 채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중인 범죄 혐의 선박이다. 캄캄한 야간에 다소 거친 파도, 각종 등선장애물까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해

양주권수호, 해상치안 유지, 경찰력 행사를 위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등선하여 나포에 성공해야만 한다.

잠시 후, 우리 특수기동대 검색요원이 철제펜스를 타고 그 위로 넘어가는데 기어이 성공했다. “현 시각 4시 32분, No.1 단정 검색요원 1명 등선완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No.1 검색요원들이 철제펜스 일부를 제거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 틈새로 줄줄이 등선에 성공했다. 다음은 No.2 단정 검색요원 등선 차례다. 계류를 위해 중국어선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뚝! 펙! 짜~익!” 하는 등의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며 미처 제거되지 않은 쇠창살이 단정 곳곳을 찌르고 깊숙이 꽃힌다. 단정은 크게 손상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 찰나의 혼란을 뒤로하고 No.2 단정 검색요원들도 등선에 성공한다. 이제는 조타실 개방이다. 마음 단단히 먹자. 오늘은 웬지..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1시간 넘게 지속된 여명 무렵의 사투>

“현 시각 새벽 5시 35분, 불법조업 혐의 선박 등선 1시간 경과, 선장 조타실 폐쇄코 저항 중에 있음.”

벌써 등선한 지 1시간도 더 지났다. 등선 후 배기구 차단, 메탈 원형 톱 이용 조타실 외부철문 절단, 최루탄 및 섬광폭음탄 투척, 기관실 진입 후 엔진 정지 시도 등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 중이지만 선장이 도무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 조타실 내부에 가득 찬 최루탄 가스를 흡입하고도 계속 버티는 것을 보면 여간 독한 내기가 아니다. 통역요원들의 설득과 회유조차 전혀 통하지 않고, 심지어 메탈 원형 톱을 사용하는 우리 특수기동대요원을 ‘멍키 스페너’ 같은 흥기로 공격한다.

점점 길어지는 작전 시간에 대원들의 온몸은 땀범벅,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발걸음이 무겁다. 부러진 아자 봉과 4단 봉, 완전히 마모되어버린 톱날, 배터리 부족으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고프로 카메라…。 이미 어두컴컴한 밤은 모두 물러나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도 오고 있건만. 사람과 장비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이상 절대 포기란 없다! 쇠창살과 철조망을 뚫고 조타실 외부출입문까지 뚫었다. 등선 후 무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젠 끝을 내야 한다.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뎌본다.

바로 그때, 배의 속력이 감소하는 게 느껴지며 본능적으로, “아 됐다!”라는 묘한 승리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선미에서 일부 선원이 우리 검색요원들에게 진압되어 선수로 이동한다. 조타실 전면부 진압 요원들은 마지막 힘을 내어 조타실 창문에 설치된 방호창살을 파괴하고 드디어 조타실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7월 9일 새벽 5시 50분, 불법조업 혐의 선박 조타실 내부 진입완료, 선장 및 선원 제압완료!”

등선 후 무려 1시간 20분, 특기대 요원 집합 2시간 만에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정말 쉽지 않은 작전이었다. 통상적으로 단정을 내려서 타겟까지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15분, 등선 가능 여부 판단 후 가능 시에는 등선하여 15~20분 안에 조타실 개방이 완료되고 선장을 체포한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경우 새벽 4시 20분에 단정 하강하여 4시 32분 등선, 5시 50분에 조타실 개방 및 선장 제압이 이루어져 무려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평상시 작전에 비해 3배의 시간이 걸린 데다 인간의 집중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새벽

여명 시간대에 파고 1.5m로 여러모로 좋은 여건은 아니었다. 만약, 대원들이 기관실에 진입하여 엔진 정지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대로 중국연안까지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포작전은 별다른 인명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날의 사투는 결과보고 전문으로 3~4장, 뉴스 보도는 1~2분 정도로 압축되었지만, 그 배후에 담긴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및 고충은 요약된 글과 영상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사다난했다. 특히, 나는 3005함 해상특수기동대 ‘채증 전담요원’으로서 다른 대원들에 비해 배 이곳저곳을 돌며 작전의 어려움과 대원들의 사투를 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했기에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뜨거워진다.

<3005함 채증요원으로서의 책임감>

3005함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의 대형함정으로 124도 부근 ‘특정해역’과 ‘특정금지구역’에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동·서·남해로 출입하는 외국어선들의 종류 및 형태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우리 함이 경비하는 구역의 단속 대상이 되는 외국선박은 70~80톤급 이상의 쌍타망 철선 어선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현 측에 ‘쇠창살’, ‘철제펜스’, ‘봄대 와이어’ 등 각종 등선장 애물로 중무장을 한 ‘무허가 어선’들이 많다. 조업일지 허위 기재, 망목규정 위반 같은 꼼수 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불법조업 목적으로 작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폭력저항도 심한 편이다.

안타깝게도 2011년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 2016년 ‘고속단정 침몰사건’ 등 불법조업 어선의 폭력성이 극에 달해 비극을 맞이했던 굵직한 사건들 모두 내가 근무하는 3005함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중에서도 ‘채증 전담요원’의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부담감이 컸다. 어쩌면 내가 촬영하는 영상이 내 동료의 비극을 담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담감도 잠시, 신임순경의 패기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마인드로 나 자신을 다잡고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은 수사 시작부터 재판 보고 가야 한다>

수험생 시절, 형사소송법 강사에게서 꽤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경찰은 수사 시작부터 재판 보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했다. 재판에서 판사는 각종 범죄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양형 결정을 내린다. ‘증거’는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범인 및 증거 발견, 수집, 보존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수사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그 재판은 시작 전부터 이미 망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사법처리과정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매사 신중하고 정확하게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 보존하라는 것을 그 강사는 강조했던 것이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했기에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잊고 지냈었다. 그러다 임용 후 3005함에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해상특수기동대 검색요원 및 No.2 고속단정 채증 전담요원의 중책을 맡게 되며 다시금 그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들, 기존의 채증 영상들 시청, 함 자체 숙달훈련을 통해 채증요원으로 서의 ‘Identity’를 다질수록 그 명언이 몸에 체득되도록 힘썼고 되새길수록 그 강사의 말이 정말 ‘명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채증이란 무엇인가?>

‘채증’이란 사전 단어풀이 그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죄형 법정주의’, ‘증거주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 모든 것은 ‘증거로 말한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증거수집을 담당한다. 어찌 보면 재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중대하다.

해양경찰 역시 최일선 현장의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서특단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범법행위가 주요 수사의 대상이 된다. 불법어선 나포작전 시 채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조타실, 윈브릿지 등 ‘본 함’에서 이루어지는 R/D화면 및 고화질 카메라를 통한 채증. 둘째, 각 고속단정별 ‘채증 전담요원’에 의한 채증. 셋째, 해상특수기동대원 개개인별 가슴에 부착된 고프로 카메라 채증. 작전 개시 전 1차 채증, 그리고 나포 완료 후 조타실에서 선장과 선원을 수사 대상으로 본 함에서의 2차 채증. 그리고 실제 단정을 하강하여 불법조업 선박에 접근, 등선, 진압 등 작전현장에서 각종 범죄행위, 진압상황, 범칙물 및 흉기 등을 촬영하는 것은 두 번째·세 번째 채증의 몫이다.

나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채증 전담요원’으로서 현장에서 다른 대원에 비해 조타실, 선수, 선미, 기관실 등 상대적으로 활동반경이 넓다. 범죄의 증거, 진압요원들의 각종 노력과 고충, 선박 내부의 구조 등 카메라 화면에 담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실제 현장에서 진압대원들은 등선장애물 제거, 진압 장비 사용, 조타실 개방, 선원들과의 몸싸움 등으로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할 여유가 없다. 그러다 나중에 경찰관 및 선원 상해, 추락 및 입수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 없이 고프로 영상 화면만 보면 대원 개인의 과실 또는 책임으로 결정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삼자가 설명을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멘트를 넣는 것이 채증 전담요원의 주요한 몫이다. 사실, 채증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자료(정선명령 상황 채증, 등선 전후 GPS 플로터 채증 등)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채증에 대한 지식보다는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쌓인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려 한다.

<제삼자도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상특기대요원 및 채증 전담요원으로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초반에는 실패도 했지만, 나중엔 노하우가 쌓이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된 형소법 강사의 명언 외에도 내 나름의 ‘채증 철칙’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 없었던 제삼자가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현장의 긴박함을 느끼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자”는 것이다.

작전현장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촬영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그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 확정을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며 작전 직후에도 매우 중요한 1차적 역할을 한다. 작전 시 단정탐승 검색요원 18명, 조타실 채증요원 2~3명 등 20명이 넘는 인원이 고프로 또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으로 각자 채증을 실시한다. 그러나 외사계에 신속히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영상을 모두 다 보낼 수 없고, 그중 채증상태가 양호한 4~5명의 영상만 추려서 보낸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현장에서 각종 범죄 증거를 촬영함과 동시에 위반 관련 법령 명시 및 구체적인 범죄 상황 서술, 작전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충 및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일정한 ‘멘트’를 곁들이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렇게 하면 영상을 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찾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범죄를 입증할 자료 중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다른 요원들의 채증자료에서 발췌하여 보충하거나 교차검증을 통해 편집하여 제출하면 된다.

2차적으로는 ‘함 자체 사후강평’ 및 ‘채증 교육자료’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우리 함의 경우 나포 및 퇴거 작전 시에 개인별 역할분담이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모함에 남아 임무를 수행한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등선의 어려움, 각종 위협적인 돌발상황,

진압 장비 사용)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전 종료 후 세부적인 상황 설명이 녹음된 영상자료로 ‘사후강평’을 했을 때 당시 긴박했던 작전현장의 긴장감과 현장감을 직접 겪은 것과 같이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생생히 체험하고 현장 상황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이를 통해 함 내 해상특기대 요원과 比 요원 간 ‘상호 이해도 및 팀워크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고, 예비 채증요원들에 대한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목표와 동료들에 대한 감사>

해양경찰로 임용된 후 1년 2개월, 해상특수기동대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현재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며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현재 함정에서 언제까지 근무할지, 추후에도 ‘채증 전담요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첫째, 내 소중한 동료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불편하거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상황증거 제시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우리 해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양범죄에 대해 범죄인을 사법처리하여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글로 표현하긴 쉽지만 실제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바다와 사람, 외로움을 견디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분투하는 함정 요원들, 육상과 해상 양쪽을 오가며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는 파출소와 구조대 요원들, 마지막으로 사무실과 상황실, VTS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모든 해양경찰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I 왜 나를 뽑았나요?

글_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1001함 순경 이연지



나는 1급 응급구조사로서 해양경찰 구급직별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의아했다. 내가 대학생 때 교수님으로서 강의하신 분도 필기 시험자 명단에 있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인데, 합격했을 당시에 큰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교육을 마치고 첫 정식 임용을 받아 함정으로 발령이 났다. 항상 해양경찰이 되면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기에 눈앞에 놓인 높은 파도와 각종 처음 보는 기계, 공구들을 보았을 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처음 함정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비켜”와 “나와”였다. 모든 게 어색했고, 함정이란 공간을 처음 접해보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나를 어딜 가나 인정받고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던 나였는데 난생처음 들어보는 “빠루”라는 단어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아져선 “빠루”가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어색하기만 하던 시간이 지나며 나는 자연스레 해양경찰이란 직업에 대해 이해하

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전문성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해양경찰의 업무 중 ‘일부분’이었고, 우리는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줄 알아야 했다. 해군 출신의 동료직원은 항상 침착하고 레이더에 관해 잘 알았고, 통신특채로 입사한 동기는 누구보다 통신기를 잘 다뤘다. 중국어 특채 직원은 내가 열심히 중국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절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좋은 발음을 가졌다. 그에 비해 나는 열심히 해보겠다곤 하지만 항상 어딘가 부족하다 느껴졌다. 응급환자를 다루는 일보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함정을 정비하는 일이 훨씬 잦았기 때문이다. 합격 당시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왜 나를 뽑았나요?’

함정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 특기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면 쓸모없다고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실수는 늘어갔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거듭하며 눈을 질끈 감곤 하던 어느 날, 경직된 목소리의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어선 선원 손목 절단 환자 발생. 순경 이연지 조타실 보고.”

정식 발령을 받고 8개월 만의 환자였다. 급히 조타실로 올라가기 직전, 그 찰나에 신고 갈 신발을 고민했다. 항상 신던 검정 운동화와 발령 시 특임 직별에게 지급된 안전화를 앞에 두고 1초의 고민 후 안전화를 신고 조타실로 올라갔다.

조타실에 도착하니 교신하고 있는 중국어 특채 동기가 보였다. 듣자하니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났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중 환자의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우리에게 VHF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한 상황이었다. 조타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 나는 왜소한 체격이다. 얼굴 또한 동글동글하게 생겨선 사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외모라고 생각해도 좋

았다. 그래서 일부러 더 당당하고 침착하게 지금 필요한 일을 간단히 설명했고, 의무실로 내려갔다. 도착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하고 들고 갈 수 있는 장비들을 챙겼다. 동료 직원에게 간단한 보조를 부탁하고 함께 단정에 올라탔다. 단정이 내려갈 때, 구조팀장님께서 ‘모든 상황은 네가 판단하고 우리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항상 주눅이 들어있던 내게 모든 판단을 믿고 맡겨주신 팀장님의 목소리는 정말 듣직했고, 또 감사했다. 나는 응급처치에는 능통하지만, 어선에서 단정으로 또 단정에서 함정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은 미숙했는데, 구조팀장님과 안전팀장님의 지원으로 걱정을 한결 덜었다. ‘최대한 맞춰주겠다’는 약속대로 많은 직원들이 내가 응급처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힘써주신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 중국어선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환자가 직원 침실 문 옆에 축 처져 앉아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라도 상황이 나빠 보였고 환자는 이미 의식이 온전하지 못했다. 왼팔을 보니 손목이 아니라 전완부터 상완까지 다발성 골절 및 압괴손상, 부분절단으로 출혈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대량실혈을 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했다. 중국어선은 위생상태도 좋지 않고 공간이 좁아 모든 장비를 현장으로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본 함의 의무실로 환자를 옮겨야 했다. 환자의 의복 왼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보조를 요청했던 동료직원에게 왼팔 지지를 부탁했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부분절단이 있어 근육과 힘줄, 혈관들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러한 손상을 많이 봐왔지만 동료 직원은 처음이었을 텐데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내가 주문하는 대로 보조를 해주었다.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실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랑 나 혼자였기에 걱정이 컸다. 병원 응급실에선 오늘 같은 환자가 실려 온다면 최소한 4~6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 응급처치할 것이고 구급대 같은 경우에도 응급구조사가 3명 이상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걱정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열심히 보조해주는 직원

들 덕분에 차근차근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의복을 제거하고 흐르는 살점을 모아 간단히 세척했고 습윤 드레싱과 부목 고정을 한 환자를 단정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올링이는 파도 위, 목선과 단정의 높이 차이는 앞으로 가야 할 이송 거리만큼이나 멀어져갔다. 단정의 선수 부분을 최대한 붙이고 파도의 타이밍을 읽으며 환자를 옮겼다. 환자를 1분이라도 빨리 이송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선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환자를 옮기는 것보다 옮기다가 손상부의 고정이 풀려 출혈이 더 커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단정에서 본 함으로 이동하면서 또 한가지 선택의 갈래에 서게 되었다. 환자를 레스큐존에서 올릴 것인가? 크레인을 이용할 것인가?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무엇이 정답인지 몰랐다.

본 함으로 접근하니 이미 환자 이송의 모든 준비를 마쳐 우리의 귀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고민 끝에 레스큐존에 붙어 있는 도르래와 해상 단가를 이용하여 환자를 끌어 올렸다. 육지였다면 이미 병원으로 이송을 완료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우리 해양경찰에겐 이제부터가 진정한 죽음과의 싸움이다. 중국 선원 동료들이 응급처치로 고무판과 로프를 이용하여 지혈대처럼 적용해둔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제거하기 어렵고 또 다른 지혈대를 적용하기엔 위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보단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맥로부터 확보하고 판단했다.

환자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활력 징후를 측정해보니 혈압이 매우 낮고 맥박수가 빨랐다. 쇼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해상에서의 나는 1급 응급구조사이지만 때로는 의사의 아바타가 되어 그가 진단하는 전문적인 의학적 기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미리 연결해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포 한국병원 의사의 의료지시 하에 정맥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눈치챘다. 기회는 단 두 번뿐이란 사실을... 조금 긴장

이 되기 시작했다. 의료품 계약 업체에서 신청한 의료품을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이번 출동 일정에 맞추지 못했었고, 정맥로 카테터 재고는 단 두 개뿐이었다. 이미 출혈이 심한 환자는 정맥이 수축하여 정맥로 확보가 더 어려운데 18G의 굵은 바늘이라니. 심지어 해양경찰에 입사한 후 응급환자는 이번이 처음이라 환자를 마지막으로 대한지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래도 자신은 있었다. 나한테 딱 하나 있는 특기니까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건가?’하는, 나 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있었다. 한 번에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이미 불러도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었고, 통증을 주어야만 눈을 잠깐 뜨는 정도가 되었다. 겨우 뜯 남자의 눈꼬리 끝으로 눈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짜요(힘내)! 짜요(힘내)!” 계속 환자의 눈을 보며 외쳤다. 구인두기도기를 삽입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지혈대를 적용하고 진공 부목을 적용했다. 수축기 혈압이 80까지 떨어졌다. 수액을 폴드랩 하면서 90까지만 올라가길 바라며 보고하고 질문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돌아온 의사의 대답은 약 1년 반 전인 면접시험을 보던 시간으로 나를 끌고 갔다. 면접관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해상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것은 해상특수성과 이송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상구급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한 시간 정도가 흘렀지만 2~3시간은 더 가야 한다. 외상으로 이미 저혈량성 쇼크인 환자를 2~3시간이나 더 케어해야 한다니... 육상이라면 이미 병원에 두 번은 더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으리라. 그렇다고 중형 함에 인계할 수는 없다. 중형 함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없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중한 환자를 넘긴다는 건 환자도 그렇지만 직원도 사지로 내모는 일이었다. 내가 끝까지 환자를 케어해야 했다. 물론

중형 함이 가지고 있는 산소가 절실하긴 했다. 우리 함이 최대로 쓸 수 있는 산소는 분당 8L 기준 1시간 30분가량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산소도 아껴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체 징후를 측정했고 의사 선생님과 조타실에 보고했다. 너덜너덜해진 동맥과 뼈, 근육, 힘줄들이 여기저기 끊겨서 규칙적으로 뿜어져 나오던 혈액들이 다 행히 지금은 드레싱되어 진공 부목에 고정되어 있고, 지혈대를 적용해두어서 큰 출혈은 잡힌 상태였다. 정맥로 확보와 수액처치, 산소공급, 체위변경.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점점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짜요!” 하고 말하면 눈으로 끄덕여주는 정도가 되었다.

바닥은 피로 적셔진 거즈와 붕대 따위로 더러워져 있었다. 혈흔은 신발이나 옷에도 묻었지만, 특임 복이 검은색이라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중국어특채인 동기는 환자 옆에서 중국어로 계속해서 ‘힘내라’ ‘넌 괜찮을 거다’ 하고 격려했다. 간간이 안전팀장님께서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바닥에 쏟아진 피들을 닦아내 주셨다. 폭풍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헬기 인계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수액을 교체하고 생체징후를 확인하는 등 끊임없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함께 바다를 갈랐다. 다시 의무실보다 한층 더 높은 단정까지 환자를 태워서 섬으로 가야 한다. 함미 크레인을 이용해서 환자를 단정에 올렸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노심초사 환자를 태운 들것을 천천히 단정 쪽으로 이송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43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한데 모여 마음을 쓰고 있었다. 단정에는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단정 요원들이 옹기종기 맨 뒷자리에 모여 환자를 꼭 붙들어들었다. 가끔 매섭게 올라치는 파도에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서 단정에서 다시 부두로 끌어 올리는 데 또 애를 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산소가 바닥났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앞으로 5분만 더 가면 헬기 안의 산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산소를 많이 아껴 사용한 덕에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요, 섬에는 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파란색 용달 트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달 트럭에 환자를 태워보니 들것의 길이가 트럭의 길이보다 길어 어쩔 수 없이 트럭 뒤 칸을 열고 밧줄과 우리의 맨손으로 붙들고 헬기장으로 가는 가파른 오르막을 올랐다. 우리를 실은 트럭이 길을 따라 사정없이 덜컹덜컹거리는 순간 누군가가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자 트럭 뒤에 타고 있던 몇 사람이 조금씩 웃음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 3분, ‘이제 거의 다 되었다’는 안도의 웃음인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새어 나온 실소인지 알 수 없었다.

덜컹거리는 트럭 뒤 칸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길 아래로 바다가 멋지게 펼쳐져 있었다. “되게 넓네.”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헬기장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이는 하얀 닥터헬기가 와있었다. 마침내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했다. 함께 이곳까지 온 모두와 다들 고생했다는 말을 나누고 몇 시간씩 환자를 붙들었던 손과 팔을 주물렀다. 그리곤 내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정말 작은 내 손... ‘예전에 어떤 점쟁이가 내 손은 약손이라고 그랬었는데...’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나를 뽑았나요?’ 하는 질문에 이젠 나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다. 특히 나를 믿고 뽑아 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고 싶다. ‘왜 나를 뽑았나요?’ 항상 답을 찾지 못하고 속으로 되뇌던 질문에 비로소 첫 번째 답안을 낸 것만 같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스스로를 믿고 발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우리 직원들이 한데 모여 내게 힘을 준 것처럼... 또 그렇게 나는 출동을 나간다.

하늘에서 지키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 공항으로 출근하는 해양경찰관(항공전탐사)

글_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경사 홍대희

#1. 하늘과 바다. 그리고 소년의 꿈

하늘을 동경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과도 같은 파란색이고 나중에 커서 파일럿이 된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던 그 소년.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심한 흉터가 생긴 소년의 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토록 좋아했던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 소년은 하늘과 비슷한 바다로 나가본다.

바다 색깔은 하늘과 비슷한 파란색. 그렇게 소년은 바다에서 직업을 찾아 해양경찰관이 되었고, 바다 위를 다니는 비행기 탑승 승무원(항공전탐사)이 되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의 소중한 꿈을 조금이나마 이뤘다고 생각한 그 소년은 오늘도 비행에 나선다.

#2. 긴급출동, 나보다는 국민의 생명이 먼저!

“Cleared to landing runway 33.”

바람개비 2개를 양쪽 날개에 단 통통한 오리 한 마리가 평온한 공항 활주로에 사뿐히 착륙한다. 오늘도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피로가 몰려온다. 오전 비행을 끝냈으니 큰 사건·사고가 없으면 꼭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전화벨 소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 이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

“감사합니다. ○○항공대입니다.”

“여기 상황실인데요, ○○ 선적 803○○호가 교신두절이 되었다고 하는데 항공기 이륙 가

정의

능한가요? 공항 기상파악 좀 해주시고 출동지시 내려가면 바로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역시나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공항기상이 좋지가 않다. 오전 비행을 마친 이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항공기는 매뉴얼에서 정한 기상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비행은 불가하다.

“기장님, 비행 가능하시겠어요? 바람이 20kts(10m/s) 이상 불고 있는데...”

“일단 준비는 해봅시다. 조명탄도 미리 탑재하고 상황 파악도 좀 해줘요.”

“제가 봤을 땐 통신 교신두절 선박이긴 한데 해상기상 상황도 좋지 않으니 조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듯 싶어요. 긴급출동 준비는 하고 계시죠!”

얼마 뒤 상황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긴급출동지시다. 인근 항공대 헬기도 동시에 이륙지시가 내려졌다. 전 승무원은 항공기 점검부터 비행계획 제출까지 순조롭게 진행한다. 아~ 그때 상황실에서 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화재선박으로 상황이 전환되었다는 내용이다. 큰일이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승선원 9명이라니...

“기장님, 최대한 빨리 이륙을 해야겠는데요. 기상이.. 이륙 가능할까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긴하는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않을까? 다들 안전벨트 착용!”

임무준비를 마친 비행기는 공항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간다. 어느새 어두컴컴해진 저녁 노을만 남은 하늘을 향해 떠오른다. 차가운 바다에서 구조 손길을 기다리는 선원들을 생각하며 우리 안전은 조금, 아니 모두 양보한 채 폭풍우 같은 바람을 뚫고 이륙을 시도해본다. 비행기가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잃은 것처럼 휘청휘청, 태풍 속에서 비행할 때 느껴질 법한 흔들림이 몸뚱에 전해진다. 그래도 모든 신경은 조난선박에 탑승해 있을 조난자들에게로 쏠려있을 뿐...

다행히 비행기는 강풍을 헤쳐나가며 무사히 이륙했다. 이제 조난선박을 찾고 최대한 구조

세력을 지원하는 임무만 남았다. 임무장비인 레이더(RADAR)와 열상장비(EO/IR)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교신 되었다는 해역 주변을 탐색해본다. 얼마 뒤 어두컴컴한 바다 위에서 불길 이 치솟은 화재선박이 발견된다. 아! 저기다!

“각핏, 레이더. 조난선박 찾았습니다! 화재선박 확인했고 일단 저고도 유지 부탁드립니다.”

선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두운 밤하늘 위로 빨간 불꽃을 내뿜으며 활활 타고 있었고,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해군함정 1척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간 경험상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비행기는 제자리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 상 황을 구조 세력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난선박과의 교신설정을 통해 구조방법과 퇴선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선장님, 제 말 들리세요? 현재 하늘에서 선장님 배를 보고 있습니다. 선원들 중에 다친 사 람은 없나요? 구명벌은 투하 가능하시죠? 하늘에서 보이기로는 화재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고 배 앞부분에서 뒤쪽 방향으로 불꽃이 이동하고 있어요. 구명벌을 투하하시고 퇴선 준비를 해주세요.”

이때, 해군함정에서 교신요청이 왔다. 화염과 연기는 물론 높은 파도(4.5m 이상)로 화재선 박(어선)에 접근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해군에게 구조 가능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협 조요청을 하면서 주변 선박들에 구조요청에 협조해달라고 통신기에 간곡히 또 간곡히 이야 기하고 있었다.

“현재 위치 북위 38-○○N 129-○○E 해점에서 화재선박이 발생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있 습니다. 주변을 항해하시거나 구조 가능한 선박은 통신 기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험과 판단, 간절함

열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재선박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계를 잡는 어선이라면 LPG 가스통을 항상 가지고 다닐 텐데 어떻게 했을까...

“803〇〇호 선장님, LPG 가스통 가지고 다니시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게 지금 선미에 있어요. 난감하네요.”

등골이 오싹했다. 화재선박에 LPG 가스통이라니. 통신기를 다시 잡았다.

“선장님, 하늘에서 봤을 때 화재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배 뒷부분으로 화재가 확대되고 있으니 지금 선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LPG 가스통도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퇴선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요.”

다행히 선장님은 화재 상황에 대한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셨고, 8명의 선원과 함께 구명벌에 탑승하여 퇴선하였다. 퇴선 후 구명벌이 선박으로부터 멀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 화재는 조타실을 넘어 배 뒷부분까지 확대되면서 LPG 가스통도 폭발하는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이제 선박은 포기하고 퇴선한 9명을 최대한 빠르게 구조할 일만 남았다. 비행기가 아닌 헬기였으면 제자리비행을 하면서 구조시도를 해보겠지만 우리는 한 곳에서 머물 수 없기에 주변 구조세력을 찾아보기로 했다. 마침 인근을 향해 중이던 러시아 어선이 구명벌을 구조차 접근시도 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실패하고 있던 중 인근을 지나던 한 어선이 VHF 통신기로 연락이 왔다.

#4.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다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해양경찰

“아아~ 감도 있어요? 대〇호인데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어요. 선박위치 좀 알려주면 고맙겠네요. 날씨가 이렇게나 안 좋아서 원...”

“대〇호 선장님, 저희는 비행기이고 공중에서 구명벌 위치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010도 8마일에 위치해 있네요.”

천만다행이었다. 기상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해군함정과 러시아 어선은 상대적으로 작은 구명벌을 해상인양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제 집중해서 채낀기 어선을 구명벌로

유도하여 구조작업만 이뤄지면 된다. 열상 카메라로는 구명벌을 모니터링하고, 통신기로는 구조선과의 교신을 주고받으며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30분여가 지났을까. 드디어 채낚기 어선에서 구명벌이 보인다는 교신내용이 왔다. 초조하게 항공감시와 교신을 통한 구조유도를 진행하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혹시 모를 해상추락자 발생을 대비해 열상 카메라 영상 감도를 조정하고 구명벌에서 채낚기 어선으로 옮겨지는 인원을 세어본다. 한 명.. 두 명.. 다섯 명.. 아홉 명. 드디어 9명 전원이 구조 선박으로 인양되었다. 통신기로 교신을 시도한다.

“대○호 선장님, 9명 전원 구조된 거 맞나요? 다시 인원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상태도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계속 공중에서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비행기! 선장님 포함한 9명 모두 건강합니다!!!”

전원 구조소식을 듣자마자 긴장했던 마음이 누그러진다. 천만다행이다. 높은 파도 속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기지 공항에 착륙 후 상황실을 통해 9명의 구조 인원이 인근 항포구로 무사히 이송되었고, 화재선박은 전소하여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상악화 속에서 우리가 이룩하지 않았다면, 우리라도 가지 않았다면 구조를 기다리던 9명의 승선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중한 생명에 대해 그리고 나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속초, 교신두절(화재선박/803○○호) 구조 사진(2017.11.11.)】



#5. 날아오르는 바다 지킴이, 해양경찰 항공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었던 소년은 마음속 깊이 묻어 놓았던 꿈을 이뤘다. 비록 하늘이 아닌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 승무원이지만, 사실상 하늘을 원 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것도 소중한 생명도 살리고, 푸른 바다도 지키면서 말이다.

가끔 하늘을 왜 좋아했는지, 왜 좋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 어릴 때 그 감성은 아니지만 파랗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늘을 날아다니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라는 임무를 신께서 부여해주셨기 때문일까? 그래서 조금은 돌아왔지만 꿈의 일부라도 이루게 길을 열어주신 것일까? 그동안 비행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 고생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며 괜히 웃음이 지어진다. 소년의 꿈이 시간이 흘러 돌아온 것이 결국 하늘이라니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제 소년은 하늘을 날아오르겠다는 옛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의 기술을 빌려 흉터를 치료하고 비행기 조종사의 길로 나서기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는 중이다. 조종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소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소년은 오늘도 비행에 나선다. 바다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완벽한 꿈의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날아오른다.

| 눈꽃 향로 126해리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P-110정 경위 윤청금

2010년 12월 24일 아침 9시. 8박 9일의 여정을 알리는 세 발의 짧은 뱃고동 소리와 함께 부산스러운 목포 삼학도 부두를 뒤로하고 서남해를 향하는 태평양 9호의 그해 마지막 항해가 시작되었다. 올해 겨울 출동은 유독 힘에 부친다. 잦은 항해에 거친 바다, 창틀에 부딪히는 눈보라, 새까맣게 밀려드는 중국어선, 조타실 너머 부서지는 물보라 사이로 6주 된 젖먹이 딸아이의 모습이 더욱 아른거린다.

해남 우수영을 지나 좌현 함수 멀리 가사도가 보인다. 곧 먹통이 될 휴대폰을 조급한 마음에 얼른 만지작거려본다.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먼바다까지 풍랑,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30년 만에 맞는 한파! 함수 갑판에 벌써 눈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런 기상예보는 왜 이리도 잘 맞는지. 가사도를 벗어나자 바다가 갈라지며, 멀리 외병도가 오르락내리락 춤을 춘다. 오늘 저녁은 서쪽 하늘 셋별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폭풍 설야의 성탄 다음 날 아침, 흑산도 주변에 긴급피난 중인 중국어선 현황을 상황실에 보고하고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로 이동하였다. 가거도 남쪽 해안, 훔날리는 눈발 위로 대피 중인 새까만 60여 척의 중국 쌍타망 어선 무리가 보인다.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걸 보면 날씨가 계속 좋지 않을 모양이다. 별로 달갑지 않은 기상예보관들이다. 오늘 임무는 아마도 저들에 대한 감시나 검문검색이 될 듯하다.

(08:00) 3직으로 당직 교대를 하며 오감이 예민해진 당직관, 부장의 미간이 자연스레 찡그려진다. 이번 출동은 항해팀장의 하선으로 항해팀 인원이 부족하여 2직 새벽 당직을 하는

정의

바람에 조금 피곤하지만 아침 식사 손가락을 얼른 내려놓고 함교로 다시 올라왔다. 4m가 넘는 파도에 뱃전이 오르내리고 요동치는 소리만이 조타실에 흐르는 작은 적막을 깨고 있었다.

(09:12) “MAY-DAY” 10년 전 상선 항해사 시절, 겨울철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서유럽 비스케이 만에서 들었던 통신 음이 귓전에 스치는 순간 8명의 함교 당직자의 눈과 귀가 순식간에 VHF 항무 통신기(비상주파수 채널 16번)로 쏠린다.

“외국 상선인가?”

누군가 내뱉은 한 마디! 이후 다급하게 들리는 “살려주세요, 배가 기웁니다. 지금 30도 정도 기울어져 계속 침몰 중이에요!” 또렷한 한국말이다. 당직관이 통신기를 거머쥐며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장을 안심시킨다. “선장님, 목포해경 3009함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속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승객들 비상대피 시키고, 구명동의를 필히 착용시키세요. 그리고 VHF 비상주파수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09:15) 함교 기관전령기 가속레버를 전속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함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다.

“조난선박 방향 몇 도야?”

“100도입니다.”

“100도 잡아.”

잠시 후 조타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한 함장의 커다란 음성이 들린다.

“조난선박 방향, 거리?”

“500톤급 화물선 항로페리 2호가 만재도 남방 8마일, 우리 함으로부터 100도 17마일 해상에서 전복 중에 있습니다.”

“(함의)기관은?”

“4대 전속입니다.”

“조난자 수는?”

“선원 3명 포함 15명입니다.”

“부장 함 내 방송해!”

(09:20) 함 내 방송을 실시하였다.

“함 내 알림, 본 함은 전복선박 구조차 29노트 전속기동 중 현재 파고 4~5m, 눈이 내려 갑판이 미끄러우니 안전에 최대 유의하기 바라며, 함 내 총원 구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직자(야근) 포함 총원기상, 항해요원 정위치, 단정 요원 조타실 집합.”

함정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갑판에서는 단정 강하 준비작업이 한창이고, 기관실에서는 주기관 제어시스템을 주시하고, 항해요원은 조난선박의 위치 및 추가 상황파악에 주력하였다. 전탐사의 보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항로페리 2호 100도 15마일, 본 함 속력 29노트”

“전탐사, 조난선박 방위, 거리 계속 보고하고, 타수, 타 똑바로 잡아!”

함정은 전속 기동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강풍 때문에 정형으로 치우쳐 있는 조난선박이 오른쪽으로 빼딱하게 기울어져 불안하다. 이윽고 단정 요원 8명이 조타실로 올라오자 함장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의

“지금 가거도항을 출항한 항로페리 2호가 만재도 근방에서 전복 중이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선체구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해수 온도는 10도 정도로 매우 차가우니 현장에 도착하면 최우선 해상표류자 인명구조에 힘써주시고, 전복선박 접근 시 우리 단정이 같이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가며 선체에 남아 있는 인원을 구조하기 바랍니다. 15명의 생명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상.”

단정 장과 구조요원들은 함장의 교육이 끝나자마자 승정하기 위해 1번, 2번 단정 승정구역으로 향했다.

(09:40) “항로페리 2호 100도 9마일, 본 함 속력 29노트.” 전탐사의 보고는 계속 이어지고, 함장이 직접 VHF 통신기를 잡는다.

“선장님, 여기는 3009함장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선체가 40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사람들은 한군데 모여있습니다.”

“선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선체구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힘들겠습니다. 배가 계속 기울고 물이 들어오고 있어 힘들 것 같습니다.”

“선장님,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인명구조에 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승객들 구명동의 착용상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안심시키세요.”

함장의 조함이 계속 이어지고, 부장의 현장지휘 무전 소리에 조타실은 긴장감이 맴돈다.

(09:45) “지금 거리 얼마야?” “네 5.5마일 남았습니다.”

(09:50) “항로페리 2호 100도 3.5마일, 본 함 속력 29노트.” 이때 VHF 비상주파수에서 항로페리 2호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난선과 마지막 교신이었다.

“지금 선체가 50도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저희들 조타실 밖으로 나갑니다.”

(09:57) “항로페리 2호, 1마일 전입니다.”

“육안으로 식별됩니다.”

“저 선박 맞아?”

“네, 맞습니다.”

“기관 양현 앞으로 하나, 키 왼편 10도.”

쌍안경으로 들여다본 선체는 녹색 바탕이었고, 주갑판이 90도 정도 기울어진 조난선은 무척이나 거대해 보인다.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 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10:00) 속력을 낮추던 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함장의 단정하강 명령이 떨어진다. 부장의 하강 명령 무전 소리에 구조요원 4명씩을 나눠 태운 1번 단정이 먼저 물살을 가르고 2번 단정이 그 뒤를 따랐다. 만재도 동쪽 바다에서 구조를 위해 접근 중인 다른 경비함정이 눈에 띈다. 90도로 기울어진 선체 전복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배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선체 바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와중에 몇몇이 바다에 빠지자 1번 단정 장 이경사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구명뗏목에 매달려 있는 2명을 포함하여 6명이 물에 빠지고, 9명이 선체 바닥 용골 중앙 쪽으로 이동했다. 높은 파도는 단정 운전도 어렵게 한다. 단정 고물이 들리며 공회전하자 시동이 꺼졌다. 1번 단정 장은 침착하게 기관을 살려 익수자 쪽으로 접근한다.

(10:03) 완전히 전복된 선체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는 선체 주위에 거센 물보라를 만들었다. 물에 빠진 선장이 여교사가 조류에 떠밀리지 않도록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다. 1번 단정 구조요원이 선장과 여교사를 향해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1차 실패하고, 다시 던진 구명부환을 선장이 잘 받았다. 우선 이 두 사람을 단정 위로 끌어



올랐다. 물에 빠진 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차가운 겨울 바다는 그들의 몸을 뿔뿔한 통나무로 만들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배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건 이 선장과 교사였는데, 선장이 두꺼운 겨울옷 때문에 선체 구조물에 끼어버린 여교사와 함께 탈출하고자 간간힘을 쓰던 중 다행히 전복되기 직전의 큰 반동에 같이 튕겨져 나가 선체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어서, 구멍뚫목에 탑승하고 있던 냉동탑차 화물기사 2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해상 익수자 2명을 구조한 다음 구조작업이 곤란한 풍상 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복선박 후미를 돌아 2번 단정과 함께 풍하 측으로 이동하였다.

(10:15) 구조 대기 중인 조난자가 있는 선체 바닥 위로 밧줄을 던졌다. 밧줄을 잡아든 조난자들이 미끄러운 철판 위에서 발지용골 쪽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높은 파도는 단정을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1번 단정이 전복선박에 접근하길 여러 번, 6명을 단정에 옮겨 구조에 성공하고, 2번 단정에서 나머지 3명을 구조한 후 모선으로 이동하였다.

구조작업을 주시하고 있던 함장과 함정요원들의 벌렁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부

장이 “한명씩 한명씩 끌어올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단정에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다. 조난자 15명의 승선이 무사히 완료되고, 조난선박 감시업무를 다른 경비함에 인계 후, 우리 함은 전속으로 목포해경전용부두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불쌍사납게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전복선박이 남동 쪽으로 계속 떠내려가고 있었다.

함 내에서는 여교사를 포함하여 3명이 저체온을 호소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우선 그들을 응급처치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젖은 옷을 탈의시키고 방한 구조복으로 갈아입혔다. 함교 요원들이 함장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직원식당이 소란스럽다. 안도감도 잠시, 생존의 기쁨보다 바다에서 겪은 두려움이 배어 있는 그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다. 몇몇 먼저 안정을 찾은 이들은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든다. 한쪽 귀통이에 배를 잃고 주저앉은 선장의 회한 어린 모습에서 같은 바닷사람으로서 남모름 연민의 감정이 찾아온다. 출항 시 화물고박을 소홀히 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까? 하지만 마지막까지 생존자를 선체 밖으로 유도하고, 바다에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하여 퇴선 전 기관실 유류 밸브를 폐쇄했다고 하니 제 직무는 훌륭히 해낸 것 같다.

직원식당 옆에 마련한 구난자실에 들어가 보니 15살의 어린 중학생이 담요를 뒤덮고 떨고 있다. 두려움과 멀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마지막까지 선내에 있었던 교사는 여경 김순경의 보살핌을 받으며 침실에서 안정을 취한다. 함수 사우나실에서는 추위를 호소하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인기척도 없이 가만 누워있기만 하였다.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 3명, 방학을 맞아 가거도를 나오려던 교사 6명과 학생 1명, 냉동탑차 화물기사 4명, 상업 1명 등, 총 15명의 구난자 명부를 함장에게 보고하고 어린 중학생 보호자에게 함장이 직접 안부 전화를 한다.

“어머님! 저희가 아드님을 무사히 구조해서 목포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3시 30분경에

정의

전용부두에 입항할 예정이니 목포의 고모님께 나와 있으라고 하십시오.”

(12:00) 경찰서와 지방청 상황실에서 현장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친다. 함장 지시로 조난통신 최초접수부터 현재까지의 종합상황을 서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구난자들은 안정을 찾기 시작한 모양이다. 구난자 실에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온다. 선장에게 확인할 사항을 메모 후 음주 측정을 하였다. 별 이상은 없다.

입항준비를 하였다. 목포구 달리도 등대 항로를 도는 데 세차게 날리는 눈이 시야를 가린다. 멀리 목포항이 보인다. 설렌다. 입항 때면 아무 이유 없이 항상 설렌다.

전용부두에 사람들이 북적인다. 기다리는 가족들, 122, 119, 병원 구급차 5대와 방송사 TV 카메라들도 보인다.

(13:50) 구난자 15명은 목포의 3개 병원에 분산 입원할 예정이란다. 성탄 다음 날 아침 “MAY-DAY” 조난신호를 수신한 9시 12분부터 4시간 38분 동안의 숨 가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일을 얼마나 더 겪을 수 있을까? 25년 바다 생활 동안 이런 악천후에서 1명의 사상자나 실종자 없이 전원을 구조한 적은 없었던다. ‘조금이라도 더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면...’ 상상하기조차 싫다는 함장의 자조 어린 말에 공감이 간다. 구난자인게 후 경비구역 복귀를 위해 목포항을 출항하며, 다시 가거도로 함수를 잡았다.

상거 126해리! 너희들 수고 많았어!

하늘에서 계속해서 눈꽃가루가 내린다. 가슴 한편에 뿌듯함과 함께 그제야 기분 좋은 피로감이 밀려온다.

야간 칙흑 바다, 실종선원 찾아 헬기에서 몸 던져

글_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 경사 한승현

2014년 2월, 해양경찰에서 항공구조대가 창설되면서 주요 항공대에 헬기 항공구조사들이 배치되었다. 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대에 배치되어, 몇 주간의 항공구조 교육을 이수한 뒤 본격적으로 항공구조사로서 임무를 시작하였다.



기존 항공구조 방식은 헬기에서 호이스트라는 작은 크레인에 바스켓이라는 구조 장비를 내려 요구조자들이 스스로 타도록 한 후 헬기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시정, 파고, 요구조자의 상태에 따라선 구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항공구조사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헬기에 탑승, 해상이나 선박에 투입되어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구조 장비를 요청, 요구조자가 안전하게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 구조하는 임무를 하게 된다.



항공구조사는 기상이 좋은 날에는 부담이 없겠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항상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직무다. 헬기가 갈 수 있는 곳이어도 현장 도착 후엔 최종적으로 해상이나 선박에 내려가서 구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고 이는 높은 사망감이 없으면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 항공구조사는 조종사, 정비사와 하나가 된 듯 호흡하고 실수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평상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헬기는 이륙 후 높은 상공에 있기 때문에 구조 장비 점검에 소홀하거나, 구조절차에 미숙하면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항공구조대에서 항공구조사로서 훈련을 하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조종사, 정비사와 원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2개월 동안 선박에서의 응급환자 호송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어느 날 밤 항공구조사로서 아주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4년 4월 4일 새벽 3시경, 상황실에서 여수 거문도 남동 63km 해상에서 몽골선적 화물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상황을 접수했다. 기상파악을 해보니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로 파고 3~3.5m, 초속 15~18m/s 강풍에 야간이라 자동항법장치로 100km를 비행해야 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따로 구조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좋지 못한 상황임이 분명했지만, 팀원들은 상황을 보며 진행 및 회항 여부를 판단하자고 했고, 모두 비행준비를 위해 망설임 없이 격납고로 뛰어갔다. 그렇게 이륙한 헬기는 50분 동안 강한 바람과 어둠 속을 뚫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고, 날씨 탓인지 선박 하나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만 보일 뿐이었다.

1시간째 헬기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수색을 진행하던 중, 연료 문제로 복귀하려는 찰나 서치라이트 불빛에 갑자기 반짝반짝하는 물체가 비치기 시작했다. 근접하여 자세히 보니 비상구명 슈트를 입은 사람이 확실히 보였고,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파도를 맞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이 기상에 살아있다니 천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장이 나에게 물었다. 이 험한 파도와 바람을 뚫고 해상에 투입되어 조난자 구조가 가능한지, 그뿐 아니라 구조진행 중 시간이 지연되면 익수자나 항공구조사를 놔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 짧은 순간 겁도 났지만, ‘2시간 후엔 해가 뜰 것이고 지금은 헬기밖에 없지만 함정 선박 등 구조세력들이 현장으로 오고 있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자는 심정으로 해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였다….

몸에 달린 하네스를 호이스트에 연결하고 헬기의 도어를 열자 기다렸단 듯 거세게 불어오는 강풍과 헬기 하강 풍이 서로 만나 부딪혔고, 순간 아찔한 느낌이 온몸에 전달됐다. 잠시 두려운 마음을 다잡은 나는 이내 헬기 바깥으로 몸을 내보내고 해상으로 내려갔다.

몸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 연결되어있던 호이스트를 풀고 빠르게 익수자에게 다가가, “해양 경찰입니다, 구조하러 왔으니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한 뒤 간단한 환자평가를 한 후 헬기에 접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익수자는 심한 한기 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수온이 섭씨 13도밖에 안되어 슈트를 입고 있었어도 조금만 더 지체되었다면 혼수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헬기 구조 장비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정신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익수자의 뺨을 치며 깨웠고, 곧 헬기에서 구조 장비가 내려와 체결을 시작하였다.

야간이라 헬기에서 해상으로 내려준 호이스트의 길이를 육안으로 가늠할 수 없어, 최대한 장력이 생기지 않게 유지하였다. 물을 잔뜩 머금어 부푼 구멍 슈트를 입은 익수자에게 구조 장비를 채우긴 쉽지 않았고, 늘어진 와이어 줄에 익수자와 나 자신이 계속 감겨 줄을 풀며 장비를 채우길 반복했다. 정말 이 순간은 너무 힘들고 위험했던 기억이라, 지금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날 정도다.

그렇게 구조 장비 체결을 완료한 후, 마침내 헬기로 상승하려 했을 때였다. 늘어진 호이스트 와이어 줄 때문에 안전상 익수자 먼저 상승시켜야만 했고, 난 아무도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게 되었다. 익수자가 무사히 탑승하는 걸 마음 졸이



며 지켜보았다. 헬기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혼자 남게 되니 바다에 빠진 익수자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 있었을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해 뜰 때까지만 기다려자’ 하고 눈을 질끈 감았을 때, 서치라이트가 내 몸을 비쳤다. 돌아온 헬기는 머리 바로 위에서 날고 있었고, 빠른 속도로 호이스트가 내려왔다. 이윽고 헬기의 하강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상승했던 그 순간은, 내 생애 가장 짜릿하고 기분 좋은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헬기 탑승 후 숨을 돌리며 헤드셋을 썼다. 기장과 승무원들은 분주해 보였다. 익수자를 구조하고, 나까지 탑승시켜 출발하느라 연료가 아슬아슬했기 때문이다. 당시 헬기가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시간, 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비상 연료로 비행을 하게 된다. 이는 언제든지 불시착할 준비를 해야 함을 뜻했고 승무원 모두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팀원들에게 ‘함정들도 거의 다 왔다고 했었는데 날 두고 가지 그랬냐’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널 놔두고 갈 수 있었겠느냐’고 답하니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오히려 내가 더 신속히 움직여 익수자 구조 장비 체결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다행히 우린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제주공항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조했던 익수자는 북한사람으로 밝혀져 무사히 판문점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끝없는 훈련을 통해 하나가 된 팀원들이 현장에서도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이해해주었기에 국내에 유례없는 항공구조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4일 새벽의 경험은, 내가 지금도 현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평생 기억될 것이다.





문화가 있는

해양경찰 노래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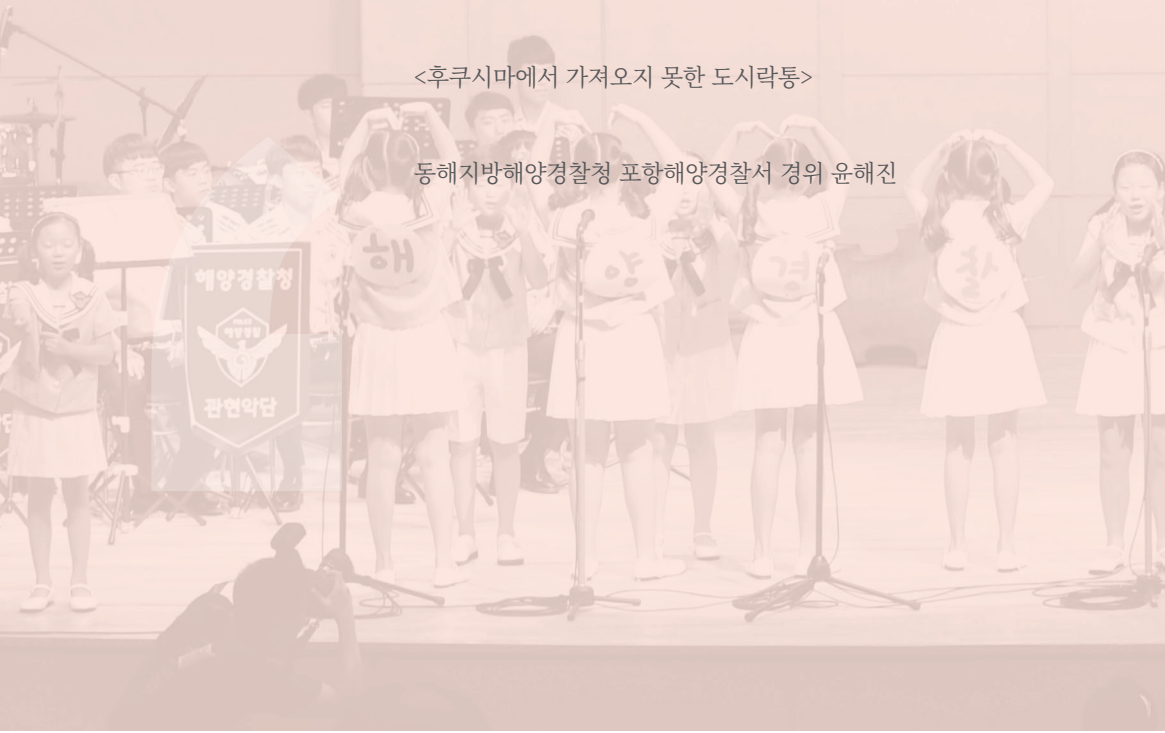
해양

공감, 규율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저 바다 어딘가에 그래도 녹슬지
않고 온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가져오지 못한 도시락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경위 윤해진



있는 해양경찰

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해양경찰청



“엄마! 우리 반 친구가 엄마 수업 듣고 해양경찰로 꿈을 바꿨대요!” 76

대시보드 수납장 속 지폐 한 장 84

그 섬에 석양이 질 무렵 89

바다 위에 그린 희망의 선율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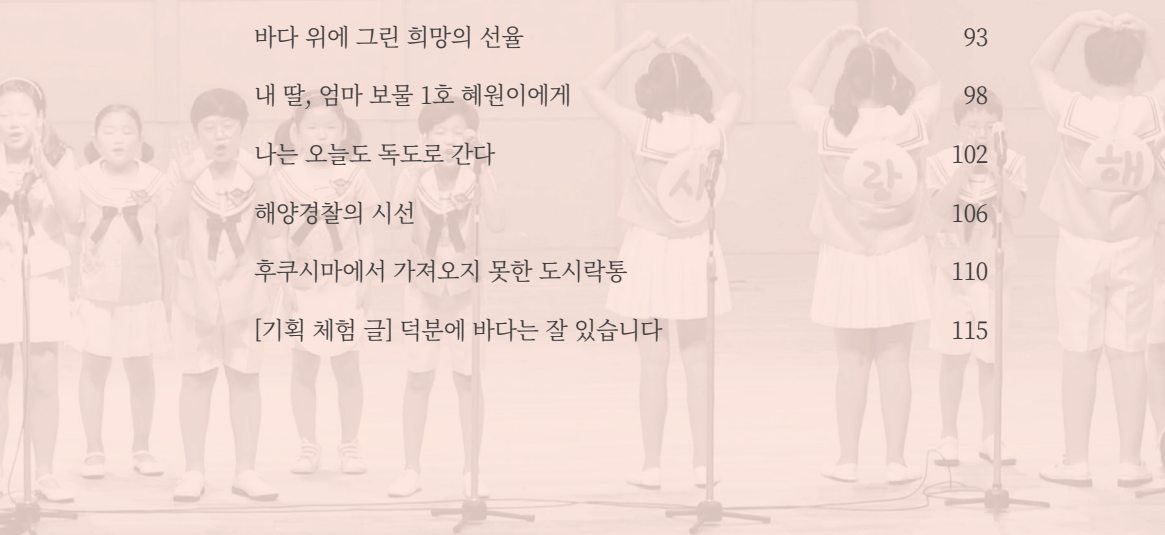
내 딸, 엄마 보물 1호 혜원에게 98

나는 오늘도 독도로 간다 102

해양경찰의 시선 106

후쿠시마에서 가져오지 못한 도시락통 110

[기획 체험 글] 덕분에 바다는 잘 있습니다 115



“엄마! 우리 반 친구가 엄마 수업 듣고 해양경찰로 꿈을 바꿨대요!”_해양경찰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경위 유지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내게 일러주었다. 딸이 세 번째로 전학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수업을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엄마 역할을 이참에 만회한 것 같아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 집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전학을 자주 다녔다. 나와 남편이 속해있는 조직은 서로 다르지만, 전국으로 발령을 받아야 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남편과 나의 발령 순환주기가 다를 때마다 제일 고생하는 건 아이들이었다. 어떨 땐 아빠와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할머니와 살기도 했다. 내가 함정근무를 할 땐 얼굴도 몇 번 못 마주치는 '무늬만 엄마' 노릇을 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부재가 늘 당연시되었고, 그만큼 사랑에 목말라 했다.

몇 해 전 남편의 발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일이다. 울산에서 인천까지 우리 가족은 또 이사를 준비했다. 한참 또래 형성이 시작된 딸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르고 달래줘야 할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다.

“그럼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너 혼자 잘 살아봐!!”

내 진심과는 달리 더 큰소리로 아이를 혼내고 말았다. 딸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딸의 시선을 회피했다. 딸이 우는 모습에

서 어린 아기 때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 아플 때가 있는데 이날이 꼭 그랬다.

딸이 태어난 지 10개월, 눈망울 어린 딸의 시선을 모질게 끊어내던 독한 엄마가 나왔다. 남편이 뒤늦게 꿈을 찾아 노랑진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시기라 육아휴직제도는 나에게 사치나 다름없었다. 내가 집안의 경제적 가장 노릇을 해야 했기에 한눈을 팔 거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딸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빠와 생이별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엄마와 또 떨어져야 했으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잠에서 깨지도 않은 딸을 이불로 돌돌 말아 어린이 집에 밀어 넣는 일은 고문이었다. 원장님께 인사할 거를도 없이 현관문을 뒤흔쳐나오면 어김 없이 3초 후에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때마다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 ‘엄마 여기 있으니 울지 말라’며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딸을 얼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며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이 우리는 서서히 성장했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지금의 위치에 와 있다.

딸이 울면서 전학 간 학교에서 ‘진로탐색수업’이라는 안내문을 들고 왔다. 평소 같으면 잘 보여주지 않는 아이가 내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안내문을 내놓았다.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파출소 근무 날과 수업하는 날이 겹치기에 ‘거절 의사’를 밝히려는 찰나, 딸이 내 대답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엄마... 정 힘들 것 같으면 굳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그런데.. 뭐..?”

“그냥.. 엄마가 한 번쯤은 학교에 와줬으면 좋겠어...”

딸이 내뱉은 마지막 그 한 마디는 잔잔한 내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그래..? 음.. 생각 좀 해보자...”

어느덧 해양경찰에 몸담은 지 14년이 훌쩍 넘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을까? 그 날 이후 딸이 건넨 한 마디는 내 마음속의 잔상으로 남아 이따금씩 상기됐다.

매년 태풍이 북상하면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회사로 출근했다. 해상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비상소집으로 사흘이고 나흘이고 회사에 대기해야 했고, 밤샘근무를 하고 온 뒤에는 집에서 나무늘보처럼 잠만 자느라 떠들지도 못하게 했다. 밤에는 연이은 교대근무로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 딸에게 읽어주던 책을 얼굴에 떨어트려 올리기도 많이 올렸다.

여름철만 되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집중하느라 그 혼한 여름 휴가조차 제대로 가보질 못했다. 여름에 태어난 딸의 생일파티를 하며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가족끼리 워터파크에 가보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여경에게 ‘함정근무’는 ‘주부사표’나 마찬가지여서 아이들은 오롯이 시어머니 몫이었다. 남들 쉴 때 일해야 하고 남들 일할 때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직업군이라 명절다운 명절을 제대로 보내본 적도 거의 없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자상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아닌 늘 휘모리장단에 맞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일상이 익숙했던 아이들은 학부모 상담주기는 물론 참관수업에도 ‘안 와도 된다’며 나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랬던 딸이 처음으로 부탁한 것이 ‘진로탐색수업’이다. 어렵게 부탁하는데 어린 아기 때 간절한 눈망울을 끌어내듯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기회도 없을 텐데,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서에 뒤늦은 싸인을 했다.

수업이 있던 날, 아이들은 터질 듯한 환호성과 박수세례로 맞이해 주었다. 수업이 시작될 무렵 딸이 교실로 들어왔다. 딸의 앞이라 그런지 더욱 신경이 쓰였다. 딸은 수업시간 내내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방긋 웃어주었다. 장난기 어린 눈으로 친구들에게 자기 엄마인 걸 알리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나는 딸에게 우리만의 싸인을 보냈고, 딸은 잘 알아들었다는 듯 암전히 수업을 경청했다.



전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세력이 약 10만 명,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세력이 약 5만 명, 그에 비해 우리나라 영토의 3배를 관할하는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 세력이 약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상당히 놀라워했다. 해양경찰의 주요임무와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그리고 내가 근무하며 겪었던 사건사고들을 설명해주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은 원래부터 꿈이 해양경찰이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해양경찰이 되셨어요?”

“음.. 글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답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질문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꿈과 운명이 만나면 어떤 게 이길 것 같나요?”

“꿈이요~!”, “운명이요!”

친구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하며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이 겪어본 바로는 꿈과 운명이 만나면 운명이 이겼습니다. 운명이 바람이라면 꿈은 촛불과도 같아요. 운명이 훨씬 더 강했어요. 선생님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운명에 의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아이들의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선생님~!”

용기 있는 한 친구의 질문에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IMF라는 경제위기로 침몰되던 그때. 내 앞에 수업을 경청하는 아이들은 교과서에서나 만나볼 만한 옛날이야기였다. 꿈보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 했던 나만의 이야기. 가정 형편을 고려해 모든 적성과 꿈을 버리고 바다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포부. 그렇게 선택한 ‘해양대학’, 운명적인 선택이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아이들 앞에 짧게 풀어놓았다.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간직해뒀던 터라 딸 앞에서도 처음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다.

나의 사연을 들은 친구들은 어느새 숙연해져 있었고, 그러한 적막을 깨트리듯 한 친구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선생님은~ 해양경찰이 된 걸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선생님이 해양경찰이란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절대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직업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자녀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책임감 덕분에 힘들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이 할만해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직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힘들어요. 단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나의 답변이 끝날 무렵 딸과 눈이 마주쳤다.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커다란 두 눈에는 어느새 그렇그럼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수업 끝낼게요. 청소년기에 꿈이 없다는 건 ‘늙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꿈이 있으면 늙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꿈은 있어야 해요. 선생님은 그런 운명 속에서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찾은 꿈을 이뤄 내 해양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꿈꾸기 이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꿈을 이루고 나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박수로 보답해 주었고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몇몇 여학생들은 싸인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했던가. 이번 수업이 재미있고 재미없고 를 떠나 적어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한 문장이라도 남긴 수업이 되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에 날개가 달린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해양경찰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힘들다. 단숨에 삼켜버릴 것 같은 집채만 한 파도를 뚫고 생명을 구하러 출동해야 하고, 입덧보다 몇 배는 심한 뱃멀미로 탈진상태가 되어도 침대에 누워 쉬기는커녕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이 되기 전에는 이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타고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섭고 두렵다. 두

려움이 없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이었다. 돈 내고 타는 배는 즐겁지만, 돈을 벌기 위해 타는 배는 괴로움 그 자체라는 사실을 해양경찰이 되기 전에는 몰랐다.

수업을 끝내고 학교 밖으로 나오며 해양경찰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푸른 꿈을 안고 해양경찰에 함께 입사했다가 근무가 힘들어 그만둔 동기들도 여러 명. 나 역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힘들어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때마다 나를 도와준 직장 선배님들이며,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아마 그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이 글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별자리가 되어 나를 이끌어 준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남기며, 지금도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을 전국의 1만여 해양경찰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I 대시보드 수납장 속 지폐 한 장

글_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긴급방제팀 주사(6급) 이종선



언젠가 명절을 앞두고 아들을 심부름꾼 삼아 시골 5일장에 데리고 간 적이 있다. 한적한 시골인 줄만 알았는데 많은 노점상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구수한 사투리가 들리며 물건값을 흥정하고 있는 북적북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는 어떻게 오늘이 5일장인지 알았어요? 시골이어도 사람이 엄청 많구나!” 내가 어렸을 적 5일장에 용무를 보러 가셨다가 양손에 뽕튀기와 사탕을 가득 사 들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요새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에 밀려 5일마다 장을 서는 풍경은 점점 사그라지고, 아들 녀석처럼 시골 5일장을 신기해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내게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직면할 때면 무척이나 안타깝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흙 묻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5일장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지우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이, 청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잊지 못할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다.

시간은 2003년,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시끄러운 시기였고,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코리아 드림’을 품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때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 많았고, 해안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촌을 밀입국 경로로 이용하여 몰래 국내로 들어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해양경찰의 모든 직원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밀입국 예방을 위해 힘썼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 어촌의 항·포구에 배치되어 물샧틈없이 근무를 섰다. 나 또한 전남 목포에서 약 70km쯤 떨어진 전남 영광군 향

화도라는 작은 포구에 배치받아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다.

아직은 뜨거운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초였기 때문에 근무지에 모기는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 날아다녔다. 잠복근무를 하는 형태였으므로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모기향을 피울 수 없었고, 차량에 불도 켜지 못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혹여나 본인의 구역에서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했기 때문에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전 9시경 퇴근하는 길이었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허리가 90도로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도롯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뻗고 계셨다. 차가 뺑뺑 달리는 도로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바라는 그 모습은 너무나 위태롭게 보였다. 하지만 차들은 어느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처럼 그 옆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멀리서 차량의 꼬리를 뒤따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할머니 옆에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쭙보았다.

“할머니, 날도 더운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계시네요. 뭐 도와드릴 것 있으세요?”

“아유 젊은이, 내가 함평까지 가야 헌디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부네.”

나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가 지니고 계셨던 짐 보따리를 번쩍 들어 뒷좌석에 싣고는 할머니를 그 옆으로 모셨다. 차에 타신 할머니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 내내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빈 차로 혼자 가고 있는 데다 마침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아 대수롭게 여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40여 분 도로를 달렸을까, 아까 들었던 제법 무거운 할머니의 보따리가 생각나 여쭙었다.

“할머니, 날도 더운데 보따리를 들고 오전부터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 넘새밭(텃밭)에 숭겔던(심었던) 무시(무) 밀이 잘 들어가꼬, 몇 개 뽑아 왔제. 오늘이 함평 장날 이어가고 장에 내다 팔라고 그러제.”

운전석 백미러로 보이는 보자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나는 내심 팔면 얼마나 버신다고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달려 차는 할머니의 목적지인 함평장에 다다랐다. 할머니께 도착했다고 알려드리려 뒤를 돌아본 순간 할머니께서 허리춤에서 주춤주춤 돈을 꺼내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고 할머니, 괜찮습니다. 넣어두세요. 이러시면 오히려 제가 불편해요.”

“아휴 내가 고마워서 그런당께. 가다가 시원한 아이스께끼(아이스크림)라도 사 묵어. 날이 겁나 더워블자네.”

나는 거둬 괜찮다고 고개를 가로저었고 수차례 사양했다. 기어코 받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에 할머니는 결국 차에서 내리셨다. 허리를 굽히신 채 소중한 보따리를 챙기신 할머니께 많이 파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집을 향해 출발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문득 할머니가 앉아 계셨던 자리를 훑어 보았더니 조수석 뒤쪽의 그 자리에 할머니가 놓고 가신 것으로 보이는 꼬깃꼬깃한 5천 원 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한사코 사례받기를 거절하던 나를 보시고는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실 때 급하게 던져 놓으신 듯 했다. 지폐를 본 순간 내 마음은 돌덩이가 누르듯이 무거워졌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보상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돈이든 나쁜 돈이든 결코 받지 않고 청렴하게 떳떳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는데 말이다. 영업용 택시기사처럼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모셨던 할머니와 같이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한다는 해양경찰 조직의 일원이자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여겨졌다. 할머니가 짐을 챙기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나는 차마 손때 묻은 꾸깃꾸깃한 지폐를 챙길 수 없어 차량 앞좌석 대시보드 수납장에 고이 넣은 다음 아파트 현관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 식탁에 앉아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없는 초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에게 오늘 퇴근하는 길에 할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허리도 편치 않았던 어른신이 멀리 시장에 나가셔서, 가지고 간 무를 모두 팔아도 5천 원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큰 금액이었을 할머니의 그 귀한 돈을 챙길 수 없어 차 대시보드 서랍에 놓아두었다고 어린 두 아들에게 말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5천 원이 생겼으니 그럼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달라며 앙탈을 부렸다. 잠자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는 두 아들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고,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는 또한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는다.’라는 명심보감 한 구절을 들려주며 돈의 소중함과 나이 드신 어른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라고 훈육하였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넘었다. 이름 모를 무 할머니 이야기를 철없이 들어 넘겼던 초등학생 두 아들은 벌써 건장한 20대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결코 짧지 않은 그 기간,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청렴한 태도에 대해 수도 없이 생각하고 몸소 느낄 때가 참 많았다. 이따금 차량 대시보드 수납장 속 5천 원을 다시 꺼내본다. 무더웠던 어느 날,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이름 모를 젊은이에게 작은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지만, 순수하든 고의가 아니든 할머니께 꾸깃꾸깃한 5천 원을 받았던 나 자신을 떠올리며 공직에 있으면서 꼭 청렴하게 살자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외친다.



나의 명함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청렴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양합니다 청탁! 사랑합니다 청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했고 공직자로서 부당한 이득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할 때마다 나는 앞면에는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고 뒷면에는 청렴문구가 새겨진 나의 자랑스러운 명함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나의 두 아들은 미래에 공무원을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대학을 다니는 큰아들의 이름은 순우리말 ‘겨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기둥이 되라는 뜻으로 아내가 지어준 의미심장한 이름이다.

둘째 아들은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아버지처럼 청렴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종종 말한다. 공무원을 꿈꾸는 두 아들에게 아내는 휴대폰 메시지로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청렴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자를 자주 보낸다.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고, 남에게 오해를 사거나 의혹을 살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고,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차량 대시보드 수납장 속 이름 모를 할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5천원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5천만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정직한 생활을 이어간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더 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꾸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그 섬에 석양이 질 무렵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511함 경위 박대호

강화군 석모도는 육지가 날 무렵 일교차가 유난히 심해 아침에는 수면 위에 가라앉은 해무(海霧)가 어우러져 있기 일쑤이고, 낮 동안은 한창 더울 때라 검은빛 갯벌에 연기처럼 아지랑이가 피어난다. 석모도에는 바다 건너 교동도와 마주하고 있는 상주산(上主山), 중앙에 있는 상봉산(上奉山)과 남동쪽 끝에 있는 해명산(海明山) 세 개의 산이 있다고 하여 행정지명은 삼산면(三山面)이다.

서울에서 늦은 봄나들이 온 승합차 한 대가 상주산 끝자락 하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천방지축 4명의 아이들은 승합차 문이 열리자마자 경주라도 하듯 물가 쪽 비탈진 선착장 아래로 뛰어 내려간다. 어머니는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지 마! 애들아!”라고 소리치며 같이 내달린다. 그러다 아이 어머니가 선착장 바닥에 묻어있는 빨과 젖은 해초 따위에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만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남편은 이것저것 재어 볼 틈도 없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고 있는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 비명에 서검도를 오가던 페리선 한 척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다행히 페리선 선원들에 의해 아이 어머니는 구조되었으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남편은 갯골의 빠른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 며칠 후... 이 섬의 최남단에 위치한 해양경찰 직주일체형(職住一體形)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던 나는 이 슬프고도 기막힌 사고 소식을 접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아직 몸조리 중인 아내와 첫째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남겨둔 채 홀로 출장소로 복귀하게 되었다. 순찰 오토바이를 타고 뱀

처럼 굵은 해명산과 상봉산 고개를 넘고 광활한 개척지를 지나서야 목적지인 하리에 도착하였다.

선착장엔 남편을 잃은 아내와, 며느리를 구하려다 오히려 실종된 아들의 시신이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늙은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너무나도 험악하여 몇 마디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하여 해안가를 수색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는 생각에 잠시도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낮 동안의 햇볕이 너무나도 뜨거워 등줄기를 훌훌 뒹아냈고 헬멧 속에 흐르는 땀으로 인해 눈이 따끔거렸다. 갈증이 났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마실 물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출장소의 유일한 조력자인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있던 탓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지도 오래되었다.

수색을 한 지도 벌써 며칠째, 석양이 질 무렵 출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독방 사이길을 지나는데 순간, 실종자의 부친께서 근심 어린 손짓으로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뒤 자신의 아내가 한참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오토바이 핸들을 긴급히 돌려 우선 진분홍색 해초밭길과 갯벌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번번이 허탕이었다. 넓은 벌 서편에 갯바위에도 올라가 보았다. 마침 썰물이 휘돌아나간 갯골에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눈에 띄었다. 마음 한구석이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신발을 벗고 질퍽거리는 갯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다. 허벅지까지 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느덧 내가 실종자의 모친 곁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작은 구멍 사이로 하얀 거품을 뿜죽이 내뿜는 갯벌과 갯가지 물결이 뒤섞인 섬뜩한 바다 경계가 맞닿은 곳에 누워계셨다. 마치 정조(靜潮)가 지난 뒤 바닷물이 차오르기만 기다린 듯. 이윽고 내가 “할머니! 괜찮으세요?”라고 외치자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실종된 제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듯 목 놓아 부른 뒤 “내가 죽어야 한다”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시키기 위해 할머니의 손을 붙잡자 오히려 바다 쪽으로 기어가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허리춤을 더욱 강하게 붙

잡아야만 했다. 발은 점점 갯벌 속으로 들어갔고 혼자서 할머니를 밖으로 데려갈 방도가 없다는 생각에 119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소방관 두 분과 함께 들 것을 이용하여 할머니를 물으로 데려 나올 수 있었다.

이미 석양도 저물어 밤하늘에 별들이 한바탕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소속 파출소에 전화로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출장소로 복귀하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갯벌에서 오랫동안 뒹군 탓에 옷이 땀과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 부딪히는 바닷바람이 꽤 시원하게 느껴졌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산허리를 넘을 때 심장은 두근거렸고 폐로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출장소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에 속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철 지난 진달래와 설익은 밤나무, 바닷가 해송(海松)만이 바람에 나부낄 뿐, 이미 강화도를 잇는 도선(導船)도 마지막 운항이 끝난 섬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였다. 상봉산 고개를 넘고 해명산의 구부러진 길을 지날 때는 가슴이 옥신거리기 시작했다. 머리에 쓰고 있는 헬멧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물에 젖은 구두는 발을 조여왔다. 이러다가 길바닥에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속력을 조금 낮추었다.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도 보았으나, 오히려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손마디와 발가락의 감각도 무뎌지기 시작했다. 불쑥 아직 눈도 못 뜬 둘째 아들 녀석 얼굴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좁고 어두운 옛 염전 길을 지나 희미하게 두 갈래 길이 보였다. 왼편은 애당초 목적지인 출장소가 있는 어항(漁港) 쪽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편은 민 머루 해변 쪽으로 가는 길이다. 무엇인가 이끌린 듯 늦은 밤 사람들 왕래가 없어 쓸쓸한 어항 쪽이 아닌 인파가 많은 해변길로 핸들을 돌렸다. 작은 언덕을 지나 해변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기어코 오토바이가 해변 모래 위에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섬마을 주민들이 황급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아우, 손이 얼음이야, 얼음!” 그들은 내 손과 발을 주물러주었

다. 나는 그때서야 내가 이를 덜덜대고 축 처진 어깨와 굳어버린 종아리를 몸시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모래사장에 바로 누운 채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었으며 단지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눈물은 아니었으리라! 다만, 그리움이란 놈이 내게로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어릴 적 골목길에서 같이 뛰놀던 동네 개구쟁이 녀석들, 국민학교 시절 교실에서 재잘거리던 동무들과 마냥 순하고 착한 동생, 이미 초라하게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 서글픈 까닭이었다. 다시 두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나의 숨결 소리, 그리고 마치 개구리같이 짹고 둥글어 못난 내 손을 똑 닮은 두 아들 녀석과 아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 바다 위에 그린 희망의 선물

글_목포해양경찰서 3015함 경위 김세화

나는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다도해의 전경이 드넓게 펼쳐진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딸만 내리 다섯인 딸 부잣집 넷째로 태어났다. 내겐 좋게 말하면 풍류를 아는 멋쟁이요, 살짝 안 좋게 말하자면 멋과 풍류를 과하게 즐기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느 날 그의 갑작스런 피아노 구입과 함께 우리 다섯 자매의 음악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회 예배당도 아닌 어촌 마을 가정집에서 피아노를 구경한다는 건 당시엔 흔치 않은 일이었다.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다니는 주산학원 대신 택한 다섯 자녀의 피아노 학원 교습비는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꾸리는 엄마의 가게부에 적잖은 부담을 안겼을 테지만, 언니들과 음악 소리에 묻혀 즐겁게 노래 부르던 유년의 기억은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이다.

언니들이 차례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며 서서히 피아노와 멀어질 즈음 오히려 그것과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된 나는 진지하게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했으나, 시기가 좋지 못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은 그리 신통치 않았고 내 위로 세 명의 언니들에게 한창 학비를 쏟아 부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 나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철없는 사치’라 여겨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조차 드리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다.

그래도 현실을 비교적 일찍 깨달은 덕분인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혼자만의 짧은 방향은 다행히 끝이 났고, 피아노와 서서히 멀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다. 해양대학생이 되어

모교 은사를 찾아온 고교 선배의 새하얀 정복이 내 맘에 들어와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열일곱 소녀의 가슴을 뒤흔든 눈부신 흰색의 파장이 고교 3년을 내리 요동치더니 결국 목포해양대학교 합격이라는 기쁜 울림을 안겨주었다. 입학 첫날, 해양대 정복을 입고 씩씩러운 듯 거수경례를 올리는 나를 자랑스레 바라보며 마치 이루지 못한 마도로스의 꿈을 이루신 양, 밝고 환하게 웃으시던 22년 전 그날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다.

여전히 예술을 사랑하신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나에게 이번엔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권하였다. 아니, 아버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빛나는 추진력으로 아예 악기를 직접 구해다 주셨고, 난생처음 접한 그것의 목직하고도 맑은 울림에 반한 나는 점점 색소폰과 가까워졌다. 어릴 적 피아노처럼... 바다를 보며 자라 드넓은 그곳을 누비며 활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막연히 동경하던 차에 예비 항해사가 되어 나타난 고등학교 선배의 새하얀 정복에 운명처럼 이끌렸다. 결국 망설임 없이 선택한 해양대학교는 여러모로 매력 있는 곳임은 분명했지만, 단체 합숙을 하며 각종 규율과 통제를 받는 생활이 자유를 꿈꾸는 스무 살 뜨거운 청춘에게 다소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런 날에는 가만히 색소폰을 꺼내 들었다. 기숙사 창밖으로 보이는 섬, 고하도를 관객 삼아 무심한 듯 서너 곡의 연주를 마치면 답답한 기분이 한결 나아지곤 했다. 그렇게 ‘색소폰’은 내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학 4년 동안 재능기부로 지역 축제 등 크고 작은 무대에 활발히 참여했고, 어느덧 음악은 내 삶에 소중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대학 졸업 후 상선 삼등 항해사가 되어 해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2002년 가을, 승선한 화물선 ‘델타피아호’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북 지원 사업의 해상 운송임무를 맡게 되어 비료와 쌀을 싣고 북한으로 향했다. 동해 금강산 부두의 서늘한 가을바람의 배웅을 받으며 떠난 첫 출항은 NLL(북방한계선)을 지나 원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흥남항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북한 출입항 기록과 함께 그해 겨울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아마 두 번째 방문으로 기억한다.



대중가요 가사 그대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서의 하역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북측에서 감사의 표시로 준비한 환영 만찬을 나누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어찌하다 보니 내가 남한 측 장기자랑 대표가 되어 색소폰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그날의 특별한 연주 무대는 나에게 무척이나 벅찬 기억으로 남아있다. 게다가 이 경험 덕에 훗날, 해양경찰 임용 후 서너 해가 지난 정기인사이동 시기에 “북한을 직접 다녀온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적임자”라는 너스레로 보안계에 지원하여 2년간 보안요원으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보안계를 비롯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상과 육상을 활발히 넘나들며 해양경찰 제복과 한몸이 되어간 지도 벌써 16년째... 바다라는 활동 영역은 같지만, 금지와 사명감을 가진 봉사의 주체가 되고자 고심 끝에 상선 항해사에서 해양경찰로 과감히 제복을 바꿔 입었던 16년 전. 첫 근무지 강원도 속초로 씩씩하게 뱃머리를 돌린 풋풋했던 20대의 김 순경은,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긴 김 경위가 되었다. 해양경찰이 되어 가슴 벅찬 출항, 고뇌에 쌓인 항해, 숙제를 안은 입항, 그 녹록지 않은 여정에 언제나 동행해준 고마운 친구, 나의 음악이여!

여느 기관, 단체를 막론하고 홍보의 중요성은 익히 강조되나, 우리 해양경찰 역시 관련 부서 주관으로 다채로운 수단과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활발한 대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양경찰 입직 후 첫 해상 근무를 했을 때, 일반 국민에게 해양경찰의 각종 활약상을 생생히 전달하는 경비함정 공개 행사를 접했다. 이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족한 재주를 더하여 다른 공개행사 프로그램에 색소폰 연주를 선보인 결과, 함정 방문자들로부터 박수갈채와 함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햇병아리 순경 시절 ‘경비함정에서 색소폰 부는 여경’이라는 제목의 홍보 기사로 TV는 물론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꽤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해양경찰을 널리 알렸다는 뿌듯함을 안고서 지방청 개청식을 비롯,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 해양경찰 교육원 문화행사,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등에서 발군의 연주 실력을 뽐냈다.

특히, 관내 취약 도서 주민 위문행사 시 나의 색소폰 연주에 맞춰 기분 좋게 춤추고 노래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음악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을 체험하고, 단순히 홍보활동이라는 의식을 뛰어넘어 보람, 뭉클함과 함께 어떤 뜨거운 기운을 얻어 오곤 한다.



어깨에 계급장 모양이 바뀔수록 책임감의 무게 역시 더해지지만 해양경찰 제복을 입은 내 모습에 대한 자부심 역시 그만큼 커져간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바다지만 때론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은 풍랑의 바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서 안전이라는 포구를 향해 묵묵히 항해하는 이 직업을 운명이라 여기기까지, 미숙함과 오만이 키운 나의 날카로운 가시를 유연하게 꺾어준 도구이자 메마른 가슴을 끊임없이 적셔준 청량제와도 같은 나의 음악을 사랑한다.

이제 팔순을 훌쩍 넘겨 백발이 성성한 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땅끝마을을 휘감은 정겨운 고향 바다, 그 은빛 물결이 들려주는 갯내음 물씬 풍기는 감성의 멜로디를 자양분 삼아 해양경찰로서 나의 삶이 앞으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기를... 그리하여 희망의 바다 위에 그리는 나의 선율이 파도를 타고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출렁이기를. 만선의 깃발을 힘차게 걸어 올리는 어부의 노고에 진심 어린 위로가 되기를. 나는 오늘도 간절한 바람을 품고 경비함정 태평양 15호와 함께 바다로 향한다. 부푼 희망의 선율을 가득 싣고서...



내 딸, 엄마 보물 1호 혜원에게

글_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경위 이정화

2019년 9월 6일 새벽 1시.



7박 8일간의 출동을 나와 이제 겨우 4일 지났는데 보고 싶다며 ‘빨리 엄마가 입항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엄마 보물 1호 우리 큰딸 혜원의 카톡메세지를 보고, 세상애나! 텔레파시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했어. 엄마도 우리 큰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번 출동은 엄마가 1직 근무라서 새벽에 근무교대를 하니까 ‘이 시간이면 우리 딸도 책상에 앉아 학원숙제를 하고 있겠지’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엄마가 보고 싶다는 카톡을 보고 새벽근무서며 혼자 씁쓸 웃었어.

지금 엄마가 있는 바다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이라 그런지 함정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근무 중이야. 엄마가 서해 바다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은 얼른 학원 숙제 마치고 일찍 자렴. 요즘 학원 수업도 늦게 끝나고 학교와 학원 숙제 마무리 하느라 항상 12시를 넘긴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너를 보면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고 있어 들킨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짝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딸이 돌 지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아직은 따뜻한 엄마 품에서 사랑 먹고 자라야 할 시기인데도 당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던 엄마 사정 때문에 어린 너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그때가 떠오르네. 당시에 엄마는 경찰서에서 서무업무하며 정신없이 바빠서 출근은 일찍, 퇴근은 늦게 하곤 했지. 그 시절 출근할 때 너를 어린이집 선생님께 맡긴

후에 네가 걱정돼 뒤를 돌아보면 마치 엄마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넌 너무나도 씩씩하게 선생님께 갔었어.

우리 딸보다 언니 오빠인 다른 아이들 대부분은 어린이집 앞에서 엄마랑 헤어질 때마다 엉엉 울면서 엄마들을 힘들게 하곤 했거든. 그런데 어린 너는 엄마 마음 아플까 봐 엄마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나서 너무나 씩씩하게 어린이집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었지. 그런 네 덕분에 엄마는 눈물바람으로 출근하진 않았지만, 내심 아직 어린 네가 너무 일찍 성숙해져 어른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맘이 아팠었어.

그리고 늦은 퇴근이 일상인 엄마가 일을 마치고 너를 데리러 갈 즈음엔 어린이집에 아무도 없고 우리 딸만 혼자 남아 기다려야 해서 어린이집 내에 있는 원장선생님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게 다반사였었지. 엄마 사정을 이해해주신 원장님께서 네 저녁까지 챙겨 주셨었거든. 아침 출근 시간 헤어질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너도 퇴근 시간에는 어린아이가 되더구나. 하루종일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였는지 퇴근 시간에 내 얼굴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하는 것처럼 “엄마~~~~~!”를 외치며 울면서 뛰어와 안겼었지. 엄마는 그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단다.

그리고 엄마가 주말에 해상교통계에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할 때 아빠도 출동을 나가시니 너를 맡길 곳이 없어서 너와 함께 출근해서 파출소에 잠시 맡기고 연구정을 타고 나가 음주 운항 단속을 할 때도 있었어. 주말 지역축제 기간에는 안전관리 업무로 한두 시간 걸리는 축제지역까지 너를 데리고 출근하면서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감기를 앓아 며칠씩 고생도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너도 참 용감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엄마 키를 훌쩍 넘어 어엿한 숙녀가 된 너를 보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단다. 우리 딸이 성장한 만큼 ‘엄마’라는 역할이 처음이라서 좌충우돌 직장생활 해오며 겪었던 수많은 난관들이 떠올라서 말야.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을 거야.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너를 보며 엄마가 문득 질문한 적이 있었어. “우리 딸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해양경찰이 되면 어떨까?” 하고, 은근히 긍정의 대답을 바라며 물었었는데 너무나도 의외의 대답을 했던 우리 딸.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잖아. 허둥지둥 바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며 절대 해양경찰이 되지 않겠다던 너의 말을 듣고 엄마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었어. 직장생활 하며 나름 육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너의 대답에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

한편으론 어린 너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 다른 친구들은 학교 행사에 부모님이 다 참석하는데 엄마랑 아빠는 일 때문에 참석 못 하는 경우도 많았고,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새벽부터 아빠는 경찰서로, 엄마는 파출소로 허둥지둥 출근했어. 아침 출근 때마다 항상 허겁지겁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시간에 쫓기고,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게 머리를 묶어주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어린 너도 엄마의 손길을 받고 싶었을 텐데 엄마는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치여 만이인 너를 무의식적으로 어른 취급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큰딸을 위해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생각해 냈었잖아.

우리 큰딸이 동생들에게 치이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시간 말이야. 가끔 네가 학원 가기 싫다고 하면 엄마는 그때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하자고 했었지.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카페에 가서 빙수도 먹고, 서점에 가서 만화책도 사고, 공원을 돌며 산책도 하고….

정말 일상적인 일들인데 우리 딸은 너무나도 행복해하던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시작된 너와 엄마의 둘만의 데이트.

요즘은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딸이랑 둘이서 학원 마치고 밤늦게 고기 먹으러 가고, 공차를 좋아하는 네 취향에 맞게 공차 카페에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엄마는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아. 이제 우리 둘만의 데이트가 엄마에겐 어린 시절 행복해하던 너만큼이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다. 한참 민감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이지만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할 수 있는 너의 모습도, 동생들을 폭탄들이라며 ‘잠시 폭탄들 없이 우리 둘만 오니까 너무 좋다’고 농담을 던지는 너의 모습도 엄마는 마냥 다 예뻐 보이기만 하단다.

7박 8일 출동 나가는 날 새벽에 “잘 다녀올게”라고 하면 너는 나에게 “엄마, 항상 조심해”라는 말을 하지. 그 말 속에서 엄마를 염려하고 ‘엄마가 출동 나가도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을게’라는 네 마음이 느껴져 맘 편히 출동을 나간단다.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네가 그랬잖아. 엄마는 여자인데 해양경찰이란 직업을 가지고 애도 셋씩이나 낳아 힘들 텐데도 우리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엄마가 해양경찰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했어. 우리 딸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잖아. 나는 허둥지둥 바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엄마를 위로하고 인정해주는 그 말에 너무나 힘이 났었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많이 역할을 잘해준 우리 딸에게 엄마는 정말 고맙고 대견해. 5살의 혜원이도, 지금 15살이 된 혜원이도, 미래의 25살, 35살, 45살..이 될 어른 혜원이도!!! 엄마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혜원이를 사랑한단다. 지금처럼 착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렴 우리 딸!

이번 출동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둘만의 데이트!!! 쿨???

I 나는 오늘도 독도로 간다

글_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항공과 경장 유정호

2010년 9월. 선선한 바람이 더운 여름을 조금씩 밀어내는 계절,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던 나는 문득 독도가 가고 싶어졌다. 어젯밤 TV를 통해 흘러나오던 노랫소리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가 왜 그렇게 구슬프고 처량하게 들렸었는지. 내일 일어나면 당장 독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가면 독도가 나를 반기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급조된 계획이었다. 독도로 바로 가는 배가 없으니 울릉도를 먼저 가야 했고, 울릉도에 가려면 묵호항과 포항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별 고민 없이 가까운 묵호항을 선택했다. 그렇게 출발한 여행이었다. 도착해서야 알았지만,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행 배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혼자 떠난 여행이라 취소된 표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운 좋게 배에 올라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날씨였다. 독도는 1년 중 150일만 접안이 가능했고 배가 독도까지 갔다 하더라도 파도나 바람을 고려하여 상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표는 어쩌다 보니 구했지만 과연 날씨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울릉도까지 가는 4시간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도동항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12시 무렵. 밥 생각도 없이 독도행 배를 파는 매표소로 곧장 향했다. 표를 파는 안내원에게 혼자 왔노라며 간절한 표정을 짓고는 표가 남았는지 물었다. 다행히 표도 남았고 출항도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독도 접안이

가능할지는 독도 인근에 가서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것만이라도 좋았다. 이내 풋값을 지불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가 고파오는 걸 느꼈다.

점심은 따개비 밥으로 주문했다. 손질이 까다로워 육지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식재료라 선뜻 주문했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았다. 식재료가 부족했던 울릉도에서 선박과 갯바위에 흔히 달라붙어 있는 갑각류를 먹거리로 이용한 옛 섬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였다. 그렇게 점심을 해결하고 독도행 배에 오른 시간은 오후 2시경. 씨스타 호는 경적을 울리며 독도로 출발했다.

독도로 가는 바닷길은 울릉도를 향했던 바닷길에 비해 많이 험난했다. 출항하자마자 우리를 덮친 1.5m의 파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50대분들이 많았던 단체 관광객들은 이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다들 좌석 깊이 몸을 묻기 시작했다. 커플끼리 여행 온 대학생들도 배의 울렁거림이 힘들었는지 어느새 재잘거리던 소리는 잦아들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전투기에 단련된 내 몸도 뱃멀미에는 익숙하지 않았던지 배 불리 먹은 점심이 불편해지고 있었다.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었지만, 독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파도가 높아 비바람과 싸우느라 그만큼 늦어진 것임을 안내하는 선장의 목소리는 높은 파도가 마치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미안함을 품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선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비록 오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하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독도로 접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시다. 객실에 계신 승객분들은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고 정면 독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다. 접안 후 독도 땅을 밟은 나는 제일 먼저 시멘트 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독도경비대대원을 찾았다. 그들은 배가 접안하자마자 마중 나와 준 데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도 군데군데 서 있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대원들의 어깨 견장 ‘독도경비대’에 공군 대위 신분증을 함께 비추어 인증샷을 찍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장교가 비자나 여권 없이 오갈 수 있는 곳, 독도”라는 글을 써 SNS에 공유했다. 그렇게 독도와 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8년 어느 날.

날씨는 청명했고 바람은 좋았으며 시정 또한 쾌청했다. 오후 2시 여수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남해 바다를 거쳐 동해가스전에 도착 후 약 5분간 머물렀다. 가스전 주변을 한 바퀴 순회한 항공기는 곧바로 독도 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독도까지는 약 155마일, km로 환산하



면 280km다. 항공기가 독도 상공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약 40분이 걸린다. 180kts로 비행한 항공기는 독도에 진입하기 전 우선 주변에 특이 선박이 있는지 살폈다. 며칠 전 일본 탐사선 한 대가 독도 근처에 출몰했다고 하여 주변을 살살이 살폈지만 레이더에 탐지되는 선박은 없었다. 우리나라 어선 3척과 동해 쪽으로 내려가는 상선 2척이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깨끗했다. 주변을 확인한 나는 라디오로 독도 경비대를 불렀다.



“독도경비대, 독도경비대, 여기는 해양경찰 항공기 B704, 감도 있습니까?”

“B704, 여기는 독도경비대 귀국 감도 3 by 3, 본국 감도 어떻습니까?”

“귀국 감도 역시 3 by 3, 독도 주변 15마일 내 특이 선박 없습니다. 계속 순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비행하십시오. 통신 끝.”

노랫가락에 이끌려 ‘관광지’로 찾은 독도가 이제는 내가 ‘사수하며 지켜야 하는’ 곳이 되었다. 공군 장교에서 해양경찰이 된 나는 이들이 멀다 하고 독도를 찾는다. 그리고 독도 주변을 탐색하고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가 매일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는 이곳은 우뚝 솟은 대한민국의 섬이자, 해양 생물들의 쉼터가 되고 바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영토다. 이제 독도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라 1년 365일 해양경찰이 지키고 있는, 살아 숨 쉬는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해양경찰 대원이 비자나 여권 없이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우리의 섬으로 남아있다.

I 해양경찰의 시선

글_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순경 천지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등대의 시선 끝엔 항구가 있다. 그리고 그 항구에 서서 기다리는 이의 시선 끝엔 가족들이 있다. 이것은 부모의 시선 끝엔 항상 자식이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한때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내게 당연했던 것처럼.

평범하게 소설이나 끄적거리던 내가 아무 밀천도 없이 방송국에 들어간 것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첫 직장 생활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벽이었다.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눈으로 볼 때의 세상은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순수하지만, 렌즈라는 유리알을 통과하는 순간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그 영상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묶어내는 일이 바로 작가의 몫이다. 이것을 통칭해서 ‘구성’이라 부른다. 렌즈에 찍힌 피사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작가 생활을 그만두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택한 다음 직업이 해양경찰이었다. 해양경찰에 입직해 접하는 모든 일이 처음엔 ‘맨눈’ 렌즈였다. 해양경찰이라는 명패를 보고 들어오긴 했지만 무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했다. 바다에서 하는 일이란 그저 먼 나라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경찰이라니. 내가 알던 경찰들은 법 구절을 줄줄 읊고, 산만한 덩치들을 한 손으로 제압했다. 덩치만 크지 겁도 많고, 폭력은 꿈쩍이 싫어하는 내가 말기엔 영 벅차 보이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28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간신히 하나 배운 거라곤, 세상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맞춰야 한다는 잔인한 사실이었다.

어렵사리 마음은 잡았어도 실천에 옮기는 건 역시 쉽지 않았다.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들어가게 되면 챌린지 훈련을 받게 된다. 체력 증강과 해양경찰로서의 기강을 잡는 기간이기 때문에 외출, 외박 금지는 물론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것도 금지된다. 물론 사제 간식도 반입금지다. 게다가 매일 아침 총원이 오와 열을 맞춰 구보 훈련을 받는데, 단연 압권이다. 존경하는 해양경찰 선배님들과 친애하는 동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나에겐 달리기야 가장 큰 문제였다. 챌린지 기간에는 다섯 바퀴를 시작으로 하루하루 한 바퀴씩 더해 최종적으로 열네 바퀴를 달려야 한다. 국문학과 출신에 한때는 연극 배우. 또 성우 지망생이었다가 소설가, 방송작가 등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달리기’를 요구한 직업은 없었다. 버스 잡을 때 외엔 달려본 적이 없던 과거의 나를 반성해봤자 이미 늦었다.

‘해양경찰은 배 타고 범인 잡는데, 달리는 건 배지 내가 아니지 않나.’ 지금 보면 신입 때의 생각이란 다 이렇게 제멋대로고, 한심한 모양이다. 달리기를 마음 깊숙이 싫어하니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날 오른발을 빼고, 네 번째 날 왼발을 빼었다. 양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돌아다녀 꼴이 우습기 그지없었다. 흡사 티비에 나오는 좀비 같았다. 동기들은 절뚝거리는 내 뒷모습만 보고도 누군지 알아맞혔다. 그 와중에도 배는 고파서 밥을 고봉처럼 쌓아두고 먹었다. 아마 해양경찰 체면, 반은 내가 다 깎아 먹었을 것이다.

달리기도 달리기였지만, 더 큰 난관은 따로 있었다. 챌린지의 마지막 날은 특별히 18킬로 산악 행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내 다리로 행군은 절대 무리였다. 상태를 알고 계신 교수님들도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오기에 사로잡혀 오히려 참가하겠다고 부르짖었다. 이것도 못 해낸다면 해양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탓이었다.

하필 또 산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만큼 가파른 비탈이었다. 걸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결국, 나는 뒤처져서 대열의 맨 끝을 따르게 됐다. 내 뒤에는 언제나 부상

병을 태우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응급차가 따르고 있었다. 응급차와 나의 간격은 1m 남짓했다. 간신히 한 발 떼면 ‘부릉’, 두 발 떼면 딱 그만큼 ‘부르릉’ 거리며 바짝 뒤를 쫓아왔다. 성가시게 굴지 말고 얼른 포기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올라가는 일보다 더한 고난은 내려가는 일이었다. 비탈을 구르듯이 내려오면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어르신들은 산 오르면서 병을 잊고, 산 내려가면서 병을 얻으신다는데 나는 오르며 병 얻고, 내려가면서 직장을 잃을 모양새였다. 멀어지는 동기들을 영영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았다. 이 길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두 동기가 내 곁으로 왔다. 예의상 몇 마디 주고받고 또 혼자 굴러가려는데 은근슬쩍 팔을 내미는 게 아닌가. 나는 힘든 나머지 거절도 않고 덩석 부여잡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서럽지는 않았다. 더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동기는 충실한 내 두 다리가 되어 18킬로 산악행군의 끝까지 함께했다.



부진한 체력으로 인해 낙오와 실수로 범벅된 기억이다. 자랑스러운 건 없지만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우는 법이다. 다만 나는 이날 이후로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내리고. 찢뚱이는 다리로 걷다 동기들의 두 다리를 빌리고. 어쩌면 해양경찰로서의 생을 압축해 경험해 본 것일지도 모른다. 나를 두렵게 만드

는 것은 이 직업이 평생토록 지녀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수많은 의무였다. 바다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이 되고, 오염이 생기면 청소부가 되고, 도둑이 있으면 경찰이 되는 게 해양경찰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렵고 힘들어 포기해버리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험해 질지 모른다. 찢뚫이는 다리로도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 경찰은 그러해야 했고, 해양경찰은 더욱더 그러해야 했다.

내 렌즈를 통해 본 해양경찰의 시선은 한결같이 곧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다른 곳을 바라본 적이 없다. 부모의 시선 끝에 아이가 있듯, 해양경찰의 시선 끝엔 항상 국민이 있다. 우리가 소리치는 건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닿기 위함이고, 우리가 뛰는 것은 누군가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다. 언젠가 나도 그 시선을 갖추게 되면 내 챌린지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쿠시마에서 가져오지 못한 도시락통

글_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경위 윤해진

2003년 7월, 고민 끝에 해군 대위로 전역한 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 가족이 먹고살기에 충분히 월급을 주는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와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을 알고 있는 형님가족의 배려로 형님네 근처에 이사하여 살았으나 이것 또한 한 달 두 달이지 신세 지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수영장 아르바이트와 과외 돈벌이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해 늘 형님에게 손 벌리기 일쑤였으니까요. 거기다 토익 학원이며 도서관, 독서실 등 80만 원 수입 중에 절반을 제가 가져가 버리니 분유, 기저귀값 제하면 남는 게 없던 저희 부부는 계속 야위고 예민해졌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피곤해진 채 집에 돌아온 저는 아이의 작은 응석으로도 짜증을 내니 아기 엄마 역시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전역하라 그랬다고 나 자꾸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일하는 것 힘들잖아! 일본에 가자, 내가 일하고 당신은 공부하면 되잖아.” 아내의 청은 나날이 절실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6년간 직업군인의 아내로서 지내온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문화 차이로 인해 상처받던 일상(당시 아내 나이 23살에 외딴 오지 생활)이 많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6개월만 일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시댁의 반대도 있었으므로)을 받고 온 가족이 처가댁이 있는 후쿠시마로 떠납니다. 아내는 어린 두 아이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편의점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시험 공부를 위해 작은 도서관(우리나라의 독서실과 열람실 같은 곳이 일본의 작은 도시에는 없다)에 다녔습니다.

후쿠시마 마을의 도서관은 매우 작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바닷가와 산이 병풍처럼

돌러있는 작은 산 어촌 마을에서 도서관이 있는 읍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오가는 시간이 각각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낮에 밥을 먹기 위해 왕복 1시간을 오고 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밥 먹으러 이동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어서 밥을 거르기 일쑤였는데 이는 장모님의 화를 돋우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맘에 안 드는 백수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데 밥을 차려 놓고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저로 인해 모녀는 답지 않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도시락, 장모님은 어느 날 시간을 내어 저를 큰 마트에 데려가서는 보온이 되는 도시락통을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삼단 도시락통을 골랐고, 장모님은

“앞으로는 도시락을 싸 줄 테니 밥 거르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

라고 하고는 6개월을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는 정없는 얼굴로 내밀었습니다. 시골 읍내라 매번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소문날세라 사람이 많지 않은 도서관 고서적이 많은 칸 모서리 책상에서 몰래 도시락을 먹고 다시 공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아침 일찍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있는 한국사람을 이제는 다 아는 눈치고 오히려 더 소문이 나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처량해 보였지는 모르는 척(도서관 안에서 도시락 먹는 행위는 금지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같이 매번 일정한 시간에 오는 일본인인지라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마주쳤고 나중엔 서로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반복되는 마주침에 그들도 점점 친밀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특히 관장은 늘 문을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던 저를 생각해서 5분 일찍 문을 열고는 ‘어?’하는 제 표정에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2004년 5월, 저는 6개월간의 공부에 대한 테스트 겸 해양경찰 공채시험을 보기 위해 가족을 두고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의 도시락통은 부피가 크기도 하고 시험에 불

합격하면 아이들이 있는 일본으로 어차피 다시 가야 해서 우선은 일본에 그대로 두고서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저는 첫 시험에 합격했고 순경으로 임관하였습니다.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직업을 잃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안심 하였고 아이들도 더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잠깐 일본 처가댁을 방문할 때마다 수험을 준비할 당시 도서관을 드나들며 알게 된 직원들,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을 마주치면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냉랭함은 시험합격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의 딸이 결혼해 逃韓(한국으로 떠남)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게 아내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게 유독 차가운 장모님의 행동과 말에 장인어른, 처형, 처 가족 모두가 ‘이제는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자꾸 혼자만의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을 속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장모님의 손을 잡고서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 줄 성숙함이 당시의 제겐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굳이 필요치 않고 소용없는 도시락처럼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1년 3월, 점심시간에 짬을 내 경찰서와 가까운 은행에 개인보험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앉아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천장에 달려있던 TV를 통해 마치 내가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 시공간을 초월한 우연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일본 쓰나미로 처가댁 마을이 순식간에 파괴되어 사라지는 장면, 어디서 본 듯한 사람들이 건물에서 어서 오라고 소리치는 장면(도서관에 사람들이 피신했다. 하지만 관장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다가 차와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이 저만 정지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연락했고 아내는 급히 처가댁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울부짖었습니다.

연락이 두절 된 후 3일째, 앓아누운 아내에게 처가댁 근방에 사는 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모두 다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 쓰나미가 덮친 장모님은 실종되었다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대피실에 있고 지금은 대피소 공중전화로 잠시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센다이 공항이 부분 개방된 후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처가댁은 쓰나미가 휘몰아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반은 남았고 반은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절반의 공간을 남기고 사라진 부엌은 도시락이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장모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늘 ‘도시락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도 막상 짐을 쌀 때가 되면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짐 되니깐 도시락 잊지 말고 가져가라던 장모님의 말을 너무나 가볍게 흘려들었나 봅니다. 늘 가져와야지 하면서도 짐을 꾸려 한국에 올 때면 다시 그 자리에 남겨 놓았던 도시락. 해양경찰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나중에 집도 사고 네 아이들(두 명이 더 태어남)도 어느 정도 커 부모 손이 필요 없게 되면 그때 장모님을 한국에 꼭 한번 모셔와야지 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도로 남겨 놓았던 도시락처럼 중요한 일이 생기면 뒷전으로 두고서 불편해한 장모님과 저의 관계는 늘 物我(물아)처럼 무생물 사이였습니다.

후쿠시마 어딘가에 묻혀 있는 도시락.

해양경찰이라는 직장을 갖고,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의 세월이 다 되어가도 삼단 도시락을 보면 자동 공식처럼 통명스럽게 툭 건넌 그 장면과 찬장에 자리 잡은 그 生物(생물)이 떠오릅니다. 미처 풀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 인생의 숙제처럼 후회가 되니 기억을 꺼내어 되짚을 때마다 뻗은 가슴을 툭 치고 바다를 봅니다.

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저 바다 어딘가에 그래도 녹슬지 않고 온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작가소개 : 윤해진(만 44세)은 현재 포항해양경찰서 P-11정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3년 7월, 6년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일본에 간다. 그다음 해 2004년 해양경찰 공채순경 시험에 합격, 임관하게 되고 포항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 후쿠시마 쓰나미로 장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리고 원전폭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후쿠시마에 남아 있던 장인어른도 금년 3월 쓰나미가 발생한 날과 같은 날 돌아가신다.

이야기는 어린 딸과 결혼한 사위가 경찰시험을 준비하며 일본에 있을 때 그에게 싸준 장모의 도시락을 주제로 시작된다. 글쓴이는 최근 후쿠시마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쓰나미에 파괴된 마을이 헐리고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의 도시락통을 떠올렸다고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 일본인 아내는 일본인에게 한국역사 바로 전달하기, 일본의 해상제도와 법률을 번역하여 해양경찰에게 전달, 한국 정부 의뢰 번역활동, 일본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 법과 후쿠시마 위험성 알리기(CBS 방송출연) 등 국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글쓴이는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재학 시 포항 흥해읍 소재 한동대에서 지진이 발생, 많은 재학생 트라우마 치료에 동참하였고, 현재 아내는 경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 박사과정으로 위덕대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한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일 차 문화 교류활동을 통해 정확한 한국 역사를 전파하는 한편, 다소리 세오녀 합창단 활동으로 자기와 같은 우울증 염려 이주 여성을 적극 동참시키고 있다.

덕분에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양경찰청 수필집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를 펴낸 디자인전문회사 (주)착한넷 직원의 해양경찰서 체험 수기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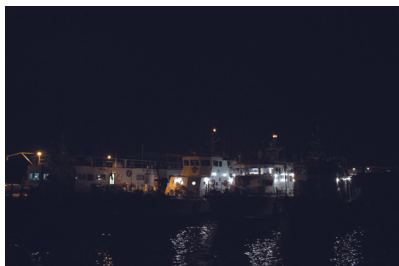
취재·인터뷰·사진_김현미
글·편집_김현미, 김지현

“일반인이 해양경찰의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일과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걸 하나의 기획원고로 넣어보는 거 어때요?” 먼저 제안한 건 나였다.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취재처가 몇 곳으로 좁혀졌고 취재원이 정해졌다. 나였다. 원래 가위바위보 제안한 녀석이 술래 되고, 말 꺼낸 사람이 그 일 하게 된다. ‘해양’을 전담하는 경찰이 따로 있던 것도 몰랐던 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산 영도구 바다 위 형사기동정에서 하루, 수영구의 해양경찰서 광안리파출소에서 하루, 총 이틀간의 취재에 나섰다.



첫째 날, 부산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

#1.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택시를 탔다. 처음 가보는 장소인데다 사방이 어두컴컴해서 부산해양경찰서 입구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약속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소형 정들이 모여있는 부두 앞에서 해양경찰청 쪽 취재 담당자를 기다리며 출항 준비 중인 함정을 바라보았다. 캄캄한 바다 위, 반짝이는 불빛이 예쁘다.

잠시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해양경찰의 업무는 크게 ‘함정 업무’, ‘파출소 업무’, ‘사무실 업무’로 구분되고, 나는 오늘 ‘형사기동정’ 직원분들과 ‘함정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을 함께할 거다. 형사기동정의 주 임무는 다음과 같다.

“형사기동정은 평온한 해상 치안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각종 해상범죄 초동조치 및 수사 활동
- ② 생계침해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
- ③ 우범해역, 항포구 범죄예방, 취약시간대의 양식장, 입해시설 등 해상순찰 활동

어제까지만 해도, ‘배를 탄다’는 것 외에는 그간의 취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올 한 해 동안 홍길동처럼 전국 방방곡곡의 취재처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드나들었다. 별걱정은 없었다. 분명 없었는데.. 회사에도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대수롭지 않게 왔건만,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탓일까? 걱정 섞인 목소리와 표정들이 밤바다 위로 떠올랐다.

‘괜찮겠어? 너 멀미하잖아. 계속 배 위에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긴 시간 취재하는 건 처음이지?’

배를 타면 멀미를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긴 시간 취재하는 게 처음인 것도 맞다. 게다가 하필 오늘 취재하는 형사기동

정은 일제 검문이 있어 평소보다 이른 새벽 6시에 출항한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생각보다 힘든 거 아냐?’

전까지 잔잔하던 가슴에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다. 긴장을 한 모양이다. 나는 다시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겐 너무나 생경한 모습인데, 오늘 만날 해양경찰들에겐 익숙할 새벽 바다. 목표는 ‘체험’이다. 오늘 하루 달랑 함께 배에 오른다 해서 그들의 이모저모를 감히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거다. 다만, 나와는 다른 업을 가진 이들의 일상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오늘 취재는 의미 있다. 마음을 다잡고 시간을 확인한다. 5분 남았다. 12시간 가까이 타고 있어야 할 형사기동정에 여자화장실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어, 배에 오르기 전 일부러 부두 앞 화장실을 찾았다.

아... 성별이 따로 적혀있지 않은 걸 보니 아마도 남자화장실인가 보다. 시작부터 쉽지 않다.

#2.

배에 올라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전에 인천소방본부의 소방정대 취재를 간 일이 있었는데, 한 팀이 5~7명 정도였던 소방정대와는 달리 형사기동정엔 11~12명의 직원분들이 계셨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던데다 어둠 속에서 모두 똑같은 정복을 입고 계시니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12시간 후 배에서 내릴 때까지도 헷갈렸다) 파란색 상의를 입으신 정장님만 유일하게 제대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더니, 형사기동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다.

“해양경찰의 함정은 대형, 중형, 소형 함정과 특수정으로 나뉘는데 지금 타신 형사기동정은 이중 특수함정에 해당해요. 오늘은 다음 주에 있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해 안전위해 선박이나 불법 선박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일제 검문검색을 할 겁니다. 육상에 있는 수사과 형사님들과 저희 부산서에 있는 형사기동대가 탄 기동정까지, 함정 두 척이 육·해상 합동으로 일제 검문검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보다 빨리, 새벽 6시부터 출항하게 되었네요. 기자님은 하필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바닷길 오르는 날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웃음).”

(하하) 오히려 더 오래 해경분들을 밀착 취재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여기기로 했다.

“아직 많이 어둡죠? 일단 부산 북항 안쪽의 방파제부터 한진중공업, 부산대교, 자성대 부두 순으로 항해하면서 주변에 활동하는 선박을 살펴요.”

부산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은 부산의 전반적인 해상영토를 순찰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순찰대상이 될만한 몇 가지 불법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화물선의 과적과 낚시배들의 과승을 단속하는 것. 반대로, 사람이 기준치보다 덜 탄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한 척의 배를 몰고 이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있기 때문.

“떠다니는 모든 선박을 검문검색할 수는 없고 둘러보다 ‘의심이 간다!’ 하는 선박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려는 낚새를 발견하면 그때 저희가 가까이 갑니다. 실제로 저희 형사 요원들이 그 배에 옮겨타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죠.”

직접 의심 선박에 올라타시는구나.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시는 걸까?

“음.... 예를 들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차선을 따라 쪽 가야 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운전자가 졸고 있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선박들도 통상적인 운항형태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간다든지, 도로처럼 바다에도 항로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엉뚱하게 가는 걸 보면 줄음운항이나 음주운항일지도 모른다 짐작하죠. 혹은 하역작업 같은 걸 하는데 기름이 바다에 새는 것 같다, 하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정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직원들의 보고가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정장님은 짧게 대답하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형사기동정의 직원들은 언제나 ‘촉’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형사기동정이 가지는 특수성은 함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형사’로서 기능한다는 데 있다. 적발의 수순까지만 가능한 일반 경비함정과는 달리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요, 저희의 가장 큰 핵심 목표는 여기 바다를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바다 위로 아침노을이 붉게 번졌다. 고요하면서도 웅장하다.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건 없는 모양이다. 내가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어 미처 몰랐을 뿐, 어딘가에서 또 다른 파수꾼들이 어떤 ‘풍경’을 지키기 위해 아직 새까만 하늘을 보며 몸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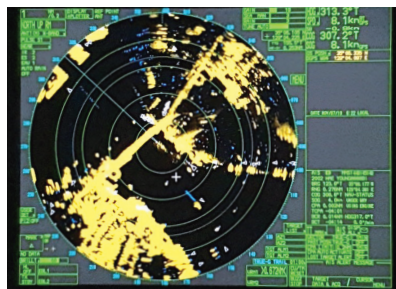
#3.

조타실로 올라왔다. 밖은 아직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둡혔고, 조타실 내부는 그보다 더 캄캄했다. 좁은 공간 안 직원들은 깊은 밤 숲 속 부엉이처럼 눈만 말갭게 동동 떠 있다. 내부가 어두워야 밖이 더 잘 보인다.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으로 바빠 보이는 항구. 바

다와 산에서 점처럼 반짝이는 초록, 붉은빛이 눈에 들어왔다.

“재들은 배가 안전하게 항구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표지판 역할을 해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어서였을까? 묻기도 전에 반짝이들의 정체를 알려주신다. 산 중턱에 있는 초록빛 2개가 일직선으로 보이는 지점으로 직진하면 밖에서 부산항 안까지 방해물 없이 단번에 항해할 수 있다고 한다. 바다 위 녹색빛과 붉은빛은 도로 위 ‘차선’과 같이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일종의 ‘배선’이다.



조타실 내부엔 처음 보는 장비들이 아주 많았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노란색 덩어리(?)가 가득한 정체불명의 모니터. 검은 배경 위로 노란 점들이 사방에 찍혀 몇 개의 덩어리를 만든 모습이 언뜻 보기엔 우

주에서 바라본 밤하늘 같다. 내 눈에서나 그렇지, 점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해양경찰분들겐 보일 리 없는 그림이다.

오전 8시, 아침밥을 먹는다. 근처 항구에 발이 묶인 형사기동정이 움직임을 멈췄다. 덕분에 출항한 후부터 계속 흔들리던 바닥이 잠잠해졌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집이나 회사에서도 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데 취재 온 배 안에서 갓 만든 집밥(뱃밥인가?)을 먹게 될 줄이야. 심지어 굉장히 맛있다. 조리장님의 요리실력이 대단하다.

형사님 한 분이 전날 유류사업 미신고 건을 조사하기 위해 기동정에서 내리셨다. 마침내 밝아진 해상 위로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동백섬 등 부산의 명소가 훤히 드러났다. 땅 위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 혹시 해양경찰분들의 수필에 풍부한 감성이 묻어나던 게 이런 풍경을 매일 보는 덕일까?



섬 ‘생도’까지 순찰을 돌았다. 낚시객들이 많은 구간인데, 아니나다를까 보기만 해도 위험하게 테트라포드를 넘나드는 이가 있었다. 절로 목이 탄다. 금방이라도 매끈한 테트라포드들 사이로 빠질 것만 같다. 정장님은 수화기를 통해 조심하라는 안내 신호를 보냈고, 다행히 낚시객은 알았다는 듯 크게 손을 흔들고서 더이상 아찔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정장님 얼굴이 밝다. 사과의 ‘예방’ 역시 이들의 일이다.

#4.

형사기동정 직원들은 2교대로 근무한다. 오전 10시에 형사기동정을 타고 출동하면 24시간 후 오전 10시에 입항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후 6시까지 해양경찰서 안에서 근무 후 퇴근한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는 쉬는 방식이다. 어디까지나 ‘기본’은 그렇다. 태풍이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선박 안전관리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길어지고 국가적으로 특별한 이

벤트가 있더라도 하면 항해 일정은 2박 3일, 3박 4일로까지 늘어진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쉬는 날엔 어떻게 보낼까?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는 직원 한 분을 붙들었다.

“비번 날이요? 쉬는 날엔 애를 봐요. 육아를 하죠(웃음). 또 틈틈이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둬요. 일정이 빡빡한 편이다 보니 건강한 체력이 필수거든요.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형사기동정 직원들은 늘 같은 멤버로 일한다. 서로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져야 하니, 같은 얼굴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는 편이 확실히 좋을 터다. 그것도 6년 동안이다만. 한 지역에서 단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근무지가 바뀌면 동료들과 헤어지는 건 물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기도 한다.

“선택이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가족이 다 함께 근무지 근처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녀가 제법 자란 상황이면 애들도 학교생활을 하잖아요. 아이들 전학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은 혼자 오죠.

혼자 근무지 근처로 옮겨와서 자취해요.”

그는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하고 덧붙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 집으로 돌아가면 보고픈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긴 직업임은 확실하다.

“저희 애기가 이제 15개월 됐거든요. 제가 보통 이들을 밖에 있다가 하루 집에 들어가는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기가 정말 많이 커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빨리, 또 많이 커 있어요.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웃음).”

기분 탓, 아니실 거다. 티비에 나오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아이들도 회차마다 모습이 다르다. 모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 모두의 (랜선)이모로서 장담하건대, 애기들은 찰나에도 자란다.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애가 혹 자라있는 거. 힘들다고 한다면, 아이가 겪는 그런 성장의 순간에 아빠로서 다 함께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그 정도요.”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곳 직원들은 각자 돌아가며 쉬는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사건이 생기면 원래 정해진 당직 인원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 결국은 총원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원칙은 본인 당직 시간엔 당직을 서고 휴식 시간엔 휴식을 취하지만, 현실적으론 갑작스레 움직일 일이 많아 직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땀이 날 때 얼른 쉰다’. 여기나 저기나 원칙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실 때는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잠깐 눈을 붙여요. 만약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쉬는 시간도 없이 올나이트로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뭐, 그게 다 저희 일이니까요.”

본인이 가진 직업의 ‘특수성’을 업의 일부분으로서 인정하고 끌어안는다. 이 배 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담담하고 묵묵한 태도를 지녔다. 기동정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매 출항마다 기본 하루 이상 배 위 생활을 하는데, 짐을 쌀 때 매번 꼭 챙기는 물건은 뭘까?

“저는 속옷 말고는 따로 챙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속옷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긴, 속옷도 안 챙기는 직원 있을 거예요. 뭐 1박 2일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웃음).”

같이 제법 크게 웃었다.

“필수적으로 속옷은 두 벌씩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저희는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인명 구조 활동도 잦거든요.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입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옷을 바뀔 입을 새가 없어요. 보통 입고 있던 옷 바로 위에 슈트를 입고 풍덩, 하죠. 그러니 직원분들 대부분 속옷은 여분을 준비해오시는 편이고요. 음, 그것 말고 다들 어떤 걸 따로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듣고 있던 옆의 다른 직원분이 거든다.

“기본적인 부분들이요. 세면도구라던가, 실 때 입을 옷들은 전 직원들이 챙기는 것 같고요. 저는 특별히 ‘마음가짐’을 준비해

읍니다(웃음).”

이번에도 같이 웃었다. 너스레처럼 말했고 또 그렇게 들린다만, 웃음짓던 동료가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거리지만 맞는 말’이란다.

“1박 2일 동안 아무 사건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요. 혹여 사건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고 바다 위를 평온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저희 형사기동정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이 분명 필요하죠.”

정리하자면, 해양경찰로서 형사기동정에 오르려면 ‘여벌옷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5.

점심식사 시간, 형사기동정은 다시 한 번 묶였다(식사 시간마다 항구에 묶여둔다). 이 녀석이 빨리 다시 출동하자는 듯 제자리에서 출렁이는 바람에 멀미가 스물스물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침 식사만큼이나 점심도 맛있어서 어찌 됐든 식판은 말끔히 비웠다.

정장님께서 잠시 쉬라며 특별히 방 하나를

내어주셨다. 아마 정장님께서 쓰시는 방인 듯한데, 함 내에서 가장 클 것임에도 협소하다. 취준생 시절 쓰던 고시원 방 크기 정도. 하나 덧붙이자면, 형사기동정 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며 단 하나. 탑승 대원분들의 노고에 비해 함정 내 환경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공간다운 공간에 들어왔던 아늑함 때문이었는지, 책상에 기대자마자 누군가 공기 중에 수면가루라도 뿌려둔 듯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20분 정도 눈을 붙였을까, 분주한 김새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덜컥 놀라 비몽사몽한 상태로나마 조타실로 뛰어 올라갔다. 그 사이 기름유출 사고 신고가 들어왔단다. 직원들은 이미 상황실과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배 앞쪽의 선수에서 대원들 몇이 기름이 보이는지 확인하며 수신호를 하고 있다.



아. 형사기동정은 은근하고 꾸준히,분주하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름 냄새가 진하게 올라와 코를 막았는데, 육안으로는 도저히 기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막연히 거뭇한 색의 기름띠가 푸른 바다 위를 흥건히 감싸고 있을 거라 상상했는데 말이다. 형사기동정은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파도를 일으켰다. 단순히 기름을 찾기 위해 계속 맴도는 것이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파도를 일으켜 묻쳐 있는 기름을 분산시키는 과정이란단다.

“이렇게 기름이 분산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증발해요. 바다는 다시 깨끗해질 거고요.”

기름 유출사건을 해결한 후, 오후 내내 선박들 불시 검문이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면허증, 선적증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한다. 작은 부분은 계도조치로 끝나지만 혐의가 발견될 경우는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수사과에 넘긴다. 최종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까지.

육지 위에선 보통 한쪽 길목으로 차량을 통

제한 후 음주측정 혹은 검문을 실시할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한 단계씩 더 번거로워진다. 멀리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망원경으로 살핀 후 의심선박에 직접 한 곳 한 곳 돌아다녀야 한다. 계속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 형사기동정을 의심선박에 어느 수준 이상으론 가까이 붙일 수 없고, 그 때문에 다리를 있는 힘껏 쭉 뻗어 선박 위를 넘나드는 대원들의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

검문에 딱 걸린 이들은 속으로나마 투덜이겠지만, ‘이게 다 너희 잘되라고 그러는 거여~’ 늘 듣는 이 말, 지금 딱이다. 바다 위 음주운항은 도로 위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방향타를 잡은 배의 주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크게 다칠 수 있다. 형사기동정 직원들은 ‘이 바다 위를 넘나드는 함정들이 모두 다 안전하라’고 오늘도 이른다.





“오늘 불시 검문은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수확 없이(?) 끝났네요. 다들 안전 법규를 잘 지켜주셔서 다행이에요.”

형사기동정의 꾸준한 관심으로 해양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모양이다. 확실히 누군가 감시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각 개인은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부디 아무 수확 없는 불시 검문이 되길.

#6.

노을이 진다. 형사기동정은 본 목적지에서 잠시 방향을 틀었다. 일일 손님이었던 나를 땅에 내려주기 위해서였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나는 약 12시간 만에 배에서 내렸지만, 형사기동정과 직원들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을 지나 아직 좀 더 기동할 거다.



둘째 날, 부산해양경찰서 광안리 파출소

#7.

두 번째 취재를 위해 부산 수변공원 옆 광안리 해양파출소를 찾았다. 형사기동정에서 내린 바로 다음 날이었다. 아침 8시 30분. 약속한 시각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로 신기하면서도 어색한 상황. 나는 해양경찰서 사무실이 처음이고, 해양경찰분들은 취재기자가 처음이다.



해양경찰의 업무 중 ‘파출소 내 사무업무’가 이루어지는 여기 이곳은 아침 교대를 위

한 인수인계가 한창이다. 새벽의 고요함에
서 점차 분주해지던 형사기동정의 분위기
완 달리, 광안파출소의 아침은 시작부터 활
기를 띤다. 회의는 모니터에 자료를 띄워놓
고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모습은 우리 회사와 크게 다르진 않다.



전체 회의 후엔 조별회의, 팀별 회의가 이어
진다. 팀별 회의까지 마친 후에도 특이 사항
이 있으면 개별로 다음 회의를 한다. 모든
업무가 서로 원활히 교류되어야 예기치 못
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8.

어제 온종일 바다 위에 떠 있었으니 드디
어 흠 좀 밟나- 기대했건만, 직원분들을 따
라 이동하니 또 바다와 배가 보인다. 형사
기동정보다 작지만 웅골찬 자태를 뽐내는
연안구조정. 미국 해경, 코스트가드의 구조
정을 참고해 작년에 만들어진 신상으로, 뒤
집혀도 다시 돌아오게끔 설계된 아주 똑똑
한 배란다.

광안리 파출소 해양경찰 직원들은 연안구
조정과 구조정 안의 장비를 구석구석 점검
한다. 장비를 들었다 내렸다 눈코 뜰 새 없
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매일 아침 흔한
풍경이란다.



“배는 차와 달라서 급한 상황이 생길 때 바
로 출동하려면 항상 예열을 시켜놓아야 해
요. 기본적으로 5명은 타야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고요.”

연안구조정은 상황 발생 시 4분 안에 출동하기 위해 언제나 제 몸을 달궈놓는다. 안에는 조향 장비, дай버 물갈퀴·수트 등의 구조 장비, 오염 방재 장비인 유착포, AED·약품 등의 구급 장비가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끼진 못했는데, 배 점검을 마친 자 이미 10시를 훌쩍 넘겼다. 점검을 마친 연안구조정은 텅털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로?’ 하는 순간 바닥이 쿵거리며 물보라를 헤쳐낸다. 배뿐만 아니라 광안리파출소 직원들 역시 놀이 되어 있는 듯하다.

“오늘은 한 아세안 행사 준비 관련한 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연안구조정의 유류 수급을 하러 갈 거고요.”

유류수급은 배의 동력이 되는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반갑게도 주유 장소는 어제 갔었던 부산해양경찰서다. 밥 먹으러 간단 걸 눈치챈 건지 연안구조정이 물살 가르는 속도가 제법이다. 뱃길로 왕복 한 시간 거리. 다행히 파도가 잔잔해서 멀미를 하지 않았다.

“기자님이 배 타서 멀미도 좀 해보고 힘들어야 글을 더 생생하게 적어주실 텐데요~”

무서운 농담이다. 그리 말해놓고 ‘배가 나가는 순방향으로 앉고, 창밖 풍경을 멀리 내다보면 멀미가 덜하다’며 밖을 가리키는 과장님의 손짓이 감사하다.



소형함정인 연안구조정은 자리에 앉으면 얼굴 옆 창문으로 밖이 바로 보인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실처럼 반짝인다. 비 온 뒤 햇살에 빛나는 거미줄 같다. 우려와 달리 멀미를 하지 않은 건, 과장님 조언을 따라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집중했기 때문일지도.

유류수급 장소 영도에 가까워지자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형사기동정 식구들이 출동에서 돌아와 배를 정비하고 있다. 어제저녁, 내가 기동정에서 내린 이후로도 쪽 항해하다 마침내 입항한 것이다. 단 하루였지만,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한 특별함 때문인지 그새 친한 친구처럼 반겨주셔서 나도 팔을 힘껏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 다시 헤어지는 길엔 형사기동정 대원분들이 광안리 파출소 대원분들께 나를 잘 부탁한다며 당부 인사까지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9.

몇 직원이 연안구조정에 기름을 채우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방독면 등의 장비점검을 한다. ‘점검’이 참 잦은 직업이다.

“무조건 ‘점검’과 ‘예방’이 첫째예요.”

뒷수습보단 앞수습. 이렇게 모인 작은 앞수습들이 바다 위 거대한 안전 울타리가 된다는 건, 전날 형사기동정 불시 검문에서 이미 확인했다.

배불린 연안구조정과 함께 다시 광안리 파

출소로 향한다. 선미 쪽 대원 한 분이 서류에 원가를 체크하기에 옆을 기웃거렸더니, 지금처럼 바다를 순찰할 때는 어떤 종류의 배를 몇 척 보았는지 모두 적어야 한단다.

“지금쯤 파출소 내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 처리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양경찰들은 현장업무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페이퍼 워크(paper work)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서류화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돌아온 광안리 파출소 안은 정말로 서류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은 각종 민원 업무를 정리하고 때때로 팸플릿과 플래카드를 제작해 조금이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해양경찰의 업무 중 ‘파출소 업무’이자, ‘사무 업무’를 동시 진행하고 있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분들이 어릴 때부터 해양 관련 체험을 많이 해서 바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이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귀 하자마자 신당출장소로 났시

배 인원 점검(이하 “인검”)을 나섰다. 낚시 배 인검은 서류에 적힌 인원과 실제 낚시배에 탑승하는 인원이 맞는지 점검하는 검사다. 예전에는 과승을 하는 불법 어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가 훨씬 줄었다고 한다. 낚시객들은 모두 협조적이었고, 카메라를 맨 나를 향해 사진을 찍는 줄 아셨는지 웃는 얼굴로 포즈를 취하기도 하신다.



“국민분들 안전 인식이 정말 많이 변화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어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생긋 웃음 짓고서 손을 흔드는 낚시객을 들여다보던 과장님은 뒤에 말을 덧붙였다.

“저희도 그래요. 해양경찰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쓴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가슴 아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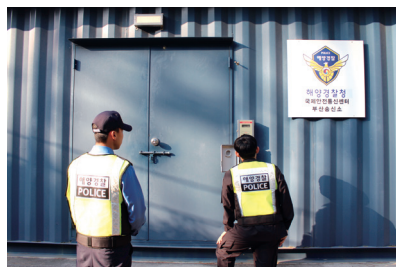
지만,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더욱 좋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에 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번 낚시배에도 과승이나 과적이 없었고 필요 서류를 모두 갖췄다는 표기였을 거다.

“그 과정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고마워요.”

과장님은 확인이 됐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다. 마침내 설렘을 담은 낚시배가 바다 위로 나아간다.

#10.



인검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밝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 송신소 기지국에 전파 점검을 가거든요.”

그게 오늘인 걸까? 해양경찰 직원분은 멋쩍게 웃었다. 역시 가는 날이 장날이다. 잠시 엉덩이 붙일 곳을 찾던 나와 직원분들은 곧장 산 위에 자리한 송신소로 향했다. 전파의 송신과 수신에 잘 되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작업이었고, 이 일을 마친 후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낚싯배 인검이 진행됐다. 과장님과 점심으로 먹은 치즈돈까스는 잦은 이동에 소멸된 지 오래다. 나는 인원 점검이 한창인 대원분 뒤쪽에서 슬슬 과부하가 오는 다리를 주물거리며 서성였다. 전날 취재부터 휴대폰에 무언가 끄적이기 시작한 메모들이 서른 개를 넘어갈 무렵이었다.

‘팔에 로고가 다르네?’

또 메모 거리 하나를 발견했다. 해양경찰 직원들 대부분 ‘해양경찰’이라고 쓰인 로고를 어깨에 달고 있는데, 다른 어떤 분 팔에는 ‘SSRT’라고 쓰인 직물이 붙어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SSRT’는 ‘secret special rescue team’의 약자로 SSRT 대원들은

기관 내 업무와 항해를 주로 하는 일반대원과 달리 ‘구조대’로서 특화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 시험이 아닌 여러 종류의 특채를 통해서만 선발되고, 해경이 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시험을 쳐야 한다.

“여기 광안리 파출소 말고 다른 곳에는 아예 SSRT 대원으로만 구성된 특별 구조팀도 있어요. 광안리 파출소보다 그쪽이 훨씬 더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취재할 게 많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하)

#11.

차를 타고 다시 파출소로 복귀하던 중 신호등 신호에 걸렸다. 잠시 후 우리 옆으로 노란색 유치원 차량이 멈춰 섰다. 남자아이가 나를 유심히 살펴본다. ‘아, 내가 경찰차를 타고 있으니 재 눈에 나도 경찰로 보이나?’ 싶었다. 손을 흔들었더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 옆의 여자아기도 왜인지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에 양손을 다 흔들해주었다.

꽤 긴 신호대기 시간 동안 손짓·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두 아이는 썩 행복해 보인다. 해양경찰은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직업인가보다. 존재만으로 꿈을 심어주고, 꿈꾸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람들.

저녁 무렵,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눴다. 광안리 파출소 소장님과 과장님, 취재 담당자님은 바리바리(?) 싸 두신 해양경찰 자료들을 가는 이의 손에 안겨주신다. 원고를 정리하다 막힐 땐 한 번씩 참고하라신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손이 무거워진 채 전날 형사기동정에서 오늘 광안리 파출소까지 이틀간의 취재가 모두 마무리됐다.

전국의 해양경찰 총인원은 1만 2천으로, 경찰의 3분의 1 정도다. 글 첫머리에도 말했듯, 달랑 이틀 함께했다 해서 그 수고스러운 행적들을 죄 파악한 듯 함부로 이야기하기엔 부끄럽다. 다만 글 마무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 휴대폰 메모장 귀퉁이에 끄적여 둔 문장으로 하고 싶다. 이틀간 함께 하면서, 또 지난 몇 주간 수필집의 모든 글을 읽으며 느낀 건, 이들이 흘리는 땀과 수

고는 바다 위 파도와 같다는 거. 육지에 부딪히면 그 형체는 거품이 되어 흩어지지만, 넓은 바다 가득 양분이 될 잔맛이 남는다.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해양경찰의 작고 큰 노력들은 사실 일상 곳곳에 스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눈에 띄기보다 깊이 배이길 선택한 그 묵묵함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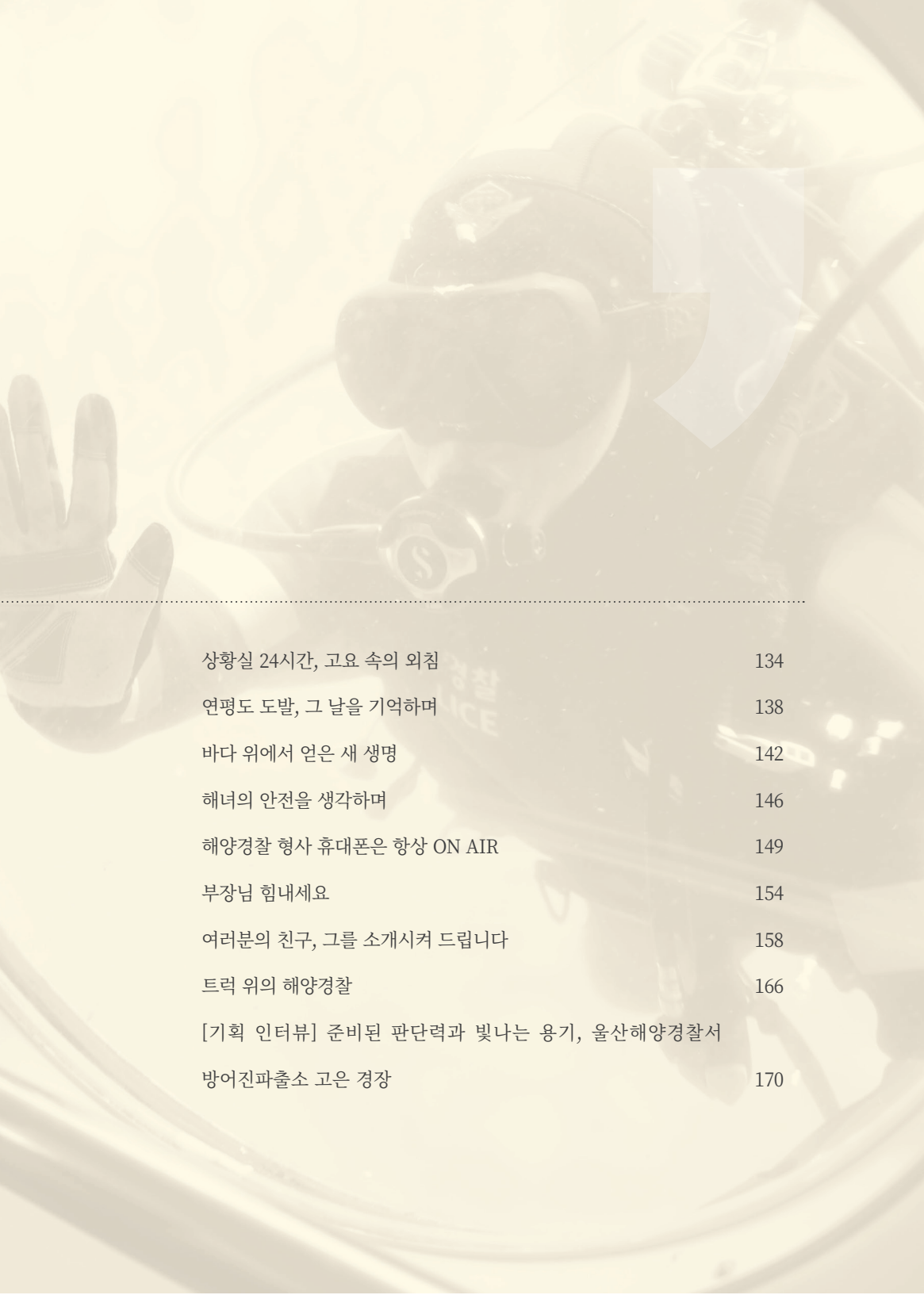
소통,

국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신고접수요원인 우리들은 현장에서 요구조자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철벽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하나에 의지한 채 구조되길 희망하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구조 대원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상황실 24시간, 고요 속의 외침>

상황실 신고접수요원 경위 심희정



상황실 24시간, 고요 속의 외침	134
연평도 도발, 그 날을 기억하며	138
바다 위에서 얻은 새 생명	142
해녀의 안전을 생각하며	146
해양경찰 형사 휴대폰은 항상 ON AIR	149
부장님 힘내세요	154
여러분의 친구, 그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158
트럭 위의 해양경찰	166
[기획 인터뷰] 준비된 판단력과 빛나는 용기,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 고은 경장	170

상황실 24시간, 고요 속의 외침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신고접수요원) 경위 심희정

나는 해양사고 신고 접수가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되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접수 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8월 17일 오늘은 토요일.
낚시·조업·해루질·해수욕장 피서 등으로 평소보다 바다에서 활동이 많은 시기이고 징검다리 연휴 막바지 피서객으로 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도 바다가 평안하기를...’

맘속으로 잠시 기도하며 근무를 시작한다. 어렸을 적 읽었던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서 나오는 알리바바가 “열러라, 참깨!!” 주문을 외치면 문이 열리듯, 이것이 어쩌면 큰 해양사고가 없길 바라는 나의 하루 첫 시작 주문일지도 모르겠다.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신고접수 사이렌 소리와 함께 24시간 근무가 시작되었다. “연안부두 바다썰터 앞 해상에 기름기가 보여요.” “웅진군 대이작도 남방 풀등 인근에서 익수자를 구조했어요. 그런데 익수자가 의식·호흡이 없어요.” “태안군 목개도 인근 해상에 다이버가 물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 하나개 해수욕장인데 아이 혼자 탄 튜브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무가 시작되자마자 112, 119 공동대응 또는 3자 통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긴박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연안부두 기름은 인항파출소 순찰정(S-92정)이 출동하여 무지갯빛 유막을 자연 소멸시켰고, 의식이 없던 구조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판정을 받아 P-100 정이 인천항으로 이송 중이다.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 다이버는 2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회전의 헬기(B-518)에서 발견되었다. 물 밖으로 나온 다이버는 어망 부이를 잡고 구조대가 도착하기만 애타게 기다렸고 그가 쓰고 있던 물안경에 반사된 빛을 헬기에서 발견하여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2시간이 넘게 현장 구조팀과 호흡을 같이하던 우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도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함성이 교차했고 긴 시간 동안 부이를 잡고 버텨준 다이버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상황실 근무자라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말보다 반갑고 감동적인 외침이다.

레스크 튜브를 들고 뛰는 구조대원의 거친 숨소리가 여과 없이 LTE 통신망을 통해 들려올 때면 구조현장의 긴박함과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의 모습이 떠올라 몽클할 때가 많다. 오늘은 더 이상의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자정을 넘기고 평온을 찾아가 시간, 04시 35분 통합신고처리시스템 경광봉 사이렌이 고요한 새벽 침묵을 깨운다. 인천소방본부 119를 거쳐 걸려온 3자 통화, 나는 잠시나마 느슨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수신 버튼을 누른다.

“해양경찰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신고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선재도와 측도 사이 바닷길에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물이 들어와 나갈 수 없어요. 차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남자친구와 같이 있어요.”

지금껏 수많은 긴급신고 전화를 받아 보았음에도 머릿속이 하얘진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신고자를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까...’

곧 나는 이 상황을 풀어가고자 차분하게 구조에 필요한 질문을 건넸다. 신고자는 그동안의 흥분한 다른 신고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힘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답을 이었다. 나는 차량 문을 열 수 없다는 신고자에게 차종을 묻고, 창문을 열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다행히 유리창은 열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유리창을 통해 차량 위로 올라가도록 지시하고 이미 현장 경찰관이 출동했음을 알리며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고 애썼다.

“물이 가슴까지 차와요. 이미 차는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운명이죠.”

신고자와 함께 있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수화기를 너머 들려온다. “이제는 운명이죠~ 이제는 운명이죠~” 그들의 고요한 외침이 내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라고 흥분해 외치는 격앙된 목소리보다 더 소름 돋으며 귓가에 메아리쳤다. 나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켜야 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전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이젠.. 목까지 물이 찼어요. 추워요.”

체념한 듯한 목소리, 함께 버티기 위해 남자친구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는 여자친구의 목

소리가 들린다. 그들에게 해양경찰이 육상으로 해상으로 그리고 헬기까지 구조를 위해 출동했음을 알리며 수색구조에 필요한 모든 질문을 마치고 그녀에게 “신고자본 이름 말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20대의 누구라고 흐느끼며 말한다. 선재도에서 500M 떨어진 곳, 그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때 반가운 소리가 구조대원의 가쁜 숨소리와 함께 LTE 통신망을 통해 들린다.

“영흥파출소 구조팀 현장 도착!! 인명구조장비 착용하여 입수 준비 중에 있음!!”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그들에게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금방 구조될 겁니다”라고 전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드디어 구조가 되는 순간이구나!’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신고자에게 침착하게 잘 버텨준 것에 감사했다. 엄청난 긴장감으로 경직되어 있었던 내 몸은 기진맥진 상태였다. 그들은 비록 비싼 차량을 침수로 잃었지만, 차량에 비할 바 없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한동안 그들의 체념한 듯 담담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한참을 맴돌았다. 아름다운 동행은 함께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신고접수요원인 우리들은 현장에서 요구조자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핸드폰 하나에 의지하며 구조되길 희망하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구조대원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도 해상에는 많은 바다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다.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오늘도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길 바라며 24시간 함께했던 헤드셋을 내려놓는다.

| 연평도 도발, 그 날을 기억하며

글_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흑산파출소 경위 장호영



그날을 기억하면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감동이 가슴을 스쳐 가는 듯하다.

2011년 11월 23일 오전이었다. 나는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경비구역인 서해특정해역에서 인천해경서 소속 300톤급 경비함인 312함에 항해장으로 승선 중이었다. 늦가을 오전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푸르렀던 것으로 기억된다. 312함은 여느 때와 같이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한 조업선들을 대상으로 진입 점호를 마치고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유동하며 어로보호 경비를 하고 있었다. 어로한계선 북방으로 조업선이 월선하지 않도록 감시하면서 일몰이 되면 일정 구역 아래로 남하시키고 이탈 점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주 임무로, 중국어선 나포작전 지원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경찰서 상황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지금 즉시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모든 조업선을 특정해역 밖으로 남하시키라는 지시였다. 처음에는 훈련 상황인가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실제 상황임을 직감하고 함장님께 즉시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전진으로 고속기동하며 SSB, VHF 등의 통신기로 ‘대공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남하하라’는 방송을 보내 진입 점호를 마친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선 남하조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승조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TV를 통해 방송되는 장면에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하고 있다는 긴급보도를 보게 된 것이다. 순간 나는 국지적인 전쟁이 발발했으며 우리가 그 전장의 가장 가까운 곳인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어선 소개임무를 수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임무수행에 전념하다 어느덧 서너 시간이 흘렀고 방송에서 전해지는 보도를 보며 다행히 전면전은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리 함에 경찰서로부터 새로운 임무가 하달되었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수전 즉시 연평도로 이동하여 연평도 주민들을 우리 함에 승선시켜 인천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라는 내용이였다. 우리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임무수행 준비에 들어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역이지만 함장님의 지시 아래 항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별로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연평도 근해는 꽃게 조업을 위한 닻자망 어구가 뽁뽁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겐 그 어구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일몰이 다가와 야간항해를 고려해야 하는 그야말로 악조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연평도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레이더 등의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어장 속 어구를 피해가며 야간항해를 한 경험이 빛을 발하기만 바라며 온몸의 신경을 집중했고, 함장님의 지휘 아래 연평도로 함수를 돌려 항해를 시작했다.

연평도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노을과 함께 불타는 연평도가 시야에 들어왔다. 검은 연기에 화염이 뒤덮은 연평도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마치 지옥 같았다. 일단 우리 함은 안전하게 연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상황실에 보고하고 해군이 사용하던 해상바지에 잠시 접안하여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무심코 북한 땅을 바라보았다. 적막만이 흐르는 북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도 잠시, 연평도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후 경찰서 상황실에서 임무가 주어졌다. 연평도 항으로 최대한 접근하여 그곳에 있는 행정선이 수송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인천항까지 최대한 빨리 이송하라는 지시였다. 우리 함은 즉시 이동하여 안전지대에 투묘를 하고 행정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행정선이

주민들을 태우고 우리 함으로 다가왔다. 행정선 책임자는 한 번에 수십 명씩 수송해야 한다며 일단 노약자, 어린이부터 싣고 왔다고 했다. 행정선이 왕복할 때마다 점점 더 인원이 많아지면서 함 내 질서유지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수송해야 할 사람이 많으면서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승선하지 않고서 다시 돌아가는 청년도 있었고, ‘아들이 타지 않았다’며 함 내에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 부모님도 계셨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승조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는 동시에 함 내 질서유지에 온 힘을 쏟았다. 함정 각 격실, 통로 등에 200여 명의 주민을 승선시켰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간편한 옷차림이 대부분이었다. 많은 이들이 안도한 표정으로 ‘해양경찰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때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국민들에겐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처음엔 나 역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해양경찰을 보고 안도하는 국민들을 보니 더욱더 용기가 났다.

우리는 함장님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다음 작전에 돌입했다. 즉시 항로점검을 마치고, 승선한 주민들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한 후 오후 10시경 인천항 전용부두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꽃게를 잡기 위한 어구가 사방에 깔린 해역을 최대속력으로 야간항해 해야 하는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 승조원들이 긴장을 놓지 않고 서북도서 해역의 밤을 빠르게 가르기 시작했다. 3시간의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평소보다 많은 긴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윽고, 인천항 연안부두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 15분 전임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부두로 입항했다.

부두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CNN, BBC 등 전 세계 유수의 방송사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들이 취재를 위해 장사진을 치고 대기 중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접안이 끝난 후 주민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차례로 하선하도록 도왔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들의 플래시가 연방 터지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에 주민들이 다소 놀랐지만 모두 기다리던 버스로 안전하게 탑승했다. 어떤 주민은 해양경찰이 연평도까지 올 줄 몰랐다면 해양경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연평도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거라 말했다. 나중에 연평도에 돌아가면 언제나 해양경찰이 올 것이기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도 잠시, 우리는 연평도 주민들을 뒤로하며 방송사 취재기자들을 태우고 또다시 연평도로 출동했다. 그렇게 312함은 힘차게 어둠을 뚫고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한 항해를 이어갔다.

I 바다 위에서 얻은 새 생명

글_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P-92정 경위 조승래

해양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기억 속에 길이 남는 일(事)이 있을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때는 2015년 6월 2일 오전 3시 48분경, 목포 연안구역(장산도 남쪽 ~ 진도 군 도서 포함 완도해경서 관할선)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나는 상황실로부터 신안군 장산도의 임산부 응급환자를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장산도로 이동하며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그 환자의 남편과 통화할 수 있었다. 남편분이 말하기를,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곧 양수가 터질 것 같습니다.”

긴급한 목소리를 듣고 나를 비롯한 모든 승조원들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발걸음은 더욱 급해졌다. 그 당시 부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던 나는 그 산모가 다녔었던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실 의사의 소견을 구했고 위생사에게도 함정에서 출산할 경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또 남편에게는 장산도 쪽 보건소장의 도움을 받아 조치에 따르고 선박에 함께 편승할 준비를 하라 전달했다. 남편과의 통화를 마친 나는 이번엔 보건소장과 연락하며,

“소장님 여기는 경비함정입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쯤이면 양수가 곧 터지거나 이미 터졌을 수도 있겠는데 이동 중 선박이나 함정에서 출산을 할 수도 있으니 소장님도 편승 준비를 해주시시오.”

그 소장님께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는지 회답은,

“저는 치과 전공의여서 편승한다 해도 제가 별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편승하지 않겠다는 보건소장의 말을 들은 나는 한시라도 빨리 목포 의료기관의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현장 인근 도착 후 우선 소형선박(선외기 1.5톤급)을 이용하여 마침내 남편과 임산부를 함정에 안전하게 편승시켰지만, 산모의 비명은 배의 천장을 뚫을 정도로 극심하게 울렸다. 배(船舶)라는 곳의 함정 식당은 새 생명이 태어날 장소로는 열악했지만, 연륜을 갖춘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임시 분만실로서의 각색을 소박하게나마 갖추게 되었다. 100톤급 소형정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자체 매뉴얼에 따른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때였지만 다행히 직원들이 경험 속 지혜를 발휘하여 그 전에 내원했던 병원 산부인과 간호사와 전화를 연결해 놓은 상태였다. 함정에서 출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는 등 만반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산통하는 임산부를 안심시키는 한편, 병원 관계자가 한 말이 얼핏 떠올랐다.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둘째가 될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의 얼굴은 기뻐하기보단 잔뜩 긴장하여 경직되어 있었고, 지금 그에게 아이를 받게 하는 건 무리일 거라 생각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출산 광경을 지켜보는 대다수 아버지의 공통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오전 5시 21분, 산모가 함정에 오른 지 불과 약 20분 만에 그녀의 비명 사이로 건강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우렁찬 울음소리는 우리 승조원들에게 안도감을 선물했고 아이 아버지 얼굴엔 웃음을 띠게 했다. 모름지기 울음이란 슬픈 것이 마땅한데, 내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과 함께 갓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울음소

리는 내 해양경찰생활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라라푸라푸로엿씨 (25세)라는 태국 여성이었다. 도서 지역에 거주했지만 예정일이 20여 일이나 남았었으니 배에서 출산하는 상황까지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여객선이 끊기면 오갈 데 없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든든한 구세주요 병원선과도 같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산모는 생각해둔 아이 이름이 있었는데, 배에



서 태어난 특별한 인연 때문에 의미 있는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모자(母子)는 전용부두에 도착하자마자 119구급대로 인계되어 목포의 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

당시는 6월 초순 이른 새벽으로 해상기상은 해무(海霧)가 약간 끼고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임산부 이송 도중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관할 경비구역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인근 고속경비정(최신형 워터젯)에게 인계하여 ‘단 1분’이라도 빠르게 목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소형정이 인수하겠다고 접근하였으나, 함장님께 건의하여 양수가 터진 환자를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편승 이송할 경우에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 우리 정이 직접 목포까지 이송 임무를 해야 한다며 모두 의견을 모았었다. 그리곤 곧바로 인근 경비정에 내용을 전달, 상황실에 보고한 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현재도 그때의 경험은 실시간 변하는 해상에서의 해양사고 대처 시 함정근무자로서 나의 대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응급환자 및 유사 사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터라 몇 배의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꼈었지만, 이른 새벽 해무를 뚫고 목포해경부두에 도착하여 산모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은 아직도 해양경찰관 생활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지금도 나는 인근 도서를 책임지는 경비함정에 근무 중이고 아이 부모님 과도 연락이 닿아 종종 안부를 전하며 지낸다. 보내온 사진 속 사내아이의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그 가족들과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할 수 있어 서로 감사할 뿐이다. 남은 재직 기간 동안 더욱 보람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 그 날의 기억은, 마치 큰 선물과도 같아서 앞으로도 길이길이 잊지 못할 것 같다.



| 海女の 안전을 생각하며

글_본청 국장 윤성현

4월 중순~ 완전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아침에 잠시 출근해서 상황보고를 받은 후 간편복으로 갈아입고 <이재수의 난> 촬영지로 유명한 아부오름과 백약이오름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지나치게 좋아(?) 올해 처음 반팔로 나들이를 했습니다. 용눈이 오름, 다랑쉬오름, 새별오름, 따라비오름 등 제주의 이곳저곳에 오를 때마다 잠시 살다가는 작은 존재의 방문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받아주는 오름의 포용과 관대함, 또 자연의 위대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오후에는 한번 가보자 마음먹고 있었던 구좌읍 해녀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할머니이자,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이모인 우리 제주의 해녀(海女)들은 제주인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전통문화이자 귀한 무형문화재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제주도민들이 해녀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지 조금이나마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주대 해양수산최고위 과정 특강 때 몇몇 해녀분들과 차 한잔 나눴던 기억도 문득 스쳐갑니다.

해녀는 사전적으로 보면 ‘산소공급 없이 무자맥질로 수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녀는 수협 집계 기준으로 잠정 1만 3천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제주 해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4,005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60세 이상이 전체 해녀의 86%, 50세 이상은 97%라고 하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물질하는 남자 즉 해남(海男)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다고 하네요, 제주 수협에 정식으로 등록된 海男은 다섯 명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표선 앞바다에 입수하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119를 부르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신 70대 할망 해녀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물질 중에 돌아가신 해녀들이 지난 10년간 (2006-2016) 연평균 7.9명이나 됩니다. 1960년대 초 2만여 명에 이르던 제주 해녀가 계속 줄어들어 이제 4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수협중앙회 통계가 참 안타깝게 들립니다.

해녀라는 직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아마’라고 부르는 해녀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보존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세배 가까이 많은데도 아마(해녀)는 불과 2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 해녀는 사실상 사라질 위기라는 말이 일본발 기사에 종종 등장합니다.

실제로 해녀들이 어느 정도 깊이로 잠수하고, 얼마 정도까지 숨을 참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양생의 『한국 해녀의 잠수 양상』이라는 논문 따르면 해녀들의 평균잠수 시간은 35초 정도로 이 중 하강과 부상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평균 실 작업시간은 20초 내외라고 합니다. 수심도 10m 이상 보다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5~6m 정도에서 주로 물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질 초기에는 1분 정도까지 잠수하나 횃수를 거듭하면서 평균 잠수시간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해녀에게는 잠수 시간 그 자체보다도 물질횃수와 해산물 서식지, 조류의 흐름과 바다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영선수와 해녀 그리고 건설잠수사의 잠수시간 측정에서 해녀가 제일 먼저 출수했다는 뉴스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해녀는 전통적 공동체 문화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해녀 문화와 정신,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해녀 육성 프로그램을 장려하고자 한수풀해녀학교를 지원하고, 서귀포시도 법환해녀학교를 중심으로 전문해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늦

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네스코를 비롯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제주도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만큼은 확실히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의 안전관리, 특히 제주해역의 잠수 유선이나 해녀들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31일 서귀포 범섬에서 실시한 ‘해녀 사고 대비 수색구조 훈련’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분 이내 미 출수 해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이가 수면으로 팽창하여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발신기, 가칭 ‘해녀지킴이’는 아직 미흡한 점은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해경은 이러한 장비개발 및 보급을 제주도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훈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에는 해녀분들과 관계 기관들이 제주본부에 모여서 현행 해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물질 체험도 하고 해녀축제에 가서 즐거운 소통의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문득 작년에 나온 <물숨>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물숨 즉 ‘물속에서 쉬는 숨’이라는 뜻으로 해녀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죠~ 올 남은 한해, 한 분도 물숨을 쉬는 해녀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속담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변해 주는 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해보며 글을 맺습니다.

“해양경찰은 여러분(해녀들)의 든든한 가디언이 되겠습니다.”

| 해양경찰 형사 휴대폰은 항상 ON AIR

글_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 수사계 경장 신종원

어릴 적 나는 호기심이 많았다. 궁금한 것도 많았고, 좋아하는 만화나 소설은 항상 탐정이 나 추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TV, 신문에서는 오늘은 전국에 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가장 먼저 보았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항상 나를 고민하고 설레게 했다.

그 영향인지 나는 해양경찰이 되어서도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수사 실무 교육과 과학수사교육을 받을 때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하였다. 앞으로 현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현장처리를 진행해서 선배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다. 정규임용이 된 후 처음 경비함정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해상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접수를 하고 사체를 수습해 형사계 형사분들께 인계한 적이 있다. 그때도 ‘저분은 어떤 이유로 돌아가신 걸까, 억울하니까 이렇게 발견되어 죽음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닐까?’ 내심 혼자 생각했다. 그날 처음으로 변사체를 처리한 후 더욱 형사계에 근무하고 싶어진 나는 선배분들께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업무 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 등을 매일매일 조금씩 배웠고, 정기인사발령 때 좋은 기회가 되어 마침내 형사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수많은 형사사건과 몇몇 변사사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도 가장 마음이 울컥 아려오는 사건이 있다.

한 남자가 낚시를 하다 넘어졌다. 얕은 강이었다면 약간의 찰과상을 입고 툭툭 털며 일어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바다에서 발생한다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진다.

“안녕하세요, ○○○씨 아내분 되시죠? 저는 ○○해양경찰서 신종원 형사라고 합니다. 너 무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전화 들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에 낚시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빠지셔서 저희가 신속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셨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대의 휴대폰이 땅바닥에 떨어진 듯 ‘꽝’하는 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이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다시 휴대폰을 주운 아내분은 눈물을 흘렸다.

“저희 남편이 맞나요? 아니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밥도 먹고 낚시한다고 간 것뿐인데요....”

눈물을 흘리시며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넘어 전해졌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1시간 30분이 지났다. 땀을 억수같이 흘리는 여자분과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옆의 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정신없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요..?”

“저쪽으로 가서 남편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현장에서 변사자의 차량과 신분증 목격자가 있었다. 드넓은 바다에서는 CCTV 영상 자료도 확보가 어렵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것도 도통 쉬운 일이 아니다. 바다의 특성상 거인화¹ 또는 시랍화²된 변사체가 해변으로 떠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 잡는 어부의 그물에 사람의 팔이나 몸이 걸려 죽음의 원인을 풀어 달라는 듯 발견되기도 한다. 사람의 형체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변사체가 신고 접수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전국의 해양경찰 형사들은 때로는 미처 눈을 감지 못하고 가신 분들의 눈을 감겨 드리고, 고

1 사망 후 부패가스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2 피부가 비누처럼 딱딱해지는 현상

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혹은 사고사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마지막 가는 그들의 저승길만이라도 편하도록 발이 닳게 노력하고 있다.

사고자의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 채 고인을 바라보며 몇번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답이 없었다. 아내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시며 대성통곡했다.

“아직 어린 애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저만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키우라는 말일까요.”

“어머님, 저도 수많은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고인분과 그 가족들을 지켜봐왔습니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힘내십시오.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반장님의 위로에 겨우 안정을 찾은 유가족은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에서 유가족 조사가 이루어졌고, 반장님께서서는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부부관계는 어땠는지, 원한 관계, 보험 관계, 유서가 발견되었는지 등 자세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목격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평소 지병이 없었음에도 몸을 떨면서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유가족분께 전달 드렸다. 끝으로 부검을 마친 후 고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며칠 후 장례식을 마친 고인의 아버지께서 우리 경찰서를 방문하셨다. “형사님들, 저희 아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들이 있으셨기에 우리 아들이 천국에 잘 갔나 봐요. 꿈에 나왔었습니다... 자긴 잘 있다고. 저도 살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세상이 참 힘드네요.” 80대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보이시며 거칠고 투박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악수를 청했다. 반장님과 나는 겉으로는 울컥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심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슬펐다.

‘우리 반장님은 수년 동안 형사업무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변사자를 보았을 것이며, 얼

마나 많은 유가족분들을 대응하셨을까... 그 무게와 깊이를 감히 측정할 수 있을까.’
평소 업무를 진행할 때의 반장님은 냉철했지만 때로는 감성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셨고 나는 그런 점을 항상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아이고... 내 아들뻔 형사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주 한잔 살게요.”

“어르신,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잘 이겨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술은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사겠습니다. 아드님이 생각나실 때면 언제든지 ○○함에 방문하셨다가 경찰서에 들려주세요. 맛있는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반장님과 나는 타살 혹은 자살 여부, 금융관계, 보험관계, 통신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결국 신체 전반에 외부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 없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다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외에, 더는 타살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고인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누군가의 가장이다.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나는 형사활동을 하면서 고인들의 죽음의 의문을 풀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것, 적어도 마지막 가는 길이 더는 괴롭지 않도록 해드리고자 한다. 잔잔하지만 깊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해양경찰 형사로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집사람과 영화를 보다가도 어쩔 수 없이 손에 택시비를 쥐여주고,

“영화 끝나면 택시 타고 집에 가 있어! 변사 현장에 다녀올게.”

또 때로는 가족들과 식사 중, 전날 회식으로 과음을 한 다음 날 새벽에도 우리 해양경찰 형

사들의 휴대전화기는 24시간 항상 ON AIR 상태다. ‘빠용빠용’. 해양경찰 형사기동 차량이 긴급히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면 노란색 폴리스 라인과 함께 그들의 일과가 시작된다. 초동조치 대응을 하는 파출소와 경비함정의 직원들, 신원확인하고 현장 감식을 위해 쓴 살갑이 달려와 주시는 과학수사계 직원분들과 나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다.

지금 눈앞의 변사현장이 나와 내 가족들의 일이 될 수 있다. 낚시 중 그물에 발이 걸려 돌아가시는 분, 높은 파도로 배에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가 발견되고, 여름 해수욕장 피서철에 휴가 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바다는 멀리서 지켜보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대형 인명피해를 줄 수도 있는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1만 2천 명의 해양경찰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 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위치확인, 긴급출동, 명확판단(이하 위출판)운동과 범국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나는 형사계에서 수사계로 부서를 이동하여 국민들의 민원,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접수하며 그들의 고충을 보다 가까이서 듣고 있다. 또한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³를 척결하고 범죄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요즘 나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는데, 첫째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던 내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잊지 않는 것. 둘째는 아직 시작도 못한 수사·형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신입직원들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지도하여 존경받는 선배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동해의 동근 태양이 오늘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를 환하게 비춰 출근길을 밝힌다. 나의 꿈, 나의 희망 해양경찰을 위해 저 밝은 태양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끝으로 이 시간에도 두 팔 걷고 변사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 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3 ① 국민안전 저해 행위 ② 해, 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③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⑤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부장님 힘내세요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연안 VTS 경장 노형수



내가 입사한 지 3년 차 신입 순경이었던 시절, 모든 직원이 기피하는 폐선을 앞둔 (구) 형사 기동정 25톤짜리 P정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3년 5월 4일 유독 안개가 많은 날, 우리는 바다로 출동(경비)을 나갔다. 구형 레이더를 장착한 우리 소형 경비정은 배가 움직일 때마다 레이더 타겟이 없어졌다 나타나곤 하는 바람에 조타실은 초긴장 상태였다. 우리는 안개 가득한 서해바다를 저속으로 움직이며 관할구역 사고예방과 불법조업 계도 등의 업무를 하며 동분서주했다.

소형정 특성상 19시 이후의 야간에는 거점 경비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저녁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배의 안전을 위해 거점 부이에 핫줄을 댔다. 전 승조원은 간만에 안갯속의 바다 위에 있다는 긴장에서 벗어나 취사병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돼지고기볶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고, 2조로 나누어 일부는 휴식을 취하고 항해부서인 나와 기관장은 조타실에 대기하며 통신기 청취, 견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조용하던 저녁 8시 30분, 업무용 휴대전화와 TRS가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코드(상황실), 현재 목개도 인근 레이더고장으로 표류 중인 요트 S호(7톤/승선원 3명) 즉시 예인 구조차 경비정 이동하세요.”

정장님을 비롯한 전 승조원이 조타실에 집합해 사고 상황을 전달받고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 상태 인지 후 안전교육을 받았다. 나는 요트 S호가 어디에서 표류 중인지 찾기 위해 레이더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탐조등을 이용해 신고지점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야간의 해상에서 레이더가 고장 나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면 베테랑 항해사들도 긴장하며 운항하는데 원거리 수상레저기구 중 한 종류인 소형 요트 선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고 생각하며 수색하던 중, 다행히 부장님이 레이더로 물체를 탐지하셨다. 우리는 안개를 헤치며 조심스레 접근했다. 곧이어 발견한 요트 S호 선원들에게 우리가 왔음을 알려 안심시켰고, 경비정에 옮겨 태운 후 예인을 시작했다.

예인 시작 후 1시간 뒤 신진항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짙은 안개와 사리로 인한 거센 조류로 경비정 조함(운전)이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다. 승선 경력이 많은 정장님은 예인하여 입항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실에 내용을 전달했다. 결국, 요트 선원들을 설득하여 항 인근 안전구역으로 요트 S호를 이동시키고 다음 날 아침에 입항하기로 하였다.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요트 S호의 앵커를 놓아 안전을 확인했고, 인근 0.5 케이블 거리에 있는 경비정도 거점 경비를 하며 레이더 및 탐조등으로 밤새 안전에 신경 썼다. 다음날 오전 7시 30분경 경비정이 선두로 이동, 요트 S호를 안전하게 호송하여 신진항에 입항했다. 요트의 선장은 ‘군산시 격포항을 출항하여 화성시 전곡항으로 이동 중 갑작스런 레이더 고장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며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마치 구세주 같았다... 불빛을 본 순간 너무 반가웠다.’ 말씀하셨고 항구에서 레이더를 수리한 후에 전곡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셨다. 그 후에 화성 전곡항으로 입항하여 ‘고맙다’며 경비정에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시기도 했다.

상황이 종료되고 드디어 오전 10시 입항하는 날...

야간 예인작업으로 전 승조원 모두 지쳐 있었다. 우리는 전용부두 입항 후 청수세척 및 병참 수급 등 각자 맡은 업무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개인위생관리 및 휴식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부장님은 쉬지도 못하고 보안업무 관련으로 경찰서에 불일이 있다며 서류를 챙겨 이동하셨다. 30분 뒤 내 휴대전화로 부장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노 순경, 운전해서 가는 중인데 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하겠어~ 미안하지만 나 좀 데리러 와 줄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 부장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난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옆에 계시던 정장님이 내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나, 혹시 사고라도 났냐 물으셔서 ‘부장님이 운전 중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아마도 뇌졸중 증상인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부장님께 ‘일단 자동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해두고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시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드린 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119구급대원과 통화 후 중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중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부장님이 산소 호흡기를 한 채 누워 계시는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전문의 말로는 뇌혈관질환의 일종인 숨뇌(연수) 쪽에 이상이 있어 혈전용해제를 투입한 상태이며 환자가 안정이 되는 대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다음 날 새벽 부장님의 가족들이 오셔서 구급차를 타고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셨고.. 도착한 수도권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 했다’고, ‘빠른 대처로 환자가 급한 고비는 넘겼으며 약 3개월간 치료 및 휴식을 취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4개월이 지난 후 부장님은 퇴원하셨고 경비정이 아닌 파출소로 발령받아 복귀하셨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진 않으셔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진 못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해양경찰 생활을 하시게 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열일 하며 근무 중인 우리 해양경찰 선후배님들! 가족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며 건강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친구, 그를 소개해 드립니다

글_보령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 경위 안성호

일반인이라면 생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겪고 때론 한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등 정신·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해양 관련 분야의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선배 및 후배 직원분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끼면서 업무를 체득하고, 주어진 업무의 경계를 떠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 바로 이 직업을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찌는 듯 무더운 여름철 성수기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맡아 순찰하던 중 멀리서 점 하나가 보였다 사라졌다 반복하기에 자세히 보니 사람의 머리였고, 레स्क्यू튜브를 갖고 뛰어들어가 중학생 익수자를 구조해 한목숨을 지켰던 일. 도서 지역 응급환자를 매일 저녁 경비정으로 호송해 병원으로 인계했던 일. 야간에 불법조업하는 선장을 수 마일씩 쫓아가며 적발했던 일. 몰지각한 선장들이 선박 내에서 발생한 폐수와 기름을 바다에 몰래 버려 선박에 묻은 기름 성분을 조사해 선장을 적발하고 유출된 기름띠를 흡착제와 흡착포로 거뒀던 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A급 기소중지자가 낚시꾼으로 가장해 승선하려는 것을 매일 새벽 부둣가에서 기다리다 제지하여 체포하고 검찰청에 인계한 일. 항해 용품인 레이더와 플로터를 밤에 모조리 절취한 이웃 선원 용의자를 다음날 인근 CCTV와 탐문을 통해 소환하였으나 불응하여 선박에서 작업 중일 때 체포한 일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힌다며 배타적경제구역(EEZ)을 침범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특유의 짜디짠 냄새가 나는 조타실에서 15시간 밤을 새워 군산항까지 나포, 벌금을 부과한 일. 바지선에서 작업 도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노후, 절단돼 즉사한 현장 노무자를 장례식장 직원과 함께 운

구한 일. 해안가에서 계류 홑줄을 보강하다 강한 바람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를 며칠간 수색했던 일. 레저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여 단정을 이용, 선착장까지 5명의 승객을 구조하며 예인하던 일. 구멍조끼를 미착용한 낚시꾼의 안전을 고려하여 낚시 어선을 단속하던 일. 저녁 9시경 부녀가 선착장으로 낚시하러 와 즐기던 중 여고생이 선박계류 안벽 슬립웨이(Slip way)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것을 퇴직하신 당시 선배님 및 의경과 함께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던 일. 자정에 해루질(간조를 이용해 꽃게, 소라 등 바다 정착성 수산물을 도구를 사용해 채취하는 일)을 하던 무리가 일원 1명이 보이지 않는다 신고하여 꼬박 밤을 새워 몇 시간 동안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종자가 다른 지역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일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명히 기억나는 사건은 2011년 9월경, 군산 파출소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야간에 금강 하굿둑에서 남편이 바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배우자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속히 이동 확인한바 실제로 하굿둑 중간에 신발과 수첩, 시계 등 투신 추정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 등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 실제로 투신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었고, 당황한 우리는 당시 조석과 풍향을 감안, 순찰차를 이용해 주변 연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시 순찰정을 이용해 해상수색 계획을 세우며 대부분의 직원이 새벽을 꼬박 새워 수색하였으나 그를 발견치 못했고, 근무 교대 후 재수색을 이어나가려던 중 동이 틀 무렵 파출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30대 중반의 실종자가 쪼들리는 주머니 사정에 더 견딜 수 없어 투신하려고 1시간을 운전하여 하굿둑으로 왔으나, 실제로론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했고 직원들의 수색장면을 하굿둑 면발치에 숨어 지켜보면서 날을 꼬박 새웠다고. 또 몇 시간이 흐르자 기온하강으로 인한 저체온증에 결국 서천의 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전화였습니다. 내용을 전달받은 선후배 직원들과 함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또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 8월 17일 3시경에는 50대 후반 여자분이 5~6명의 친구분과 충남 삽시도 해수

욕장에서 튜브도 아닌 어망브이용 스티로폼을 빌려 해안가에서 피서를 즐기다가 바람에 떠 밀려 표류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여성분이 바다 한가운데로 떠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익힌 실력으로 맨몸수영을 하기 위해 오리발을 차고 선수(벃머리)에서 준비 중이었으나 현장 수심과 조석, 풍향과 형기정 흡수를 감안해 우선은 최대한 접근하여 즉시 구명볼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현 측으로 이동시킨 후 아 주머니의 양손을 잡고 구조한 일 등 긴 시간은 아니지만 17여 년 동안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으며 한편으론 혼자가 아니라 ‘우리’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사건처리 과정 중 부족하거나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참 많았습니다. 해상 경비 활동 중의 일입니다. 잠복기가 수년인 슈퍼박테리아 병원균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만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악취가 나고 부패된 해상 변사자를 변사체 처리 물품 등이 부족해 비닐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낀 채 인양하다가 선배분들로부터 실컷 혼이 난 후 새롭게 배워 일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박 중인 선 내에서 일어난 선원 간의 감정 다툼이 칼부림으로까지 번져 초등학교 자녀 두 명을 둔 40대 초반 남성이 복부를 난사당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유가족과의 통보조치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아

직 어린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귀항 여객선에서 30대 후반 젊은 승객이 갑작스럽게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는데, 지문채취 결락(빠서 생략함)과 조사과정 중 여객선사 직원들과의 언쟁으로 마찰이 발생했던 일, 야간에 불법 조업 선박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으나 우리가 오는 것을 레이더로 직감한 이들이 즉시 양망(그물을 거두어들임)하고 어획물을 포획한 후 현장을 이탈, 도주해서 여러 차례 놓친 일들까지, 다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며 익히는 것이고 앞으로 경험과 연륜도 필요하겠구나.’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사건은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고, 부족함이 덜하도록 하겠다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매진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사회이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리라 장담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되풀이 됨을 명약관화하듯 예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이를 위해 국가는 전문 교육과 고도의 훈련으로 우리를 양성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경찰공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지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선 의외로 공권력을 허다하게 남발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민원 같지 않은 사안으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제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 민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때론 오용, 남발됩니다. 합법적 의견 제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당연하지만 ‘아니면 말고’의 찔러보기 식이거나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성 및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보복성 제기 등은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모적이고 감정적이며 분노표출을 하기 위함’인 것이 대부분이고 정말 우리와 한바탕하러 오신 느낌이 물씬 풍길 때가 많습니다.

파출소와 출장소에 출입하는 그 순간부터 욕설을 하며 따지고 들어오는 막무가내식 사람들

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엄연히 근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이며 공권력을 훼손하고 긴박한 상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오히려 확보 부재로 직결되어 시간과 경제력, 행정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안고 출근해 감정 근로를 하는 입장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좀 더 신중히 권리 주장을 하신다면 모두가 지금보다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인 소방의 경우도 앰블런스 구급차를 동네 택시처럼 호출하여 집으로 가자며 종용하고 도착하면 고맙다는 얘기도 없이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로, 소방관을 난감케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본인을 구조해 준 소방관에게 오히려 공갈·협박과 폭언을 하는 이나 양심을 저버린 안면몰수의 사람도 많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언론보도에 종종 등장합니다.

2018년 4월엔 전북 익산에선 40대 후반 남성 주취자가 구급과정에서 여자소방관을 심한 성적 욕설과 함께 폭행해 두부 손상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녀 두 명을 남겨 놓은 채 결국 사망했고 남성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안전과 질서유지,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을 판단하여 다소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함’을 최소화하는 것. 소수의 사적 이용이 아닌, 다수의 공익을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제기사건에 대해 종결 후에도 그에 따른 법적 근거와 합리성, 타당성을 고려해 법적 외 권한이거나 월권 시에는 추후 판단해 고유 업무 이외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제기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비용을 환수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미국을 한 예로 들자면, 국민이 먼저 제복 근무를 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함

니다. 그곳은 합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결사 집회의 자유 등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존중되지만, 공권력의 마지노선인 폴리스라인을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국민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권력을 확보합니다. 그런 확고한 단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 실정은 어떠한가 비교도 해봅니다.

반면, 외국에서 우리의 교육훈련 시스템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2주일 전 인도네시아 정부 해양 고위관리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여수의 해양경찰교육원을 들르기도 하였고, 수십 년 전부터 북태평양 해상 치안기관(NPCGF) 국가 간의 합동훈련을 시행해 해양강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해양국들과의 업무협약으로 만든 장기국의 교육훈련 및 학위 취득과정도 있고,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대사관에 해외근무 주재관을 파견하여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실종자 구조 및 자국민 보호에 우리나라 구조대가 투입되어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한 영주권자나 조난을 당한 자국민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며 해외 해양경찰기관과의 협조와 자문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등, 법적 근거를 동원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극지인 세종 및 장보고 과학기지의 남극에도 직원을 파견해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글로벌 연구원들과 국제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파견을 간 직원은 1년간 월동 대원의 자격으로 펭귄과 백곰을 보며 각 세계의 음식들을 나누기도 하고,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단함을 풀어가며 교대근무를 합니다.

아프리카 해역 및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선박이 피습을 받아 해적수사를 위해 급파된 직원들이 선장과 선원들을 구출하였고 해적들은 한국으로 체포하여 조사 후 벌금을 부과하고서 자국으로 강제 송환시키기도 했습니다.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서해안에서 중국어선과 총격전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선 이러한 분쟁을 불식시키고자 타 부처와 협조하여 UN 산하 국제기구에 연설로 호소해 각국의 협력과 동참을 유도, 대내외적 홍보와 주권수호 의지를 갖고 임무를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경찰은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며 점점 부상하는 이 시대의 막강파워 직업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해양경찰 직은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여건과 복지,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경비 함정은 그 수가 전보다 증가했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입체적 순찰 등으로 항공대 이미지도 재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적 감각을 익히며 광활한 바다를 배경 삼아 해양리더를 꿈꾸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겐 청춘을 담보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열정을 쏟아부를 만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다를 든든하게 책임져야 하기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양주권을 확보하는 것과 전국에 있는 270여 개의 해수욕장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그 밖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범죄수사 활동을 합니다. 또한 해양자원과 바다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바다의 파수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해로는 인천의 백령도로부터 시작해 동해의 독도와 울릉도를 아우르고 남해 제주도 남방 이어도까지 관할하고 있죠. 국토면적의 대략 4.5배나 되는 광활한 영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새벽에 잠을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안에는 경비함정에 승선한 우리가 주야를 불문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초임 순경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신기한 육체적 변화, 롤링피칭(Rolling Pitching)을 느끼며 지독한 뱃멀미와 함께 첫 임무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약이라 이것도 점차 단련되면서 승선생활에 나름의 재미를 붙여가곤 합니다. 7박 8일간의 긴 항해에 대비해 이것저것 맛있는 먹을거리를 사오는 등, 소소한 재미와 함께 임무에 대한 보람도 느끼며 경비 활동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몇 주 전부터 여행 계획을 짜놓았어도, 전반적인 해상치안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던 중에도 해상실종자 발생 및 선박이 침몰하는 등의 상황에 비상소집이 발동되면 속상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업을 설명하고 이제는 익숙한 듯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상황 발생 시 모든 가능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해결책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매뉴얼과 지침 등을 규정해 놓았지만 변화무쌍한 현장에선 때론 그 매뉴얼의 이론처럼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환경에 따라 여러 제약이 따르는 우리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미처 돌보지 못한 미흡함이 발생하더라도 직업인 이전에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이들 모두 그 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으니 때론 마음을 열어 이해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직업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친구, ‘해양경찰(海洋警察, Korea Coast Guard)’이었습니다. 동료로서, 든든한 후원자로서 곁에 한번 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긍정적인 시선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신다면 천직으로 받아들인 저희 해양경찰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한민국 영해 및 국경을 넘어 어디든지 찾아가 도움을 드리도록, 또 따뜻한 응원에 보답하도록 오늘도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럭 위의 해양경찰

글_남해지방해양경찰청 통영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상경 천재원



마을에 한 대뿐인 새하얀 포터 트럭은 하얀 안전모를 쓴 우리를 태웠다. 침침한 달빛을 뒤집어쓴 검푸른 활엽수들을 제치며 허겁지겁 달렸으므로, 멀리서 봤다면 허연 점이 검은 세로 선들 뒤로 빠르게 점멸하며 이동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긴장감에 각성된 분위기가 주위를 감쌌으나 피로감과 비포장도로의 아늑한 덜컹거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눈이 감겼다.

후미 갑판에 풀썩 주저앉아 누군가 뒤통수를 잡아당기듯 겨우 고개만을 들어 별들을 구경하고 있던 때였다. 별안간 조타실 LTE 무전기의 긴박한 전자음, 쿵쿵 계단을 밟는 소리, 피곤함과 예민함을 숨길 수 없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이 불규칙하게 섞였다. 꽤 씁쓸하게도 나는 ‘또?’라고 생각하며 배를 매어 둔 줄을 풀러 터덜터덜 선수로 갔다.



그날만 벌써 5번째 구조요청이었다. 우리 배로부터 조금 떨어진 작은 섬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두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꽤 되어 섬에 도착해도 이장님의 트럭을 타고 10분 정도 더 들어가 할머니를 모시고 부두로 다시 돌아와 육지까지 이송해야 하는, 상당히 뻘뻘한 조건이었다. 상황실과 이런저런 교신을 하는 소리 외에는 누구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P-03정은 검고 끈적한 기름 같은 밤바다를 찢으며 나아갔다.

트럭 위, 몰려오는 졸음을 깨기 위해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던 도중, 많고 많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 중 ‘해양의무경찰’을 골랐던 다소 충동적이고 애매한 이유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내겐 섬에서 온 친구 A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기 고향에도 해양의경 오빠들이 있었다’고 했다. 한 번은 새해 첫날부터 전복 선박이 발생해 민간해양구조대인 아버지가 구조에 동참하기 위해 황천으로 나가셨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럴 때 해경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친구를 보며 나는 대충 마음속으로 꿈의 1순위를 정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이처럼 트럭 위에서 꾸벅꾸벅 졸려고 하는 나는 몇몇한 해경인가? 댜에는 A와 그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업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다소 유치하고 호기로운 마음으로 입대하였다. 그리하여, 적어도 나만큼은, 몇몇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해양경찰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그어놓았을 ‘불신과 불안’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작금의 나는 그 선을 넘기 위해 열심히 달리기는커녕 밀려오는 긴급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바빴다. 애초에 밤낮없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운더리든 국민의 시선이든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을 것을 깨달아 부끄럽기도 했다.

트럭은 섰고, 우리는 뛰었다. 바닷물 묻은 신발을 벗을 새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환자를 들것에 눕혔다. 환자 고정 끈은 오늘따라 웬지 말을 듣지 않았다. 환자를 품은 들것을 번쩍 들고 트럭까지 뛰었다. 내가 든 환자의 머리 쪽은 무거웠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미

그러지는 끔찍한 상상이 반복되었다. 환자의 ‘귀중한 시간’이 흐르는 게 눈에 보였다. 다른 것보다 나 때문에 이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덜컥 해경이 되어버린 나 ‘정도’의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나를 힘들게 했다.

부두에 도착해 환자를 배 높이에 맞게 힘껏 들었다. 바지와 배 난간의 높이차가 꽤 되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가장 힘든 순간이다. 겨우 환자를 태우고 배의 줄을 걷는 그 순간 언뜻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야꼬, 너무 욕본다. 우리 손주, 아들내미 빨인데...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며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걱정 섞인 눈으로 환자와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다. 환자의 집 뺨곤 불이 모두 꺼져있어 마을의 전경이 유달리 조용하고 어두웠으나 주민들은 편히 자는 사람 없이 모두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두에 모여 떠나는 우리를 향해 저마다 따뜻한 응원을 한 마디씩 해주었다.

배는 서서히 섬과 멀어졌다. 마을의 불은 하나둘 다시 켜졌다. 바다 위로 그 빛이 비쳐, 하나로 얹힌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들처럼 반짝였다. 그것들은 후미 갑판에서 보던 별을 연상시켰고, 올려보거나 굽어볼 필요 없이 내 눈높이에서 반짝였다.

“재원아, 정신 차려라. 무섭냐? 그래... 나도 무섭지 당연히.” 환자를 무사히 이송하고 난 후 갑판장님의 날카로운 평가가 있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간신히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구조가 무섭고 힘들며 부담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사실 고정 끈은 내 잘못이 아니라 끈이 문제였다는 점. 쓴소리를 들었지만, 왠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은 항상 내가 어디에 복무하고 있는지 두 번씩 물어본다. ‘해경’이라 답하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꼭 한 번 더 “해병?” 혹은 “의경이야?” 다시 물어보기 때문이다. 거듭 ‘해경’이라고 말하면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아~” 하고 뒤에 말을 덧붙인다. 순수한 궁금증에 “의경이면 끌이지 않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으나, 약간 짓궂게도 “해양경찰..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친구들도 꽤 있다. 나의 글이 해양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변호나 방어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바다 위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군 생활을 우스갯소리로 ‘KTX 타고 유럽 가기’에 비유한다. 빠르게 가긴 하지만 갈 길은 거기에 비에 훨씬 멀다는 말을 재치있게 표현한 어구라고 생각한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경비정 타고 환자 이송하기’와 같은 말일 것이다. 해양경찰은 환자를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기 위해 언제나 전속기동을 하지만, 환자를 조금이라도 신속히 이송하고자 하는 급박한 마음에 항상 목적지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치면 내 경비정은 환자를 태우고 돌아오는 중인 위치 정도일 것이다. (경찰관분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 거쳐 간 항로에서 많은 일을 겪었다. 연안 순찰 중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자리를 뒀던 기억, 의경들끼리 만들어 먹었던 갈비찜이 너무 질겨 씹지도, 뱉지도 못한 채 입에 물고 눈물 나게 웃었던 기억, 며칠간 이어진 수색작업 내도록 멀미가 나 하루에 참치 한 캔씩만을 먹으며 버텼던 기억.

바다가 아래위로 출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생겼던 이유 말이다. 그리고 이는 해양경찰에 대해 곱지 않은 수식어가 붙는 것을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곱씹는 구절이다. 바다는 출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그때 그 섬의 주민 같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매일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분들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기에 우리 또한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그 밤의 새하얀 포터 트럭이 그랬듯.

준비된 판단력과 빛나는 용기,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 파출소 고은 경장

인터뷰_조덕현

인터뷰이_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
파출소 경장 고은

사진_김지원

편집_김지현

바다에 맨몸으로 입수하여 익수자를 구해내기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거기다 해엄을 치면서 동시에 인공호흡을 하기까지. 히어로무비에나 나올법한 기예를 부린(?) 해양경찰이 있다.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도 뽕뽕한 얼굴로 인터뷰에 응해준 그녀,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의 고은 경장을 만나보았다. 인터뷰지에 미리 답변을 적어 온 섬세한 준비성에 감탄했더니, 심지어 그 내용을 외워 두려고 노력했다. 부드러운 미소 속에 숨겨둔 철저함이 아주 멋지다.



안녕하세요, 고은 경장님. 인터뷰 많이 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장 고은이라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약 2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웃음).



어떻게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원래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에 입학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와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해양산업경찰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배우는 곳인지 알아갈수록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저랑 잘 맞는 일이라 느꼈어요. 결국 전과를 해서 해양산업경찰학과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졸업할 때는 자연스레 해기사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그게 해양경찰이 되는 데 필요한 중요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양경찰이 되었습니다(웃음).

방어진항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게 여기 근처인가요?

네 여기. 울산수협 방어진 위판장 바로 앞 해상입니다. 저 해상에 원인 미상으로 차량 한 대가 추락한 사고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차가 그렇게 된 걸까요?

저희도 신고받고 바로 나간 거라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었고요, 나중에 CCTV 상에서 봤을 때는 차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확 가서 추락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해요. 당시에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시민 두 분

이 혈레벌떡 뛰어오셔서 “저기 수협 방어 진 위판장 앞에서 어떤 차량 한 대가 추락했다”고. “그 안에 운전자가 있었는데 얼른 와서 구해달라”며 신고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신고 접수 후 바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시민 김부근 씨가 익수한 운전자를 이끌고 부두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 물에 빠진 차량을 먼저 발견한 김부근 씨가 입수하셔서 차량 창문 밖으로 약간 나와 있던 운전자를 재빨리 끌어내신 거죠.

저희는 운전자 상태를 살폈는데,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로 의식이 없었고 동공이 풀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 바로 구조가 되면 좋겠지만, 해상과 부두 간의 높이차가 너무 커서 연안구조정 현측을 통한 인양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연안구조정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사람, 연안구조정이 올 때까지 숨이라도 돌려놓아야 안 죽겠구나. 나라도 들어가서 인공호흡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익수자의 심정지 원인은 대부분 호흡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이 반드시 필

요합니다. 거기다 이 차량 익수자의 경우에는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폐에 물이 차서 그런 건데, 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네. 아 정말, 연안구조정이 오기 전까지 이분 호흡만큼은 꼭 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냥 바다에 입수했어요. 입영을 하면서 그분께 인공호흡을 했죠. 거품을 걷어내면서.

그럼 바닷속에서 인공호흡을 하신 건가요?

네. 김부근 씨가 한 손엔 다른 해경이 던져준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운전자를 안고 버텸주셨고, 저는 옆에서 다리로 입영하면서 계속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텼죠. 운전자분은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제가 지금 좀 놀라서 그러는데(웃음). 원래 해양경찰이 되면 바닷속에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도 배우시나요?

네. 해양경찰이 되면 인명구조 자격증 과정을 배우게 되고, 또 해경으로 입사하기 전

에도 연수원 형태의 교육원에서 관련 과정을 배워요. 구조영법이라고 칭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웃음). 물속에 떠 있는 채로 해야 해서 참 어려워요.

대단하세요, 저는 수영도 못하는데.

저도 잘하지 못하는데(웃음). 그땐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민 김부근 씨가 함께 구조해주셨고, 또 금방 연안구조정을 타고 동료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구조활동 중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날 이후 인대파열로 3개월간 치료하면서 쉬었어요. 그래도 익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다행스러웠어요. 제가 사명감을 가진 해양경찰로서 한 생명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멋있으세요. 저는 물 밖으로 익수자를 구조하신 후에 인공호흡을 하신 건 줄 알았거든요.

해상에서 인공호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급한 상황이었고 경황이 없는 채로 계속 헤엄치며 인공호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무릎이 파열된 줄도 몰랐네요(웃음).

고은 경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이 책자의 <소통> 목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소통’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면, 해경분들의 ‘구조’와 ‘소통’은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네, ‘구조’와 ‘소통’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분들의 빠른 신고와 김부근 씨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용감한 시민분들과 저희 해양경찰이 서로 긴밀하고 적절한 ‘소통’을 나눈 거죠. 그분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시민과의 협업, 소통 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 방어진항에 있는 어민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출소뿐만 아니라 다른 파출소에도 ‘민간해



양구조대'라는 협업체가 있거든요. 지역 어민분들로 구성된 구조대인데, 저희가 긴급상황일 시 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생업을 놔두시고 두 팔 걷고 저희를 도와주러 오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세요.

일화를 하나 꼽자면, 올해 8월경 주전 해상 근처에서 원인 미상으로 레저 보트 한 대가 표류된 적이 있었어요. 연안구조정을 타고 긴급출항해 현장에 도착했는데, 얇은 저수심으로 저희 구조정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해양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드렸죠. 민간해양

구조선은 1톤짜리 작은 배라서 얇은 수심에도 잘 갈 수 있거든요. 덕분에 표류 보트를 예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와 저희 해양경찰이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성공적 구조활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책자를 볼 독자분들, 동료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른 신고로 저희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도와주시는 시민분들과, 생업이 따로 있으심에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달려와 주시는 민간해양구조대원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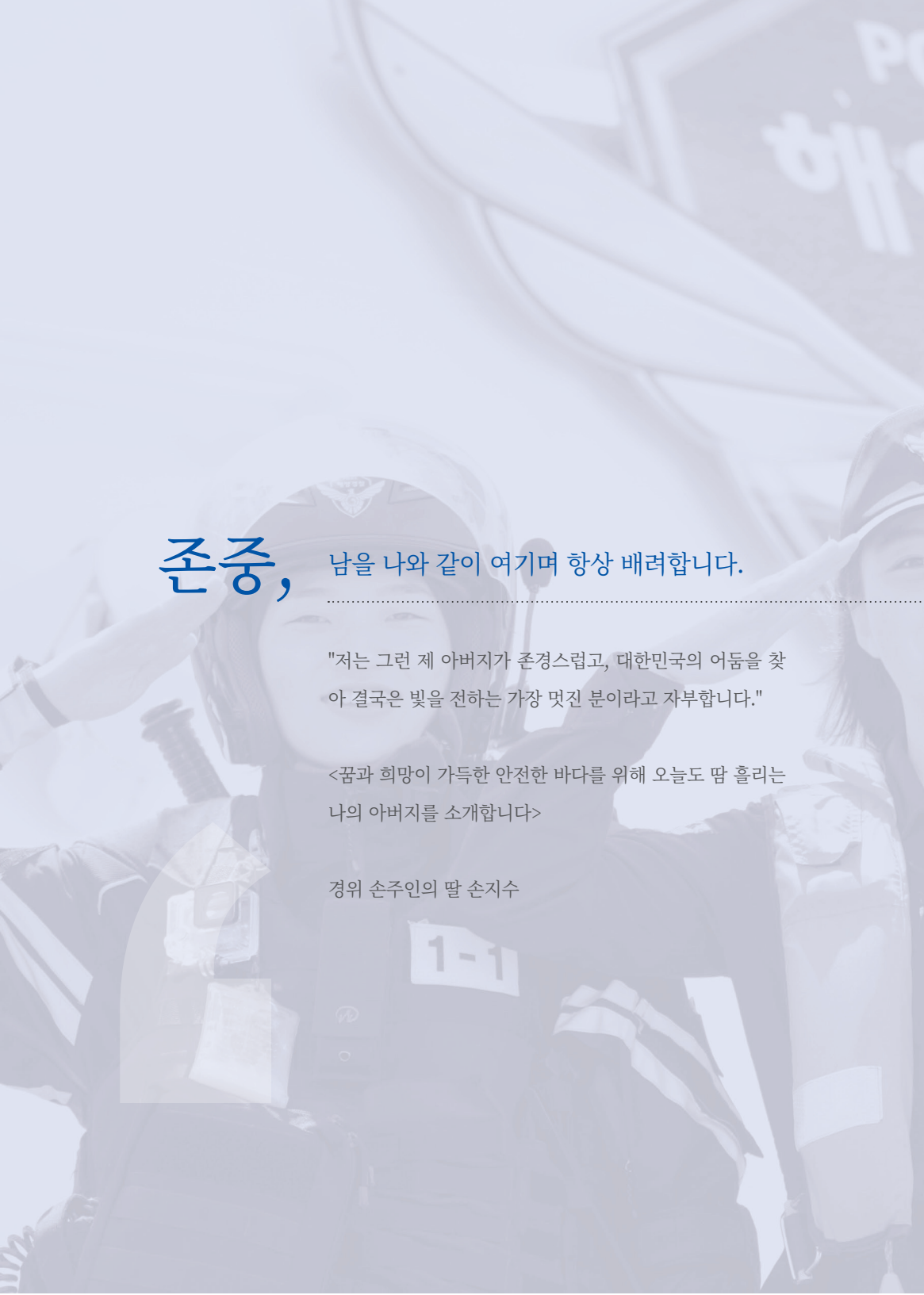
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본인 담당 업무 가리지 않고 근무하며 고생하시고 사건·사고마다 자기 한 몸 다 던져서 일하시는 모든 해양경찰 동료 분들, 너무나도 고생이 많고...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2년 차라 부족한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동료가 되도록,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나 바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건·사고가 난다 해도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또 어민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개인적 목표조차 해양경찰로서 사명감이 묻어난 대답을 건넨 고은 경장의 담대한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지난 5월 그녀가 내린 순간적이고 정확했던 판단은 이미 ‘준비’된 자

세에서 마침내 분발한 행동력이었던 것. ‘현재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배워나가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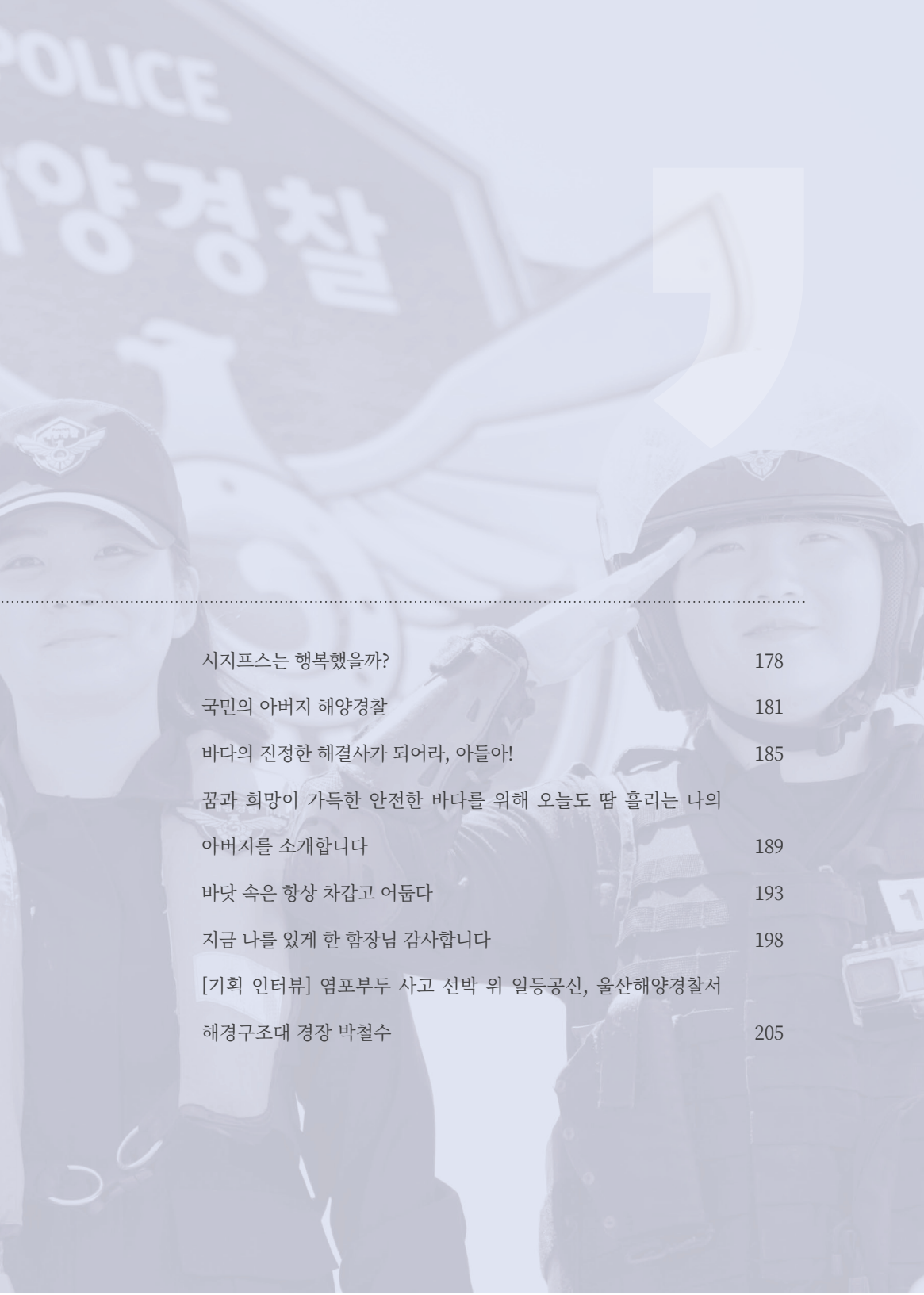


존중, 남을 나와 같이 여기며 항상 배려합니다.

"저는 그런 제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대한민국의 어둠을 찾아 결국은 빛을 전하는 가장 멋진 분이라고 자부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나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경위 손주인의 딸 손지수



시지프스는 행복했을까?	178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	181
바다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어라, 아들이!	185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나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189
바닷 속은 항상 차갑고 어둡다	193
지금 나를 있게 한 함장님 감사합니다	198
[기획 인터뷰] 엽포부두 사고 선박 위 일등공신, 울산해양경찰서 해경구조대 경장 박철수	205

가족의 눈으로 바라본 해양경찰 시지프스는 행복했을까?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회전익항공단 전탐팀 경장 고성현의 처 인하국제의료센터 간호사 유미선

매번 해양경찰인 남편이 직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뒷모습은 여타 회사원들의 노곤함과 권태로움보다 기약할 수 없는 100일간의 항해를 떠나는 선장의 책무의 무게가, 두려움을 알고서도 바다에 몸을 맡기는 의연함이 느껴지곤 했다. 그것은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서 평생 산 위로 바위를 굴려야 하는 자신의 숙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범인(凡人)과도 같았다. 그런 출근길의 뒷모습은 아련하기도 하고 못 미덥기도 하여 이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태반이었다. 해양경찰을 가족으로 두고 오래 지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지. 그리고 그 서늘 퍼런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지 말이다. 다시 육지의 흙을 밟기 위한 험난한 여정은 파도의 무게만큼 격렬하며 위태로워 보였다.

하루는 인천 부근에서 어선이 뒤집혀 20명가량의 인명 사고가 났던 날이었다. 제부도에서 근무하던 남편 역시 침몰한 어선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뉴스 속보에서 연신 쏟아져 나오던 다급한 실종자 수색 중계를 보며 그 날 그곳의 참담하고 위태로웠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는데 차가운 물 속에 있을 사람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경들의 모습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실종자를 한사람이라도 빨리 구했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색작업을 마쳤으면 하는 초조함에 애가 탔다. 거센 풍랑과 파도에 동요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은 심해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해경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할 두렵고도 송고한 일을 국민을 대신해 완수하는 듯 보였다. 해경이라고 어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이 무섭지 않겠는

가. 집어 삼킬듯한 파도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마음이면 그런 두려움과 마주하면서도 담
대하고도 의연하게 바다에 뛰어올 수 있는 것일까. 그 결연한 의지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해
지며 해양경찰의 마음을 헤아려보았다. 그 날 남편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데 힘들게 수색
작업을 마친 와중에도 많이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최선을
다해 구조했다면 그다음 일은 하늘의 뜻이니 너무 상념 하지 말라고 격려했지만 나 역시 마
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었다. 온몸을 받쳐 일을 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결과 앞에, 불가항력
적인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숙명 또한 그들이 감내해야만 할 소명의식이었다. 두려
움을 마주할 용기, 실패와 미완을 감내할 의지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경찰에게 느꼈던 인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인 만큼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살신성인으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업무태만이라며 그들의 무사 안일
한 조직문화를 비판하곤 했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대형사고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보고서,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한 경찰들을 탓하기 급급했다. 정부의 무능함과 사회 안전망
의 부조리함은 분노를 낳았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경찰에게 투사 되었다. 그 안의 진실보다
는 바깥의 사실에 집중했고 피상적인 것들만을 믿었으며, 슈퍼 히어로가 되어 주기만을 바
랐다. 해양경찰인 남편을 보고서 마스크의 이면을 엿듣게 되었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함
부로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원경은 아름답지만, 근경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어
느 문구처럼 TV 안에서의 그들은 태평해 보이지만 최전선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열악한 상
황과 시스템의 부재에서 곤혹을 치르며 사투를 벌였을 고충이 짐작되었다. 그 누구도 내 앞
에서 스러져가는 생명들을 그저 관망만 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의
위험에 대처하는 경찰이라면 더더욱이 말이다. 모든 사람을 구하면 단숨에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단죄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삶은 너무 가혹하다. 시시각각 변하
는 현장에서의 구조 여건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해경
들의 마음가짐과 열정이 구조자의 숫자에 의해 폄하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

다. 또한, 그들이 험난한 구조 현장에서 보았을 잔인하고 참혹한 장면들은 절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잔상으로 남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거나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섞여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그리고 여론이나 국민들의 질타까지 더해진다면 그 심리적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줄 길이 없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쉽게 간과된다. 표면적인 것들에 가려져 그들의 구명 난 가슴과 황폐해진 마음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 떠안게 된다. 해경도 경찰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며, 남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서로 연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었으면 한다.

오늘도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숙명의 외로움과 수없이 마주하게 될 거센 파도와 의 담담한 싸움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아 또 다시 고개를 떨군다. 산꼭대기로 돌을 굴러 올리는 시지프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평생 했지만 정말 괜찮았을까? 심지어 꼭대기까지 올린 돌을 다시 떨어뜨리면 또다시 묵묵히 돌을 올린 그의 우직함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아주 적은 수라도 그들 곁에서 힘내라는 소리와 그 인고의 시간을 같이 견뎌주는 따뜻한 체온과 함께라면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

글_해상교통관제과 경감 김영섭의 딸 문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민경

대한민국 영토의 4.5배,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낮은 곳 바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서 1년 365일 항해하고 저 지평선 끝의 꺼지지 않는 불빛을 매 순간 주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 영토와 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시는 그 이름, 아버지.

차선 없는 도로 바다 위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는 해양경찰이시다.

세상과 마주한 지 19년이 된 나는 길게는 1년 6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까지 초등학교 5번, 중학교 3번, 고등학교 2번 총 10번의 전학을 갔다. 함께 첫발을 떼고 달려왔던 친구들 곁을 늘 떠나야 한다는 것에 힘들어하던 나를 보며 “가족은 항상 함께여야 해.” 라던 아버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힘들었다. 아버지의 까만 눈동자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째선지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난 오늘 국민의 해양경찰, 아버지의 까만 눈동자에 담긴 이야기를 하려 한다.

우리 아버지는 해양경찰이 되시기 전 해양수산부 부산항 해상교통관제 센터에 근무하셨다. 당시 아버지는 누구보다 잠이 많았고, 호기심도 많으셨으며, 때론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 청춘이기도 하셨다. 바다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땐 한껏 멋을 내고 포즈를 취하며 행복해하셨고 가족만큼이나 해양을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국한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해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도록 구경시켜주셨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나는 바다와 자연스레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해상교통관제 관련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해양수산부 일반직 공무원에서 해양경찰로 전향하셨다. 부산에 있던 우리는 인천이라는 먼 곳으로 눈 내리는 겨울 어느 날 이사를 했고, 그 이후도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나 부산, 통영 등 아버지의 발령지를 따라 함께 이동하길 반복했다.

그러던 중 청춘들의 꿈을 담은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버지는 본청으로 파견 가셨고 몇 개월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 연고도 없는 통영에서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지냈다. 어느 주말 잠시 집에 오신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는 순간도 잠시,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의 직업이 뭐지? 아빠는 해양경찰이야.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아빠는 VTS를 전공한 사람이라 세월호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단다. 아빠는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 후 본청으로 발령이 난 아버지는 동료 해양경찰분들과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고민하셨고, <VHF 자동식별 장치>를 개발하여 국내 특허를 받았다. 특허개발권은 국가에 귀속하셨고 지금도 자신보다 국민을 위해 항상 겸손한 마음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살아가신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 핸드폰 해양 사고 문자와 동시에 퇴근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분들은 또다시 옷을 챙겨 소중한 생명을 구하러 나가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지키고 계실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 속보에 해양사고가 보도되면 일부 타인들은 “뭐하는 거야,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라 말하며 해양경찰을 원망하지만,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분들은 우리 가족을,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일선으로 뛰어든다.

붉은 등대는 붉은색 불빛으로 좌측통행을 유도하고 흰 등대는 초록색 불빛으로 우측통행을 지시하고 가끔 노란색 불빛으로 위험을 경고할 때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분들은 항상 “괜찮아”, “아빠 괜찮아” 하시며 자신에겐 그 누구보다 소홀하셨다. 평생 국민을 위해 사셨으니 자신을 위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신다.

해양경찰구조대 122에 근무하시는 삼촌은 매일 바다에 몸 담그시면서 내가 인사를 건네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항상 환한 미소로 받아주신다. 이날은 삼촌이 세월호 사건 해상 사고 구조대로 출동 간 지 보름 만에 오신 날이었다. 삼촌은 지금도 낮과 밤 구분 없이 흑색으로 칠해진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계신다. 모두가 입 모아 “내일이면 또 구조 가겠네. 파도가 심하다는 데 힘들어서 어째, 시체를 발견하면 무섭지 않아?” 라고 물으면, 삼촌께서는 “어두운 바닷속에서 혼자 외로이 있었을 생명을 발견한 기쁨과 동시에, 이미 꺼져버린 생명의 손끝에서 차가운 온도를 느꼈을 때는 슬픔에 얼굴이 사색이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삼촌은 본인이 거둔 생명과 함께 물 밖으로 나가시는 내내 자신과 그가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한다고 하셨다. “내가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있는 곳에 모셔다드릴게요. 빨리 물 밖으로 나가 편히 쉬세요.” 라고….

해양경찰분들도 편히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묵묵히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다로 가서 그대로 바다가 되어 버렸기에. 우리 드린 것 없이 받기만 수만 번….

그들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했음에 이젠 우리가 보답해야 하는 시간이다.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 소속에는 수평선 너머에서 발진해 해상 및 공중에서 돌격하여 독도를 지키는 독

존중

도수비대, 해양 사고 선박을 수사하는 해양과학수사관, 북태평양 6개국에서 국제적으로 바다를 관리하시는 국제해양경찰, 국제적 해양에서 발생하는 대테러 훈련을 하는 해경특공대, 기름 오염 방제작업의 해양환경 지킴이, 요트 및 선박의 안전 관리하는 바다의 교통경찰, 해수욕장 안전관리 바다의 안전지킴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하는 경비함과 고속단정 바다의 국경수비대, 하늘에서 바다를 수호하는 바다의 파수꾼, 교통관제탑에서 바닷길 안전을 책임지며 뱃길의 푸른 신호등을 오늘도 밝히는 많은 분이 계신다.

국민의 아버지 해양경찰 덕분에, 오늘도 국민을 위한 항해는 안전하게 망망대해 위를 나아간다.

2019. 8. 22.

아빠: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경감 김영습, 작성: 문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민경



바다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어라, 아들이!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502B함 순경 김응수의 아버지

저는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응수 순경의 아버지입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경찰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행복한 마음으로 피력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경찰로서 절도 있는 언행과 건장한 체격, 제복을 입었을 때의 늠름한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하며 가문(家門)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운동이든 다 좋아하고, 특히 그림도 수준급으로 아주 잘 그렸지요.

대학을 다니던 중 해병대(海兵隊)에 입대하겠다는 부모인 저는 훈련이나 군 생활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들고 고달프다는 해병대를 은근히 말렸지만, 남자로서 이왕 군대 가려면 해병대를 가야 한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원입대하여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귀신 잡는 해병으로서의 군 복무를 손색없이 훌륭히 잘 마치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지요. 전역 후엔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다며 대학 복학을 접고 해군(海軍)으로 다시 입대하겠다고 부모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는 표정으로 소신껏 포부를 밝히는 아들의 말에 우리는 순순히 수락하였습니다.

해군 SSU 해난구조대(海難救助隊)에 하사로 입대한 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성실히 근무하였지요. 해병대에서의 군 생활을 토대로 별 어려움 없이 열심히 근무하여 중사로 진급도 하였지요. 사고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구조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상부의 지시로 구조 작업 현장을 생생히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정성껏 그린 그림은 슬라이드로 구성하여 브리핑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표창도 받고 포상휴가도 다녀왔답니다.

5년 간의 해군 복무를 마치고 영광스러운 전역을 하였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해군 전역에 이어서 ‘해양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해양경찰 특공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불철주야 피땀 어린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부지런하고 운동을 좋아한 아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운동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며 부모를 설득시켰지요. 시험 내용은 안쓰러운 마음들이 정도로 혹독하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여 두 번 낙방하였지요. 그때 아이가 상당히 실망하는 것 같아 저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를 함께 읽으며 위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요.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자. 인내(忍耐)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할 수 있다, 도전(挑戰)은 아름다운 것.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하여 세 번째 시험에 도전, 필사적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결과 당당히 합격! 마침내 소원성취! 세상을 다 가진 듯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수험생일 때 무척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한 결과 드디어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6개월 연수 교육 수료 후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풍당당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海洋警察 特攻隊)’로서의 임무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해양경찰의 업무가 보기와는 달리 결코 호락호락 쉽지도 않고 꽃길만을 걷는 것은 더욱더 아니랍니다. 풍량이 심할 때는 뱃멀미로 고생하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고에 신속 과감히 대응해야 하지요. 예를 들면 인명 구조, 선박 구조, 선박 화재진압, 불법 중국어선 체포 등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해결을 잘했을 때의 기쁨과 보람은 저 바다만큼 크다고 아들은 힘주어 말하곤 하지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잠도 제대

로 자지 못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수색 작업을 실시하여 실종된 시신을 모두 찾아냈을 때 몸은 비록 물먹은 솜처럼 힘들었지만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쇠창살과 철망 울타리로 완전무장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해양 경찰의 단속에 적발당하면 다짜고짜 삽, 각목 등 둔기를 휘두르며 결사적으로 거칠게 저항할 때는 정말 아찔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인천항에 정박 중인 대형 화물선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TV 뉴스를 본 순간 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하여 별일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잖아도 지금 배에 비치된 소화포로 소방관 반대쪽에서 불타는 화물선에 열심히 물을 뿌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화재 선박을 며칠에 걸쳐 진압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고 해양경찰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더군다나 그 진압 현장에 우리 아들이 맹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지요. 또한, 금년 4월에는 백령도에서 침몰 중인 선박에 동료 해양 경찰들과 함께 뛰어들어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고 절반 정도 잠긴 어선을 무사히 항구에 옮긴 일도 있었답니다.

아들은 해양경찰 근무 중에도 그림 그리는 실력을 발휘하여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더러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구조 현장 그리기 외에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 현장을 묘사하는 그림을 잘 그려 활용하였고, 지난달에는 해양경찰 활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치하와 함께 포상을 받았지요. 해양 경찰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십분 발휘하는 점 또한 그저 대견하고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출동(出動)할 때면 가끔 긴장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 참으로 든든하고 의젓해 보여요. 출동 임무를 완전히 마치고 집에 무사히 돌아와 가족(家族)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반갑고 뿌듯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바다에서 혼자 보기 가까운 장면들, 이를테면 일출과 일몰의 황홀한 광경, 별빛 가득한 아름다운 밤하

존중

늘,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와 파도와 섬... 이런 장면들을 가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오지요. 그것을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보면서 음식을 먹거나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하다며 씨익 웃지요.

집에서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틈만 나면 조깅, 헬스, 주짓수(유도) 등 운동을 하며 체력단련을 생활화하고 있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인데도 매월 적금을 꼬박꼬박 부어 현재 저축액이 상당하며, 부모에게 용돈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등 요즘 보기 드문 효자(孝子)랍니다.

아들은 현재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2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해양 경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튼튼한 안보(安保)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바다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 바다의 진짜 사나이요 멋진 해결사(解決士)로 임무 완수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위험이 뒤따르긴 하지만 이 길을 천직으로 알고 빛나는 애국심(愛國心), 따뜻한 가족사랑, 민중의 지팡이라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고 없이 건강한 가운데 승승장구(乘勝長驅)하길 부모로서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해양 경찰 모든 가족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2019. 8.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나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글_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121정 경위 손주인의 딸 손지수

자녀인 제가, 해양을 지키는 우리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먼저 ‘과거의 거북선, 현재의 함정’, 두 번째로 ‘바다의 수호자인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바다 안전지킴이 해양경찰’까지 총 세 가지 주제가 떠오르며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누구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도전할 수 있지만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해양경찰은 이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연은 우리를 쉽게 범하기도 하지만 해양경찰이 있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 또한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경찰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해양경찰관’이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이라 생각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현재 해양경찰의 함정입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한 이순신 장군. 그는 거북선 12척으로 왜구를 무찔렀고 결국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뒤, 이순신 장군의 민족성을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 ‘해양경찰청’이라는 훌륭한 집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형태는 과거와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해양경찰도 과거 이순신 장군의 든든한 부대와 같이 우리 땅의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호신인 해양경찰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가족들과 국민을 위해 먼바다에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마다 중국어선이 가져가는 불법적인 이익을 막아 우리의 소중한 어업 자원을 지키고 더 나아가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의 생업을 안전하게 지탱하면서 해양 경제를 책임집니다. 과거의 왜구가 그랬던 것과 같이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략할 때마다 거북선 머리에 있는 용처럼 두 눈을 크게 부릅떠 맞서고, 다양한 무기로 위협을 가하는 적들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조상님들도 자신들보다 더 많은 수의 왜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중국어선이 몰려온다 해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해를 침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이들이 이순신 장군을 몰라 콧방귀를 끼며 웃더라도 경비함정 앞머리에 서서 중국 어선을 쳐다보는 경찰관의 총명한 눈빛을 본다면 마치 사나운 용을 본 듯 움츠릴 것입니다. 외국어선 뿐만 아니라 불법 어업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 역시 해양경찰의 경고를 헛것으로 들었다면 아주 공평하게 정의의 심판대 위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바다의 수호자, 우리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수호자’들이 있고, 그들은 각자 맡은 바에 충실하게 임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호자들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분야의 대한민국 수호자들 중에서 ‘바다의 수호자인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는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국민이 바다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덕분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영토를 지키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인 나의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다양한 이유로 전복되거나 실종된 사람을 찾아 구조하며 불행보다 행복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들을 구하기 위한 훈련을 매번 반복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걸고 구하는 일이기때 참으

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실천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이들이 살면서 일궈왔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 근무를 하는 바다 수호자들의 눈은 항상 총명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칩니다.

또한,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음주 운항을 하는 이들도 속속 적발하여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수호합니다. 이것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만들어 무료 배포하는 등,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바다의 신호등이 되어주는 해양경찰은 드넓은 바다에서 등대처럼 묵묵히 바다를 지키는 해양 수호자이며 누구보다 치열한 하루를 살고 있는 한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저는 그런 제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대한민국의 어둠을 찾아 결국은 빛을 전하는 가장 멋진 분이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해양 수호신, 경찰관

저는 차근차근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해양 경찰관분들을 보면서 이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해양경찰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에 관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독도에 대한 이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먼 일본은 아름다운 섬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여전히 일본이 그곳을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 한들,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들은 함정에 올라 상시 대기하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를 넘보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땅, 독도에서 안전하게 관광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존중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었거나 세관을 거치지 않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경우 해양경찰이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밀항하는 범죄자를 잡기도 하는 등, 때론 해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포함한 이런 해양경찰관분들의 이름 앞에 '진정한 해양 수호자'라는 말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노력 덕분에 우리 바다의 미래는 앞으로 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한반도의 호랑이같이 용맹한 면모를 보여주며 그 위상을 더욱더 높여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손주인 경위, 사랑합니다.

2019. 8. 28.

자녀 손지수 올림



| 바닷속은 항상 차갑고 어둡다

글_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 경위(승) 김병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영웅’이 존재하고 있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타인의 생명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칭송하며 존경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가 몸담은 해양경찰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민과 뱃사람에겐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한 가닥 동아줄과 같은 존재다. 우리 해양경찰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을 위해 차가운 바다로 거침없이 몸을 던진다.

< 잊히지 않는 그날 >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잊으려고 눈을 감아도 흰히 펼쳐진다.

지난 2013년 10월 15일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 청루호(8천톤급)가 순간 최대 풍속 20m/s에 달하는 태풍급 바람과 6~8m의 강한 파도에 방파제 쪽을 향해 밀려나기 시작했다. 19명을 태우고 있던 청루호는 17시 45분경 해양경찰로 구조 요청 중 북방파제 끝 부분과 충돌했고, 결국 선박이 두 동강나면서 침몰했다. 즉시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긴급 출동명령 지시가 내려왔고 모든 구조 대원에게 소집비상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제 시간에 응소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날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있는 이유는 사고 발생 하루 전 10월 13일 저녁 10시경에, 첫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기쁨을 만끽하며 산후 조리 중인 부인을 돌봐주고 있는 찰나 사건이 터진 것이다. 10개월간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었

지만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고현장으로 급박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무실에 도착 전, 영일만항 북방파제에 충돌한 청루호는 침몰했고 승선원 19명은 차가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용부두 도착 후 507함정에 승선해 곧장 사고해역으로 떠났지만, 집채만 한 파도와 어둠이 깔려 구조활동을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다.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며 함정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날, 동이 틀 무렵인 오전 5시경 맛있는 바다 위 사고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이었다. 빨간색 구명조끼를 입은 승선원 시신이 바다 여기저기에 표류하고 있었다. 사체를 수습하던 중 침몰한 배의 마스트 부분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의지하며 10시간을 버티고 있던 생존자 8명을 발견하고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오전 발견한 사체는 9구, 생존자는 8명, 그리고 2명의 실종자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 나는 항상 구조현장에서 생각한다.

‘실종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다. 수습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생존자로 생각하자.’

언제나 이 마음가짐으로 수색에 임한다. 다음 날, 침몰선박 수중수색이 시작되었다.

< 15년 잠수 베테랑도 바닷속이 무섭다 >

오후 6시, 침몰한 청루호에 수중수색 차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풍랑경보가 몰아친 후라 수중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다. 눈앞이 혼탁했고 잠수복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다 기운 탓에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침몰한 선체에 가까워지자 ‘끼잉끼잉’ 괴이한 소리에 이어 갑자기 ‘쿵쿵’거리는 굉음이 들렸다. 침몰선박 갑판에 설치된 크레인들이 조류에 따라 움직

이면서 음산한 소리를 내 공포가 엄습했다. 악조건 속의 선내 수색작업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5년 잠수 특채로 해양경찰 특공대로 임용된 나는 15년간 수백 번의 다이빙을 했지만, 여전히 바닷속이 두렵다. 다이빙할 때마다 ‘오늘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닷속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체 훈련 때도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줄 동료는 항상 옆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함께 목숨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용기를 잃지 않은 채 구조 현장에서 거침없이 뛰어들 수 있는 건 모두 그들 덕분이다.

< 후회와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구조 현장 >

나는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현장에도 어김없이 투입되었다.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자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방향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물을 등에 업고 반드시 생존자를 찾겠다는 각오로 사고 현장인 맹골수도에 닿았지만, 그곳엔 거센 해류가 무자비하게도 몰아치고 있었다. ‘역시 바다는 구조 작업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구나.’ 괴로운 심정으로 구조 여건이 좋아지길 간절히 바랐으나, 몸에 감고 틀어간 로프가 끊어질 정도로 강한 조류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강한 조류를 피해 하루 2번,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시간에 사력을 다했음에도 ‘하는 게 뭐냐? 뭐 하러 여기 있냐’는 언론의 비난과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 섞인 울부짖음이 쏟아졌다. 지친 몸만큼이나 가슴이 무거워졌다.

한 구, 두 구. 시신 수습 작업이 계속되었다. 선 내의 시신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다. 어린 학생의 싸늘한 주검과 마주할 때면 가슴이 찢어졌다. 악몽 같은 수색작업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세월호 참사로 모두 295명이 사망했으며 9명의 실종자는 끝내 찾지 못한 채 11월 11일 수색작업이 종료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참고 있던 눈물이 흘렀다. 매일 그날의 수색작업을 끝낸 함정이 팽목항에 입항할 때면 해가 서쪽하늘을 넘어가고 있곤 했다. 마지막 수색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팽목항은 너무도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 그 수많은 텐트와 언론인, 자원봉사자들은 현저히 줄었고, 겨울바람과 같이 차가운 바닷바람과 노란 리본만이 외롭게 우리를 위로할 뿐이었다.

< 나의 어릴 적 꿈은? >

나는 해양경찰이 되기 전 5년 동안 군에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하였다. 또래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병무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원입대를 신청하고, 입대 날짜가 가장 빠른 특수전사령부에 입대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특수전사령부에 입대한 일인 것 같다. 군 전역 후

나는 해양경찰에 먼저 입사한 군 선배의 권유로 ‘해양경찰 특공대를 뽑고 있으니 시험에 응 시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양경찰요? 뭐 하는 곳인데요?’라고 물을 정도로 너무도 생소한 곳이었지만, 첫 시험에 합격한 후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곳은 결코 떠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어릴 적 내 꿈은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군인과 경찰이었던 거 같다. 2005년, 해경에 임용한 내 나이 26살에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룬 셈이다.

해경에 입사 후 첫 발령지인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백년해로를 약속했다. 같은 해양경찰 직원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아내는 늦은 시간 비상출동이 걸려도 ‘잘 다녀와’하는 시크한 말 한마디로 나의 걱정을 덜어 준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아내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옛날과는 달리 나의 안전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구해야 할 수많은 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몸조심해.”

아내의 말 한마디와 든든한 지원군인 동료들을 믿고 오늘도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들어간다.

|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함장님 감사합니다

글_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 나로도파출소 경감 김영종

나는 여수에서 뱃길로 약 3시간이 걸리는 남면의 조그마한 섬 소리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자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대학교는 여수 등 대도시로 진학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자연스레 바다가 친숙해졌고, 고생하시는 아버지 뒤를 이어 장래에 꼭 마도로스로 성공해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부모님께 해양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위험하고 힘든 뱃일을 절대 더이상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반대하셨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여 육지 땅 밟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기업에 취직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를 차마 꺾을 수 없어 우리 6형제 모두 부모 뜻대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도 늘 바다가 그리웠다. 방학 때마다 섬으로 내려가 아버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여수 어시장으로 팔러 가는 날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고 좋았다. 그 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여 4학년 2학기쯤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거리벽보판에 해양경찰 채용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경찰공무원 중 동경해왔던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적성에 잘 맞을 것이라는 기대와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좋겠다 생각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물리치고 1년여 수험준비 기간을 걸쳐 당당히 합격, 93년 1월 186명의 동기생(183기)과 함께 경찰학교를 졸업해 초임지인 제주해양경찰서로 발령받았다.

같이 발령받은 동기생 34명과 함께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환상의 섬 제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는 듯 행복해 보였다. 1월의 제주섬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우리를 반기듯 그 자태가 매우 곱고 아름다워 긴장된 마음마저 풀어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제주에서 우리들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이튿날 각자 발령받은 함정으로 뿔뿔이 흩어져 벌써 출동 나갈 준비를 하는 동기들도 많았다. 대부분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공채 출신들로 제주의 매서운 파도에 멀미를 하지 않을지 몸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등 걱정이 많은 분위기였다. 난 아버지의 배를 타본 경험이 있어 걱정이 적었지만 제주항 방파제를 뛰어넘는 산더미 같은 파도를 바라볼 때는 내심 겁도 나고 두려웠다. 다행히 내가 발령받은 256함은 출동 중이라 입항할 때까지 경찰서에서 3일간 대기를 하는 여유가 생겨 선배 직원분들께 제주 바다의 특성과 함정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결같이 “제주 바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칠고 험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다”, “포기할 거면 일찍 해라.” 등등 부정적인 말들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먼저 4박 5일간 출동을 나갔다 입항한 동기들의 창백한 얼굴과 며칠 굶은 것 같은 초췌한 모습들을 보니 그제야 선배 직원분들의 경험담이 거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뱃멀미를 심하게 앓아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죽을 것 같다, 배가 파도에 넘어가는 줄 알았다,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 실제상황은 너무 다르다며 평생을 파도와 싸우며 젊은 청춘을 바쳐 이곳에서 근무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을 말하는 동기들이 대다수였다.

얼마 뒤, 나도 드디어 4박 5일의 출동명령을 받고 첫 출항을 하게 되었다. 갈매기 떼들은 첫 출동을 축하하듯 내 주변을 배회하며 요란하게 울어댔고 매서운 겨울 제주 바다의 날씨는 아무래도 긴장한 내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출항한 우리 함정이 제주항

방파제를 벗어날 때쯤, 선체가 순간 좌우로 요동쳤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건만 선배직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했다. 아하~ 이런 게 오랜 경험에서 배어 나오는 노련미구나! 하고 깨달았다.

4박 5일 내내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험악한 날씨가 이어졌다.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기 힘든 가운데 중국어선 퇴거와 중국공해 상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들의 기관고장 예인 등의 좋지 못한 상황이 끝없이 이어졌다. 식사를 하지 못해 온몸이 축 늘어졌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당직근무도 열외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선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들이 정말 위대해 보였다. 그 당시 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다 그래. 조금만 참다 보면 다 극복되고 세월이 약이다.”

라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낯선에만 맴돌 뿐 당장 닥친 현재의 육체적 고통을 이길 힘이 생긴 않았다. 절대 배를 타는 직업을 갖지 말라던 아버지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결국 내가 바다와 배를 좋아한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자 적응하지 못한 동기들이 하나둘씩 떠나 발령 온 지 3개월 만에 34명 중 8명만이 남게 되었다. 평생을 4박 5일 교대 출동으로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직장을 떠난 이유인 것 같았고, 나 역시 이런 분위기에 맞춰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여수고향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사표를 낸 결정적 계기는 93년 4월 5일 서귀포 남방 20해리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중 일어났다. 다음날 새벽 2시쯤 중국 양자강 동서 방 200해리 공해 상에서 여수안강망 〇〇호가 조업 중 기관고장을 일으켜 긴급 구조를 요청했고, 상황실 지시를 받은 우리 함은 밤낮으로 항해하여 이를 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우리나라 어선들은 선체나 기관이 많이 노후되어 조업 때마다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출동 기간 내내 예인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비

일비재했다. 당시 중국은 폭우가 쏟아져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공해 상까지 퍼져 온통 황토색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버가 익어가는 가을 들녘을 연상케 했다. 우리 함은 4월 8일 새벽 4시 기관고장 어선을 찾고 제주항을 향해 3노트 속력으로 예인을 시작하였다. 제주항까지는 약 300해리로 4~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다. 육지불빛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엔 하늘의 별빛이 유일한 길잡이였고 그날따라 유난히도 하늘이 고와 보였다.

예인 3일째 되는 날 서귀포 남서방 100마일 해점을 통과할 시점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 과연 풍랑 속에 나는,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왔다. 점점 더 기상은 악화되고 집채만 한 파도가 뱃전을 때리며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달려들었다. 직원, 의경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등 오로지 자기보호에 분주한 반면, 함장님은 침착히 파도 방향을 파악해 적절히 엔진속력을 조절하면서 조함에 신경 쓰고 계셨다.

부장과 기관장이 이런 날씨에 계속 예인을 하게 되면 어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비정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인을 포기하자고 말했다. 우선 어선이 현 위치에서 닻을 놓도록 하고 기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 우리는 제주 화순항으로 피항했다가 다시 예인하러 오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함장님은 우리만 살자고 어선을 포기하면 저 많은 어민들의 생명은 누가 보호해줄 거냐며 반대했다. 그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용왕님이 좋은 일하는 우리를 그리 쉽게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웃음 띤 얼굴로 우리를 안심시켰고, 계속 예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미 침실과 갑판창고 등에는 해수가 스며들어 물이 고여 있었고, 심한 멀미와 탈진상태에 빠진 일부 직원과 의경들은 침실에 누운 채 일어나질 않았다. 나 역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멀미가 심해 조타실 한쪽 귀통이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선 선장 본인마저 구난 통신망을 통해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날씨에 계속 예인을 하게 되면 둘 다 위험하니까

자기들은 포기하고 경비정 단독으로 피항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함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난 그때 생각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던 바다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후회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평생직장이라고 들어온 곳의 실상이 이렇게 위험한 데다 기약 없는 4박 5일 막 교대 근무를 끝없이 해야 한다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도저히 자신감이 생기질 않고 오로지 ‘포기’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간다면 당장 사표를 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육지 땅을 밟고 생활하는 직업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날, 함장님께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경 생활 25년 동안 함정근무만 20년을 했고 육상근무는 겨우 5년밖에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육지보다 바다가 더 좋고 편해 계속 해상으로 향하는 근무만 하게 되었다고. 금방이라도 배가 넘어갈 듯 위험한 일을 수없이 겪으며 몇 번이고 이직을 하고 싶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 뿌듯함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을 천직이라 여기며 이어간다고. 끝으로 그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정신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고 포기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로 뱃멀미와 공포감에 사로잡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를 격려했다.

그렇게 우리는 꼬박 하루 동안 풍랑과 싸웠다. 함장님은 식사도 거른 채 여전히 조타실에 머물며 함 내 안전에 온 신경을 쓰면서도 피로에 지친 당직자들을 격려했다. 난 그런 함장님을 지켜보며 새삼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사무쳐 눈물을 흘렸다.

어느새 우리 함은 제주 화순항 남방 약 50마일까지 접근하였다. 우리 함을 집어삼킬 것 같

은 파도도 잦아들어 침실에 누워있던 직원과 의경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취사담당 의경은 저녁식사준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하늘도 모처럼 푸른색을 띠면서 한 무리의 기러기 떼도 어디론가 서둘러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 함정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우리 함은 5일에 걸쳐 기관고장 어선을 예인하고 제주항 전용부두에 입항하였다. 출항한 지 10일 만이다. 출동 기간은 4박 5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출동 기간을 넘겨 입항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날 난 퇴근 후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이직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출근과 동시에 함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경찰서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함장님은 이왕 시작한 거 같이 한번 해보라며 다시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지만, 겁에 질린 난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 여수로 돌아왔다. 이런 내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경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시작했느냐는 질책과 함께 그런 의지로 어디 가서 밥 빌어먹고 살겠느냐며 몹시 화를 내셨다.

집에 돌아온 후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항상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불편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직장을 소개해달라 부탁했지만 내 적성과 입맛에 맞는 반듯한 직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일용직 생활로 근근이 생활했지만 안정적이지 못해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사직서를 내고 온 지 보름 정도 흐른 어느 날 함장님께서 전화가 왔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해 뒀으니 어서 제주로 넘어와 같이 근무하자고 하시는 게 아



닌가. 난 문득 함장님과 256함 직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거친 날씨 속 두려움과 공포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에도 해경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함장님과 자기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생각하니 직장 초년생이랍시고 한순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런 생각 없이 사직서를 쉽게 낸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했다.

1주일 후, 난 죄송함을 무릅쓰고 함정으로 복귀하였다. 바다가 좋아 해경의 길을 선택한 만큼 함장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스스로 헤쳐나가리라 다짐했다.

그칠 줄 모르는 제주의 험난한 풍량과 싸우며 지낸 초임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어느새 27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이제 우리 해양경찰은 대형화, 신형화된 함정과 첨단화된 장비, 3교대 정착 등 근무환경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져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자부심을 느낀다.

나를 붙잡아주신 함장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나도 함장님처럼 멋진 함장이 되었네요. 벌써 내 나이도 당시 함장님의 나이가 되어 정년을 몇 년 남겨 놓지 않았네요. 평생을 감사하며 퇴직하는 그 날까지 해양경찰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염포부두 사고 선박 위 일등공신, 울산해양경찰서 해경구 조대 경장 박철수

인터뷰 : 조덕현

인터뷰이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해경구
조대 경장 박철수

사진 : 김지원

편집 : 김지현

다부진 체격에 꼭 다문 입술, 다리 위에 나란히 엮은 양 주먹이 굳세다. 기세로 미루어보아 인터뷰를 앞둔 첫마디가 딱딱하고 묵직할 줄 알았더니, 카메라를 보곤 '얼굴에 뭐라도 좀 찍어 바를걸 그랬다'며 쑥스러워한다. 광음과 함께 폭발한 대형 화재선박에서 단 한 명의 시민 피해자 없이 구조를 완료한 영웅의 반전매력이 드러난 순간이다.



존중

안녕하세요, 경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너무 초췌한 모습
이지 않나요? (웃음)

아닙니다. 충분히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히 경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
찰서 해경구조대 경장 박철수입니다.

9월 엠포부두 화재에 일등공신이셨다고
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폭발·화재 사고였는데, 아직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톨트 그로이란드
호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옆에 있
던 배까지 불이 옮겨붙은 아주 큰 화재사고
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원
래 그런 화재가 종종 있나요?

선실 내 전류 합선으로 인한 사고는 종종
있는데 이번처럼 가스탱크가 폭발한 경우
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해경
구조대)로 올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괜찮으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웃음). 괜찮습니다.

어떻게 진단이 나왔나요?

일산화탄소와 원인 미상의 가스 중독, 그리고
폐렴으로 최종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 말로는
이 가스가 어떤 가스인지 본인도 정확한 판단
은 안 되니까 우선 장기적으로 계속 주시하
면서 검사를 하자했어요. 그래서 사건 이후로

지금도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요, 약 꾸준히 먹으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시죠?

..가족들요(웃음). 네. 와이프도 엄청 울고, 장인어른한테는 완전히.. “만약 네가 그렇게하다가 잘못됐으면 애기 두 명이랑 어떻게 됐겠냐”고 많이 혼났습니다(웃음). 제발 몸조심하라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와이프는 “잘했다.”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도 “자기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게 맞다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뒷일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웠을 텐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웃음). 고마웠고요.

경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해양경찰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해군의 해난구조대로 군 복무를 하면서 여러 사건·사고를 마주했어요. 그렇게 터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지금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경험을 살려 직업을 택하신 거네요.

스톨트 그로이란드 호 폭발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시민피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처럼 가스를 흡입하거나 구조 중 경미한 화상을 입은 소방대원분이 계신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해경 쪽에서도 저를 포함한 동료 5~6명이 병원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은 회복을 좀 하셨나요?

네. 다른 분들도 다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고 계십니다.

‘화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지화재가 먼저 떠오르는데, 선박화재가 육지화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규모로만 봐도 이번 선박화재는 아주 큰, 특수한 경우였는데요. 배에 있는 가스탱크가 폭발했다 보니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배 입구로 대피해야 하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입구의 중간 쪽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육지 방향으로선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원이 바다 쪽으로 나오거나 비상구조선에 올라 탈출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 사고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활동을 하셨다 들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대원들은 물에 빠진 분들부터 구조하고, 위에서 내려오시는 선원분들을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려오신 분이 “위에 아직 사람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 구조정은 우선 한번은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그분은 내가 반드시 보호하고 저 뜨거운 곳에서 빨리 모시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작정 줄사다리를 타고 선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셨을 텐데요.

네, 원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장비들을 받아서 착용하는 동안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안에 계신 그분은 다신 나올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최대한 빨리 움

직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신속히 들어서 요구조자와 함께 나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냥.... 빨리 다녀와야겠다고 짧은 순간 결심했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된 동력이 뭐였을까요?

이전에 제가 해양경찰이 된 지 7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사고 현장에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모두를 돕고 싶었지만, 여러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마음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단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날 이후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앞으로 내게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자고. 그러던 중, 이번 같은 사고를 마주하니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즉각적으로.

구조작업하실때가족생각이많이나실것같아요.

네, 많이 나요. 그런데 항상 모든 구조 작업이 끝이 난 후에야 비로소 생각이 나요. 이번에도 그 선박에서 나온 후 30분쯤 지

났나? 그때부터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구토랑 기침이 나고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긴급후송됐어요. 좀 괜찮아졌을 때 눈을 딱 떴는데, 와이프가 제 앞에서 애들하고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 그 순간은 옳다고 판단했었지만, 가족들 눈물을 본 그때는 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웃음). 당시에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죠.

그 마음 잘 전해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한테 늘 고마워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동료분들께. 여기 울산구조대에는 대장님 포함해서 총 17분이 계세요. 저희 구조대가 돌돌 뭉쳐서 이런 큰 사건을 탈 없이 잘 행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원분들이 병문안을 와주셨거든요. 돌아가면서 제 병수발까지 해주시는 모습에서 구조대의 의리가 느껴졌습니다(웃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목차 중 <정의>라는 테마가 있는데요. 해양경찰이 지니는 4대 가치 중 ‘정의’, 또 경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걸까요?

음, 정의요... 정의롭다...

이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웃음)

‘정의’에 관한 질문이 어렵다면 그냥 건너뛰자는 제안에 아이처럼 좋아하는 얼굴이 순수하다. 사실 행동으로 그 누구보다 명확히 설명해냈으니, 그가 ‘정의’에 대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어딴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같은 든든한 동행을 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박철수 경장이 국민에게 선사한 ‘안전’이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그 역시 앞으로의 행보 내내 안전하게 꽃피워지길.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수기집

©2019, 해양경찰청

펴낸날 2019년 12월 23일

기획 해양경찰청

홍보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주소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홈페이지 www.kcg.go.kr

페이스북 facebook.com/kcgnpm/

전화 032-835-2000

출판 및 디자인 (주)착한넷

디자인 김명진

표지디자인 최해윤

인터뷰 조덕현 김지원 김현미

편집 허혜민 김지현

홍보 및 배포 김지원 김현미 김지현 최해윤

홈페이지 <https://books.chakan.net>

전화 070-7092-0999

ISBN 979-11-86001-96-7

착한북스는 사회적기업 (주)착한넷의 도서출판 브랜드입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